금주의 법구-〈별역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2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8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선거 개입 나선 개신교 사회 갈등 촉발시키나

4.13 총선, 종교 개입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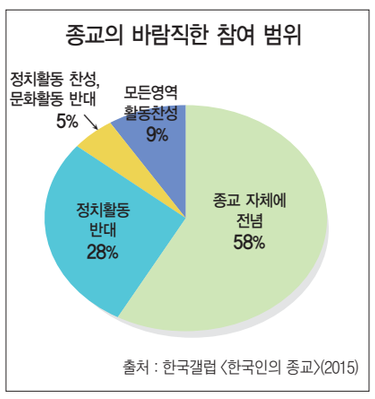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한 달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천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에는 지지를, 부정하는 '반(反) 개신교' 정서 후보에게는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교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개신교계 진보 진영으로 잘 알려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3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를 발족했다. NCCK는 정권 심판론, 역사 왜곡과 과거사 미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보수 진영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중심이 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동성애를 포함한 국가인권법 ·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슬람 대책 △한국교과서 내 기독교 기술 등을 주요 정책 반영 목표로 삼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정책질의서를 1400명 예비 후보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개신교계의 이 같은 운동은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실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월 29일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해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홍역을 겪었다.

사실이 알려지자 진보계열 정의당, 녹색당들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이를 성토하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돼야 할 가치들을 보장하는 법률"이라며 "공론에 따라 토의 · 수용돼야 할 국제적 인권사안을 두고 특정집단의 종교 행사에서 반대하는 것은 권력창출을 위한 표 구걸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갈했다.



출처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2015)

개신교계 보수 · 진보 진영 모두 선대위 조직… 총선 대응나서
'反개신교' 후보 낙선운동 추진

"종교의 정치개입 순수성 상실"
'정치개입 반대' 다수 국민 여론
종교 · 인권 의식 변화가 필요해

이어 김 대표와 박 위원에게 "국회를 사적인 종교 신념을 강요하는 자리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국민들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발간한 여론조사보고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종교는 종교 자체에 전념할 것'에 동의했고, 28%는 정치 활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86%라는 국민들이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공공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서 '반 개신교' 후보에 대한 낙선까지 공언하면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엄연한 정교분리 위반이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선거법상 위반뿐만 아니라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점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상 낙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 하더라도 종교 단체가 선거 및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헌법이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제20조 2항)'은 종교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를 막기 위함이지만, 이는 종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종교 단체의 순수성을 상실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도 선거에 개입하는 개신교 단체의 조직적 행위가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법응 스님은 "자신들의 교리와 정서에 부합치 않는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 입체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의 위배, 배타주의에 의한 반목 조장, 국민화합 저해 등 현저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즉시 중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도 개신교 등 종교의 과도한 정치 참여에 대해 국민들이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박 대표는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순간뿐"이라면서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종교 · 인권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 박아름 기자



전화 한 통으로 성역화불사 동참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ARS모금이 시작됐다. 조계종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추진위(총도감 지현)는 3월 9일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ARS와 문자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3월 25일 조계사 일주문 옆 신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총도감 지현 스님과 종무원들이 ARS 화면을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ARS 060-700-1027 글=노덕현 기자 · 사진=윤호섭 기자

찬불가지도사 승인… 불음포교 활성화 기대

강형진 니르바나 단장, 올해 초 문광부 등록 마쳐

동국대 평생교육원 강좌 개강도

불교계에 찬불가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과정이 새롭게 생겨 앞으로 불음 포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로부터 찬불가 지도사 1급과 2급 과정에 대한 최종 등록과정을 마치고 지도사 양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3월 7일 밝혔다.

그동안 교회음악이나 찬송가 복음성가 관련 민간자격증은 수십여 개에 달했으나 불교음악 자격증 과정은 이번에 등록된 〈찬불가지도사〉와 〈음악촉진사〉를 비롯해 단 3개에 불과하다. 강 단장은 "2년전부터 동국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찬불가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민간자격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난해 문광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등록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단장은 이번 자격증 등록을 계기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과 고양캠퍼스 평생교육원에 〈찬불가지도사〉 및 〈찬불가 힐링스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의 불자들과 사찰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상미, 김태환, 강유정, 최현진, 이동원, 이정화 등 이탈리아와 독일서 클래식 음악교육을 수료한 음악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찬불가 지도사〉는 찬불가를 통해 신심을 고양시키고 생활화하기 위한 민간자격증으로 합창단 지휘자 초빙에 여러 제약이 있는 사찰 및 단체(군법당, 교도소, 복지관 등)를 위해 찬불가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무산 · 원각 · 무관 스님 대종사 법계 대상자로

조계종 법계위서 만장일치 확정


무산 스님


원각 스님


무관 스님

속초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 무관 스님이 대종사 법계 대상자로 확정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35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무산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 · 11대 중앙종회의원과 제3교구본사 신흥사, 봉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원각 스님은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극락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2015년 3월 제9대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무관 스님은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장, 해인사 율원장, 조계종 행자교육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종사 법계 품서는 중앙종회에서의 동의를 거쳐 원로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4월 20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리는 대종사 법계품서식에서 품서한다. 노덕현 기자

1088호 INDEX

시방세계 5
한국관광공사 3월 추천
'사라진 옛 절터 찾아서'



리더에게 聽하다 14·15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깨달음 논쟁,

깨달음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쟁에 관련한 기사가 2016년 2월10일자 현대불교신문 1면에 실렸다
깨달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논쟁의 대상은 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지혜광명을 설한 화엄경 제10품 보살문명품에서
모든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어떤 것이 부처의 경계이며, 법이며, 지혜이며, 증득함인지?〉 물어서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께서 자비롭게 경(經)에 법등(法燈)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의 법등을 요약하면 〈만경(萬境)이 둘이 아니고 생사가 둘이 아니며 법계와 중생의 세계가 차별함이 없는 지혜의 경계가 허공과 같이 무의(無依)하여 삼세가 평등하며, 식(識)으로써 능히 아는바가 아니며 또한 마음의 경계도 아님을 모든 중생들에게 개시 함이로다〉 하셨다.
그리하여, 세상사람들의 분별잣대인 상식과 지식을 자재해탈한 묘혜(妙慧)를 지닌 부사의 한 수행자의 논쟁은 온갖 유위적 속박됨을 벗은 자유스런 구도자의 보현행이 될 것이며, 중생들의 업견(業見)을 여는 하화중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다겁생을 홀로이 사유(思惟)하고 홀로이 구도자의 길을 걷다가 석가세존의 평온함을 엿본 〈석가를 품은 53見〉의 진귀 화두집~53見중에 제4見을 펼쳐 보인다.....

제 4見 차 한잔

찻상앞에
나홀로 앉았다.

1700공안을 다관에 담고
팔만대장경의 따뜻한 감로수로
우려내어

중생심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찻사발에 따라

53선지식의 지혜 찻잔으로
차 한잔을 마셔본다.



이 몸안 속 삼천대천세계 곳곳마다
평온한 차의 법열이 스며드니

아~~~

불가사의한 화엄세계가
부럽지 않구나.....

〈석가를 품은 53見〉저자
화엄경 강원/강주
獨覺~眞歸 두손모음

“금오대선사 선풍 진작에 노력할 터”

보은 법주사 주지에 정도 스님 선출



보은 법주사 주지에 종회의원 정도 스님이 선출됐다. 법주사는 3월 7일 산중총회를 열고 선거인단 251명 중 142표로 정도 스님〈사진〉을 주지로 선출했다.

정도 스님은 선출 후 “법주사는 부휴(浮休)스님 법맥인 벽암(碧巖) 각성(覺性) 스님 등이 선풍을 드날린 가람으로 근·현대 선풍 진작의 중흥조인 경허, 만공스님의 덕숭 문중 법맥을 이은 태전 금오 스님께서 주석하시며 선풍을 진작시킨 도량”이라며 “법주사 주지로 나선 이유는 애오라지 금오스님의 선풍을 진작하는 불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라고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특히 법주사 대중 스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수행처가 없는 스님들을 위해 30여개 방사를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교구장 무료 다비의 제도화도 공약으로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금오 대선사 가르침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물량적인 보여주기식 불사보다는 사부대중의 복지와 수행에 초점을 맞추겠다. 법주사를 수행도량으로 일신하는 데 이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76년과 1979년 각각 법주사와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창룡사 주지를 역임했다. 제14·15대·16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노덕현 기자

서북단 백령도서 태고종 영산재 봉행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실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서북단 백령도서 통일을 염원하는 영산재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태고종 신촌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선암)는 4월 18~19일까지 1박 2일간 백령도서 ‘2016년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영산대재’를 연다. 영산재보존회원 등 300여 명 규모가 참석할 이번 대재는 2002년 6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서 희생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은 “영산재보존회에서는 해마다 세계평화 및 남북통일을 발원하는 영산재를 유서깊고 의미있는 장소를 택해 개최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 독도 시연에 이어 우리나라 서북단 백령도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된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서 법화경을 설한 모습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법회다. 특히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인의 문화로 발돋움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국대 이사 교체 본격화

종관위 승원·정덕, 일관·환풍, 자광·성무 스님 복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삼혜, 이하 종관위)는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3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일과 4일 사표를 제출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보광 스님 후임으로 승원 스님과 정덕 스님을, 이사 일면 스님 후임으로 일관 스님과 환풍 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다.

또한 종관위는 감사 함결 스님 후임으로 前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도견 스님을 추천했다.

이에 앞서 열린 3월 7일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3일 사퇴한 호성 스님 후임으로 前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성무 스님을 복수 추천했다.

한편, 복수 추천된 스님들은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개원하는 제205차 중앙종회 동의 이후, 동국대 이사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신성민 기자

“강제수용 한전부지, 봉은사로 반환하라”

한전부지 환수 운동 불교계 본격 돌입

3월 23일 시청광장서 집회 예정
봉은사는 2월 24일부터 시위 시작
전국사찰, 현수막 게재 등 동참결의
교구본사주지협 “진상위도 꾸려야”



3월 10일 서울시장과의 면담 요청이 거절되자 환수위 스님들이 시청 앞에서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군사 정권 시절 법적 효력 없이 강제 수용된 한전 부지는 봉은사가 원 소유자이므로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 전통문화 보전과 진흥의 도량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불교계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한전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3월 10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한전부지의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3월 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열 예정이다. 또 직할교구 360여개 사찰과 교구본사주지회의 등도 환수 결의문을 내고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수 촉구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공동위원장 지현·원명 등)는 3월 10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한전부지 환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허가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총무원 집행부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및 봉은사 스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면담이 거절되자 이들은 “서울시가 한전부지 매각 후 공공개발부담금 1조 7400억원을 받기로 하고 신속히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신청한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는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직할교구 종회에서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에는 360여개 사찰이 소속돼있다. 이들 사찰 주지 스님들과 신도들은 3월 23일 오후 2시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항의집회 참석과 함께 항의 현수막을 사찰에 게시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한전부지 환수는 봉은사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찰의 권리와 종단의 자존과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부당하게 수용당한 토지가 한국전력을 거쳐 최근에 현대자동차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려가겠다”고 말했다.

3월 8일에는 전국 2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협의체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념)도 회의를 열고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수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서 주지 스님들은 “정부가 상공부 청사 이전 명분으로 봉은사 토지 10만여 평을 헐값에 수용한 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더니, 이제는 민간회사에 매각했다”며 “정부 수용 후 15년간 아무런 사용도 없다가 1984년 한전이 사옥을 신축했다. 서울시도 공공개발부담금 1조 7400억원을 받기로 하고 전례없이 신속히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인허가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봉은사 소유토지 강제수용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한편, 현재 봉은사 신도회는 2월 24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서울시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피켓시위는 환수위 집회가 열리는 3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봉은사 신도회 측은 “한전부지는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정부가 강탈한 토지”라며 “원 소유자인 봉은사로 환원하고,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된다면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학원 내부로 확산되는 법인관리법 갈등

선미모, 이사장 법진 스님 금품수수 주장
선학원 “일방적 입금일뿐 돌려주려 했다”

법인등록을 놓고 벌어진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선학원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인등록을 찬성하는 선학원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과 선학원 이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미모 운영위원인 서울 보광사 현중 스님은 3월 8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금품수수 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 보광사 현중 스님은 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2년 2월 초 정법사서 법진 스님을 만난 뒤 보광사 신도회장이 보광사 분원장 임명을 위해 두차례 걸쳐 1억원을 법진 스님의 정법사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현중 스님은 이날 “2012년 2월 초 법진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묻는 신도회장에게 법진 스님이 적절히 해결될 것이라 말하며 여러번에 걸쳐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언급했다. 이에 신도회장이 분원장 임명을 위해 2012년 2월 5000만원, 3월 5000만원 도합 1억원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야기되는 소속사찰 신도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절하지 않다. 재단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받았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당신의 사설사암인 정법사 통장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법진 스님은 창건주와 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보광사에는 규정과 절차도 무시하고 사고사찰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왔다. 이 배후에는 사적 이익 확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 측은 3월 10일 선학원 재단 사무실에서 전국범행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선학원 전국범행단은 이날 “정법사 무설전 건리불사 중 일방적으로 사전 일언반구 언질도 없이 사찰 불사금 통장에 1억원을 입금해 놓고 이를 돌려주려는 것 마저 순수한 불사금이라고 거부하고 회피했다”며 “이사장 법진 스님이 보광사 신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본인의 사설사암 불사금으로 유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고 반박했다.

전국범행단 일동은 “선미모는 자칭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공조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사태의 원인인 법인관리법 폐지를 위해 재단과 함께 행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과 조계종 갈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선학원과 조계종단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1차 화쟁원탁회의’는 선학원 측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로 열렸다.

회의에서 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은 먼저 선학원 측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스님은 “처음부터 각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길게 보고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불교문화단체 등록 사업 공모 발표

문화부, 3월 25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 육성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련 단체 △창단한지 2년 이상 경과된 문화관련 단체 △종단 법인관리 및 불교문화진흥법에 따른 종단등록 법인단체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및 전시출품(창작활동)의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동참하려면 신청공문, 불교문화단체 등록신청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업계획서, 임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오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총무원 문화부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접수된 단체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등록신청서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될 수 있다. (02)2011-1779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지광국사탑, 법천사지로 환지본처돼야"

불교 문화재 단체들 "塔 해체·보수 후 이전" 주장

현재 경복궁 내에 있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오른쪽 사진〉의 해체·보수가 결정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3월 22일 해체 보고회를 열고 3년 간의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4월 2일까지 전체 부재를 해체하게 되며, 해체된 부재는 4월 6일 경복궁을 떠나 연구소로 이송해 2019년까지 보존 작업을 진행한다.

지광국사탑은 빼어난 조형미로 인해 수난을 겪은 문화재 중 하나다. 지광국사탑은 원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국보 제59호)와 함께 법천사지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에 의해 옮겨져 1912년 일본으로 반출됐다. 이후 1990년 경복궁 경내로 오기까지 최소 9차례 이전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또한, 6.25 한국전쟁 시 폭탄 피해로 옥개석을 비롯한 상부 부재가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는 큰 손상을 입었고, 1957년 시멘트 등 다양한 재료로 복원됐다.

문제는 '해체·보수 후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이다. 현재 지광국사탑의 소유·관리권은 국가에게 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처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전시킬 수도 있고,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한 쌍으로 원주 법천사지로 옮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해체·보수 후 거취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문화재청 등 정부 기구는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교계와 강원도·원주시는 지광국사탑이 이번 해체·보수를 계기로 본래 자리로 옮기길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실제 강원도와 원주시는 10여 년 전부터 지광국사탑의 귀향을 요구해 왔고 이를 위해 법천사지 사격 관리를 모범적으로 해오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문화재 환수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환지본처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상임대표 영담)은 3월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전면 해체·보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전면 해체·보수를 계기로 지광국사탑이 원래 봉안돼 있던 자리인 법천사지로 환지본처하길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 법천사지에는 지광국사탑과 일체물을 이루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가 보존돼 있는 상황인 만큼 석탑의 환지본처는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2년 일제에 의해 반출 뒤
9차례 이전 후 경복궁에 설치
6.25 전쟁땐 폭탄 피해도 입어

기단부·상륜부 등 훼손 심각해
국립문화재硏 해체·보수 결정
불교계 "2019년 보수 완료되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 옮겨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관계자도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면서 "굳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관리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계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지광국사탑의 해체로 인한 손상을 우려해 법천사지로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법천사지는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매우 잘 관리하고 있는 사적이다. 해체·보수 후 본래 자리로 환수하는 것이 취지에도 맞고 문화적 파급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근 문화재국제연대 대표도 "이전에는 보관의 문제로 박물관 등에서 관리했지만, 이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 같은 능력을 배양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주 법천사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역점·관리하는 곳인 만큼 이제는 지광국사탑을 본래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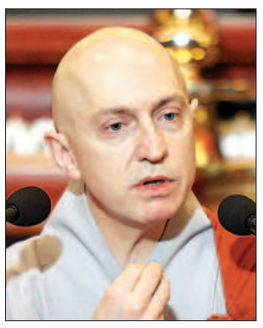
이어 "불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당 교구인 월정사와 지역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수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의심서 비롯된 헬조선, 삶의 열쇠로 써라"

현각 스님, BTN 초청법회서 '헬조선과 禪' 주제 법문

"헬조선, 새로운 말과 새로운 유행에 대한 표현이지만 본질은 의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대의심(大疑心)은 한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우리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계산 송광사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대중 앞에 선 독일 불이선원장 현각 스님〈사진〉은 각박한 삶을 빗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에게 부드러운 응원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죽비의 메시지를 택했다.



현각 스님은 3월 5일 조계사청년회와 BTN불교TV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헬조선과 선(禪)'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초청법회에서 "절대자나 어느 종교도 헬조선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모든 과학자들이 자연법칙에 대한 의심을 바탕으로 길을 걸어왔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참나'를 돌아보는 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삶이 곧 화두다. 스승이 주는 화두에만 매달리면 내 옆의 화두는 보이지 않는다"며 "본성을 알아가는 수행을 해야 한다. 헬조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인사난 해소? 구조적 해결책 마련하라"

불시넷 등 '종회의원 겸직허용 개정안' 강력 비판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종헌종법특위)'가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종헌을 개정, 종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불교계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한 이들에게 종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은 1994년 종단개혁의 핵심적 가치"라면서 "지난해 서의현 前 총무원장 사면 사태를 여법하게 해소치 못한 상황에 또다시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을 허용토록 개정하는 시도는 종단개혁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이 허용될 시 종권집중 현상의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 일갈했다.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신대승준비위)도 3월 10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이번 겸직금지조항 개정 시도가 1994년 종단개혁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란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종헌종법특위는 2월 18일 열린 제14차 회의서 이유로, 3월 열릴 임시종회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조항 개정안을 발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의 '전통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된다

전통 차를 만드는 기법인 '전통 제다(傳統 製茶)'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 기법인 '전통제다(傳統 製茶)'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전통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를 이용하여 차를 만드는 기법을 의미한다.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 공정을 거쳐 마실 수 있게 가공하여 차를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로 덖음차, 떡차, 발효차가 그 범주에 속한다.

문화재청은 '전통 제다'의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제다법에 대한 기록화 사업과 각종 진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행복바라미 축전 4월 14~15일 열린다

전국 160곳서 모금 진행… 캠페인 목표 3억원
11개 도시서 문화제 개최, SNS 홍보 강화 추진

올해 4년차를 맞은 행복바라미 문화축전이 오는 4월 14~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3월 4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 행복바라미 문화축전' 일정 및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날마다좋은날에 따르면 올해 행복바라미 행사는 4월 14일 전야제와 15일 개막식으로 1박2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 아래 마련된 행복바라미는 △전통혼례 시연 △염색체험 △부채춤 공연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에 전시돼 큰 호응을 얻었던 보물 제1268호 내소사 괘불의 영인본은 올해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완성한 전국 24개교구 신도회와 연계해 광주·수원·강릉·공주·전주 등 11개 주요도시에서 지역문화제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각 지역특색을 살려 지역문화제마다 서로 다른 주제로 행사를 꾸린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제는 지역 교구 및 사찰신도회가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날마다좋은날이 행사 소요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풀뿌리 복지를 위해 첫해부터 이어온 '나눔문화캠페인'은 올해 4월 16~30일 전국 160여개 모금소에서 총 3억 원을 목표로 모금에 들어간다. 날마다좋은날은 원활한 모금을 위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권역별 교육과 SNS 활용을 통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모금액은 12월 중 배분되며 지난해에는 1억7000여만 원을 전국 각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행복바라미 부대행사로 4월 1일부터 '행복바라미와 함께하는 모바일 사진전'을 개최, 행복의 의미를 담은 사진을 전시해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작품 접수는 3월 25일까지이며, 수상작은 행복바라미 갤러리를 통해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까지 공개 전시된다.

이기흥 이사장은 "행복바라미 나눔문화캠페인은 첫 해 모금액보다 약 200% 성장해 수많은 이웃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올해에는 교구신도회와 주요사찰 신도회원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SNS통신원을 활용해 범국민적인 행사가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며 "지역문화제를 통해 불교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지역마다 행사 구성을 달리 해 지역특색을 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항일운동 폭 넓혀 불교계 역할 조명"

조계종 불교사회硏, '불교 항일운동' 토론회

항일운동의 폭을 다양하게 파악함으로서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역동적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은 3월 1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이 개최한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팀장은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 정리와 전망' 제하의 논문을 통해 항일운동 관련 주제별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라면서 "이는 종교인 개인의 항일활동은 자유롭더라도 교단은 권력과 일정한 타협에 의해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2019년까지 시기별 불교계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승려 안거 해제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은 3월 16일 밤 10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승려 안거 해제식'을 봉행한다.



어르신 경로행사

정념 서울 흥천사 회주 스님은 3월 19일 오전 11시 지역 어르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중공양과 의료 · 미용봉사를 실시한다.



춘계 성지순례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3월 20일 청도 운문사와 사리암에서 춘계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약사천일 800일 기도 입재

경우 고창 선운사 주지 스님은 3월 13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약사천일 8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금강불교대학 입학식

경혜 서울 구강사 주지 스님은 3월 27일 오후 2시 경내에서 '구강사 금강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한다.



탑골문화예술학교 입학식

희유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스님은 3월 9일 관내에서 '2016 탑골문화예술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인사

법무법인 인본(대표 김종규)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19 정우빌딩 5층으로 이전했다. (02)596-9400

익명 불자, 조계종福에 1억여원

상속연금보험 가입금액 전액

익명의 여성 불자가 불교계 복지발전을 위해 상속연금 1억3000만원을 자비 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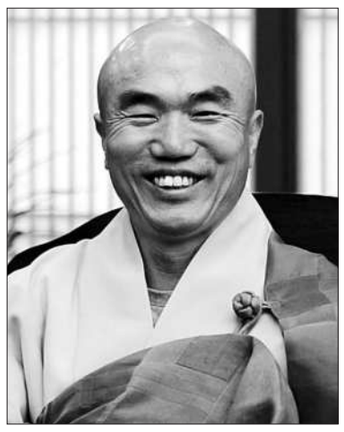
'선주명'이란 법명의 여성 불자는 한 은행의 상속연금형 청약 상품 가입하고, 사후(死後)에 주계약 가입금액 1억3000만원 전액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상속연금보험을 통한 사후(死後) 기부는 재단 창립 이래 최초다.

이 후원자는 "남은 생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정밀조사로 문화재 인식 제고"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신임소장 일감 스님



사찰 목판 · 폐사지 조사 등
불교문화재 연구 사업 진행
성보의 문화적 접근은 과제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올해 전국 사찰의 목판의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요 폐사지 시 · 발굴 조사도 이뤄진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신임소장 일감 스님〈사진〉은 3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주요 사업은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 △폐사지 기초조사 △중요폐사지 시 · 발굴조사 △불교문화재 정책 연구 등이다. 기본적으로 연속사업인 경우가 많으나 불교문화재를 발굴 ·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이다. 2014년 시작된 목판 일제조사는 2019년 마무리된다. 올해에는 부산과 경상도 지역의 사찰 18곳, 모두 4천180점의 목판이 조사 대상이다.

2014년 조사 완료한 인천 · 경기, 충청도 지역 중요 목판에 대한 인출 작업도 이뤄지며,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 하동 쌍계사 화엄전 소장 목판 및 수장처의 보존환경도 조사된다.

또한,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폐사지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경주 미탄사지 · 삼척 흥천리 사지 · 완주 경복사지 등 중요 폐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도 진행한다.

이 같은 폐사지 조사 사업은 폐사지의 보존 · 관리와 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폐사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문화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대적 가치로의 재창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문화재 연구 · 조사를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계량화하는 것은 여전히 연구소가 가져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일감 스님은 "불교 문화재를 국민들에게 불교적 시각뿐만 아니라 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발전 방안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남원 실상사 학술조사 · 군위 인각사 종합정비구역 발굴 · 강릉 오죽헌 구조정밀 안전진단 후속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올해 중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역화 불사기금 전달 잇달아

마곡사 1억 원 등 전국서 도움의 손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3월 8일 (재)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자승, 이하 동행)에 성역화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진행됐다.

동행 대표이사 자승 스님은 원경 스님에게 "여러모로 사찰 사정이 어려울 텐데 성역화 사업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경 스님은 "성역화 불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밖에도 공주 신원사 주지 중하 스님(1000만원),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회 각산 스님(1000만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500만원) 등이 성역화 불사에 동참했다.



박아름 기자

미얀마 오지마을에 자비 씨앗을

로터스월드, 3월 6일 또깨마을 사찰학교 준공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3월 6일 미얀마 양곤 또깨(Taw Cay) 마을에서 사찰학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또깨마을 사찰학교는 지상 1층 3개 교실(각 100㎡), 화장실 4칸 규모다. 이와 함께 책걸상 및 책장, 교과서, 1000여 권 동화책 등을 지원했다. 건립 후원에는 의령 연화사 주지 진성 스님이 동참했다.

로터스월드 측은 "또깨마을은 양곤지역에서 육로로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하는 오지마을이다. 현재 마을주민 1000여 명과 초 · 중 · 고등생 208명은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교 건립은 또깨마을 사찰이 운영 중인 고아원과 함께 아동들의 학습 및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이사장 성관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또깨마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부디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건립 후원자 진성 스님은 "또깨마을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또깨마을 사찰주지 워니따(Won Ni Ta)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중도육영재단, 장학금 5천만원

불교인재원 추천 청소년 70여 명에게 전달



(재)중도육영재단(이사장 엄상호)은 지난 2월 20일 불교인재원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70여 명에게 장학금 50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중도육영재단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선발해 매년 세 차례에 걸쳐 250여 명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충남섬유, 연꽃생협에 면티 3천장

취약계층 지원시설에 전달



섬유제품 제조 및 수출기업 (주)충남섬유(대표이사 진영식)가 최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면티 3000여 장을 연꽃생협(이사장 전준호)에 기부했다.

연꽃생협은 "충남섬유가 지난달 24일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여성 반팔면티 3023점을 기부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꽃생협은 기부 받은 의류를 서울 · 경인지역 미혼모보호시설과 모자원에 전달하고 있으며, 여름까지 여성보호센터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美 대학원생들 불국사서 '힐링'

필라델피아 경영대학원생 템플스테이



미국 필라델피아 경영대학원 학생 25명이 3월 9~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불교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1박2일간 사찰문화재 탐방 · 연등만들기 · 예불 · 108배 및 좌선 · 스님과의 대화 등을 체험했다. 윤호섭 기자

봉 2016년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백령도 영산대재 행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된 영산재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와 한민족 고유의 정서가 어우려져 수백 년째 전승되어오는 국내 최대의 공연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명실공이 세계인의 문화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봉원사 영산재보존회는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대한민국 서북단 백령도에서 시연할 계획입니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오늘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법회입니다. 또한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입니다. 아울러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겪은 2002년 6월 20일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직한 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합니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영산대재 행사는 한국 불교 최대 공연예술인 영산재가 담고 있는 온 국민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의 통합과 국운융성을 기원하며 중생구제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8일 ~ 4월 19일 (1박 2일)
■ 장 소 : 대한민국 서북단 백령도
■ 주 최 : (사)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 주 관 :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 후 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옥천범음대학, 한국불교신문사, 봉찬회. unesco한국위원회

(사)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 02)392-3007,3008, 전송 393-9450 담당:이석천
홈페이지 : www.bongwonsa.or.kr

사라진 절터서 盛衰의 덧없음을 보다

〈성쇠〉

한국관광공사 추천 3월 가볼만한 곳 '사라진 옛 절터– 폐사지를 찾아서'

전국 지역에 산재된 폐사지를 찾아가보면 무상함을 만날 수 있다. 수 백년 전 높은 위상으로 지역의 신앙을 책임졌던 이들 사찰은 현재 절터임을 입증하는 주춧돌과 기단만이 앙상하게 남았다.

3월, 아직 채 물러서지 않은 동장군의 찬 바람이 남아있는 시기. 무상의 이치를 느끼기에 좋은 계절이다. 한국관광공사는 3월 가볼만 곳으로 '지금은 사라진 옛 절 터-폐사지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전국 6곳의 폐사지를 선정했다. 이들 6곳의 폐사지를 소개한다.

정리=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3월 가볼만 곳으로 '지금은 사라진 옛 절 터–폐사지를 찾아서' 를 주제로 폐사지 6곳을 선정했다. 사진 맨위가 충주 미륵대원지. 아래 왼쪽부터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강원도 원주 거돈사지, 충남도 보령 성주사지, 경남도 합천군 영암사지, 전북도 남원 만복사지.

조선 왕실 사찰로 떠난 시간 여행

경기 양주 회암사지

폐사지를 찾아가는 여행은 시간을 거슬러 전혀 다른 세상과 그곳에 산 사람, 그들의 꿈을 만나는 독특한 경험이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양주에는 고려 중기에 지어져 조선 중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회암사지가 있다. 관련 기록, 일반적인 사찰 건축과 다른 궁궐 건축양식, 왕실과 연관성을 말해주는 출토 유물로 보아 조선 최대의 왕실 사찰이었으리라 짐작한다. 유교 국가인 만큼 반발이 거셌으나, 회암사는 오랫동안 왕실의 후원 아래 위세를 떨쳤다. 특히 태조 이성계는 스승으로 모시던 무학대사를 회암사 주지로 보내고 자주 찾았으며, 왕위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 머무르며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대에서 발굴 중인 회암사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색의 〈목은집〉에 실린 '천보산회암사수조기' 를 바탕으로 복원한 모형은 회암사지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양주관아지와 조명박물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장흥아트파크, 청암민속박물관 등을 연계하면 좋다.

문의: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64

왕의 스승이 머물던 남한강 절터

강원 원주 거돈사지

원주는 치악산국립공원과 강원감영, 한지 등으로 이름난 고장이지만, 폐사지 답사를 빼놓을 수 없다. 남한강 인근에는 흥법사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신라 시대 창건해 임진왜란 때 사라진 폐사지가 여럿이다. 세 곳은 고려 시대 왕의 스승인 국사가 머물며 이름을 떨친 사찰이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탑과 탑비 등이 남아 옛 사찰의 규모와 고려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폐사지에 관심이 많다면 탑과 탑비의 제작 연대순으로 비교하며 돌아보길 권한다. 폐사지의 고즈넉한 정취는 거돈사지가 으뜸이다. 흥법사지는 아직 휑하고, 법천사지는 전체가 발굴 중이다. 거돈사지는 발굴과 복원이 끝나 맑고 정갈하며 온화하다. 수령 1000년이 넘는다는 '돌을 먹고 사는' 느티나무도 자랑이다. 그늘 아래 잠시 쉬며 숨을 고르자.

폐사지를 돌아본 뒤에는 흥원창에서 갈무리한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조창 자리다. 강과 산을 물들이는 일몰이 아름답다.

문의: 원주시 관광안내소 (033)733-1330

허물어진 절터에서 온기를 느끼다

충남 보령 성주사지

생채기 난 돌탑 위에도 훈풍이 스친다. 보령 성주사지는 크고 유서 깊은 절터다. 성주산 자락에 둥지 틀 듯 자리한 폐사지에는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흔적이 묻어난다. 국보 1점, 보물 3점을 비롯한 유물이 허물어진 절터를 지키고 있다. 거친 돌덩이로 에워싼 폐사지의 외형만 봐도 번창했을 당시 규모가 짐작된다.

성주사는 통일신라 선종의 대가인 무염대사(낭혜화상)가 크게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다. 선종의 큰절인 '구산선문' 중 하나가 성주산문이며, 그 중심지가 성주사다. 낭혜화상탑비(국보 8호)는 무염대사를 기리기 위해 최치원이 비문을 지었으며, 보물로 지정된 오층석탑과 삼층석탑 등이 절터에 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보령석탄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면 좋다.

문의: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4542

마의태자의 애처로운 전설 품다

충북 충주 미륵대원지

폐사지는 초분(草墳)과 비슷하다. 살이 사라진 자리에 뼈만 남 듯,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는 주춧돌과 석탑만 남는다. 폐허에 덩그러니 남은 돌덩이가 눈부시게 빛난다. 삼국이 치열하게 싸운 중원 땅, 지금의 충주에는 걸출한 절터 두 곳이 있다. 충주 미륵대원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재 아래 자리 잡았다. 북쪽 월악산을 바라보는 석불에는 마의태자와 얽힌 애잔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청룡사지에는 보각국사 혼수의 부도가 있는데, 돌에 새긴 섬세한 조각이 경이롭다.

절터를 구경한 뒤 하늘재에 올라보자. 옛길은 부드럽게 산의 품을 파고든다. 구불구불 걷다가 모퉁이를 휘휘 돌면 고개 정상이 나타난다. 하늘이 열리고 백두대간 산봉우리가 물결치는 장면이 감동적이다.

우리한글박물관은 규모는 작지만 소장품이 알찬 사설 박물관이다. 30년 이상 한글 관련 자료를 수집한 김상석 관장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희귀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23

모산재 기암절벽 아래 신비로운 절터

경남 합천군 영암사지

합천 황매산 자락의 모산재 기암절벽 아래 영암사지가 있다. 여느 절터처럼 석탑과 석등 같은 문화유산이 올곧이 남았지만, 절집의 내력은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다. 절터가 기암절벽과 묘하게 어울리고, 아름다운 쌍사자 석등이 이곳을 대표한다.

영암사지에서 황매산이 지척이다. 특히 황매산 정상 부근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제법 아름답다. 합천 읍내로 가는 길에는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자리 잡았다. 근대의 역사를 담은 세트장으로,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며 산책하기 좋다.

합천은 가야국 연맹체인 다라국의 고장이다. 합천박물관에는 다라국 지배층의 고분군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고, 박물관 뒤쪽에 사적으로 지정된 옥전 고분군이 있다. 가야산이 품은 해인사와 대장경테마파크, 두 곳을 잇는 해인사 소리길도 합천의 명소다.

문의: 합천군청 관광진흥과 (055)930-4666

'춘향전' 버금가는 러브 스토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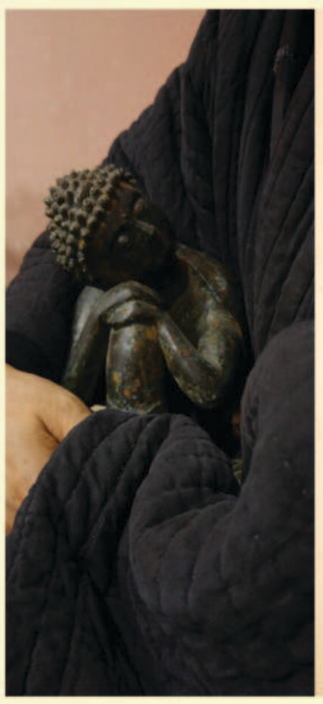
전북 남원 만복사지

사랑의 도시 남원은 춘향과 판소리로 유명하다. 〈춘향전〉에 버금가는 러브 스토리가 있다. 바로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저포기' 다. 노총각 양생이 만복사에서 만난 여인의 영혼과 사랑을 나누고 부부의 연을 맺은 이야기다.

고려 문종 때 창건한 만복사는 승려 수백 명이 머물렀을 정도로 번성했으나,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이 함락되면서 절도 소실되었다. 전각은 모두 불타고 지금은 오층석탑(보물 30호), 석조대좌(보물 31호), 당간지주(보물 32호), 석조여래입상(보물 43호), 석인상, 주춧돌 등만 남았다.

만복사지에서 조용한 발걸음으로 시작한 여행은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남원추어탕거리를 거치며 차츰 발랄하고 흥겹고 맛깔나게 무르익는다. 남원 특산품인 목기와 옻칠공예품을 구경하고, 소원 바람개비에 소망을 남기는 체험으로 여행을 마무리하자.

문의: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063)620-6161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드디어 출판되다..

제 1 見 석가를 품다
제 2 見 평온 초대장
제 3 見 법(法)을 버리다
제 4 見 차 한 잔
제 5 見 해인 삼매
제 6 見 창조와 표절
제 7 見 야부선사 웃다
제 8 見 요지경
제 9 見 말 많은 석가?
제 10 見 히말라야 영화
제 11 見 동시구족
제 12 見 법맥?
제 13 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 14 見 윈드서핑
제 15 見 발효식품
제 16 見 한 맛
제 17 見 뒤바뀐 안목
제 18 見 평온한 남자
제 19 見 참새집
제 20 見 병(病)든 부처
제 21 見 생화와 조화
제 22 見 직거래 ?
제 23 見 묘혜(妙慧)
제 24 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 25 見 천도(遷度)란?
제 26 見 고구마 부처?
제 27 見 마음속 부처
제 28 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 29 見 범부와 선지식
제 30 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 31 見 다음생
제 32 見 종(鐘)
제 33 見 스승을 찾아서
제 34 見 대자유인의 길
제 35 見 집착을 놓다
제 36 見 종교와 현실
제 37 見 자식인연
제 38 見 형제 인연
제 39 見 도반인연
제 40 見 부부인연
제 41 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 42 見 왕(대통령)
제 43 見 독각(獨覺)은?
제 44 見 〈나〉
제 45 見 대도(大道)란?
제 46 見 부처님 오신날
제 47 見 신통력(神通力)
제 48 見 보시(기부)
제 49 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 50 見 업(욕심의 흐름)
제 51 見 평온을 만나다
제 52 見 화엄경_7행詩
제 53 見 평온 축제



편저자
독각~진귀 (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도서출판 왕 산

*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올 포교 기상도 '화창'

'어르신 마음거울' 개발 · 법회 매뉴얼 발간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우수사례' 선정도

최근 조계종 포교원의 어르신을 위한 앱 개발과 어린이 · 청소년 법회 매뉴얼 발간에 이어 인성교육프로그램인 '청소년 마음등불'이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올해 포교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법상)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작한 스마트폰 앱 '어르신 마음거울 108'과 〈어린이 · 청소년 법회 매뉴얼 및 사례집〉에 대해 설명했다.

'어르신 마음거울 108'은 지난 2012년 포교원이 개발한 '어린이 마음거울 108'과 '청소년 마음거울 108'에 이은 세 번째 스마트폰 앱이다. 앱은 어르신들의 행복감과 자존감 증대를 위한 108개 자아성찰 문구와 부드러운 색채의 일러스트, 성우 4명의 잔잔한 음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주제는 자아성찰 · 건강한 생활 · 인생의 완성 · 세대간 소통 등이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황혼을 품위 있고 지혜롭게 가꾸겠습니다'와 같은 문구와 내레이션이 나온다. 아울러 재생속도 및 성우 음성을 사용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108배를 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해 명상이나 취침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어르신 마음거울 108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마련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자녀가 왔다 돌아가면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기획했다"며 "편안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 책자 등으로 만들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새로 발간한 〈어린이 · 청소년 법회 매뉴얼 및 사례집〉도 눈에 띈다. 이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을 유형별로 분류해 만든 것이다. 법회 유형에 따라 △체험활동형 △신행과 체험활동 융합형 △명상 및 심성프로그램형 △자기주도학습형 △지역청소년 문화 및 문화관 활용형 등으로 구분했다. 법회 운영에 필요한 팁도 자세하게 담았다. 포교원은 이 책자가 일선 포교현장에서 어린이 · 청소년법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한마음과학원의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도 함께 보급해 가족이 사찰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 공포 이후 포교원이 내부 '청소년심성자문위원회'를 '인성교육 계발 · 인증위원회'로 확대 개편, 종책연찬회와 인증제를 운영하며 청소년 인성교육에 앞장선 결과다.



'어르신 마음거울 108' 캡처 화면.

3월 4일 서울대 인문신양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실무자 워크숍에서는 포교원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를 비롯한 4개 단체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각각 사례를 발표했다.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에는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불교계는 포교원과 파라미타 둘 뿐이다.

포교원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함양하는 '꿈사리'와 놀이 · 춤 · 자연과의 대화 등 동적인 활동을 하는 '활동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마가 스님이 진행하는 'Egg깨뜨림-잠자는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와 직지사의 '부모님 감사합니다-제 마음도 알아주세요'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수 전법지원팀장은 "포교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아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다른 종교계 단체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5개 교구본사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 주간 부처님 출가 · 열반 되새겨요"

3월 16~23일, 출가열반주간
전국사찰서 각종 행사 열려

음력 2월 8일, 출가재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카필라성 태자로 태어난 부처님이 왕좌를 버린 채 깨달음을 얻고자 길을 나선 날이다. 불교의 4대 명절인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은 1주일 간격을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불자들은 이 기간에 부처님의 원력을 되새기며 특별정진을 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출가 · 열반주간인 3월 16~23일에 맞춰 전국 주요사찰들이 법회 및 정진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3월 16~23일 매일 오전 10시 법왕루에서 〈불유교경〉 독송 및 기도 정진을 실시한다. 입재 및 회향 법회(16일, 23일 오전 11시)에는 주지 원명 스님의 특별 법문이 진행된다. (02)3218-4800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는 16~23일 설법전에서 〈금강경〉 독송 및 108배 기도를 실시한다. 매일 새벽 · 오전 · 오후 · 저녁 일정에 따라 기도 정진하며, 108배 및 금강경 독송은 오후 1시 30분~2시 진행된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에는 '팔상(八相,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위해 일생 동안 나타내 보인 8가지 변상)' 법문이 예정돼 있다. (055)382-7182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16~23일 지역 정토회 정토법당에서 '8일 용맹정진'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주 · 야간으로 나뉘어 각각 300배 정진, 108배 정진을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인생의 꽃을 피우라'를 주제로 영상법문도 마련된다. (02)587-8990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6~23일 '사시예불 참가대중 모두 행복한 108배'를 진행한다. 동참비는 5만원이며, 참가자 및 가족 축원 기도도 함께 진행된다. (02)2650-2200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6일 출가재일을 맞아 유발상좌 수계식을 봉행한다. 이 행사는 영 · 유아기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들에게 불연을 맺어주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051)866-7771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6일 오전 11시 대광명전에서 출가입재 및 열반법회 봉행 후 23일까지 특별정진기도를 실시한다. (051)508-0345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6~23일 〈금강경〉 독송 및 사경기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매일 주지스님과 사중스님들의 '부처님 일대기-팔상성도 특별법문'이 이어진다. (051)253-8680

창원 성주사(주지 원종)는 16~23일 '니르바나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기도정진 후 40분에 걸쳐 법문이 이어진다. '기도'를 주제로 8일간 각각 다른 법문이 마련돼 있다. (055)262-0108

윤호섭 · 하성미 기자

"하루하루 福 짓고 자기 점검하라"

길상사, 법정 스님 6주기 추모법회

한평생 청빈한 삶을 살며 〈무소유〉로 대중에게 '내려놓음'을 강조했던 법정 스님. 스님의 가르침과 문학정신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주지 덕일)는 3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 6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길상사는 2005년 법정 스님의 동안거 해제법문 동영상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영상 속 법정 스님은 "하루하루 복 짓는 일을 하며 사는지, 복을 까먹고 사는지 스스로 자기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잘 살면 그 기운이 이웃에게 뻗치고, 한 사람이 잘못 살면 나쁜 기운을 퍼뜨리는 것이 세상의 구조다. 덜 쓰고 덜 버리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다.

최근 길상사 주지로 임명된 덕일 스님은 "어른스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 6주기 추모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영상 속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은 추모사에서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법정 스님이 그리워진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김한영(길상화) 보살의 발원을 잊지 말고, 이 큰 재산을 왜 기부했는지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길상사는 추모법회에 이어 6일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시낭송 음악회'를 개최했다. 윤호섭 기자

21회 일반포교사 고시 합격자 672명

지난 2월 20일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제21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에 총 672명이 합격했다.

조계종 포교원에 따르면 총 접수자는 758명(불교대학 접수자 732명, 추천응시자 26명)이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750명 중 고시 당일 결시자 46명을 제외한 704명이 응시했다. 지역별 합격자는 서울경기인천 160명, 대구경북 147명, 부산울산경남 145명, 광주전남 82명, 전북 22명, 대전충청 53명, 강원 30명, 제주 33명이다.

포교원은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4월까지 제2차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7월까지 다양한 지역 및 봉사활동 평가를 통해 9월 최종합격자를 선정, 품수식을 봉행한다.

윤호섭 기자

승가원 배드민턴반, 전문팀으로 '발돋움'

성북장애인복지관, 3월 7일
'배드민턴 선수반' 창단식

성북장애인복지관이 배드민턴 선수반을 꾸리고, 장애인 선수들이 전문 스포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이 3월 7일 출범한 '승가원 배드민턴 선수반'은 7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선수반은 향후 전문 체육보조 강사와 함께 체계적인 훈련에 임하는 한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출전 준비에 나선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우수선수 3명에게 재능장학금, 시 · 도 · 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입상 시 포상 등 지급할 예정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측은 "관내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배드민턴반을 운영했지만 장애인들의 장기적인 진로가 불확실해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창단과 함께 배드민턴 선수반을 관내 특화사업으로 선정, 특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3월 7일 관내 4층 프로그램3실에서는 승가원 배드민턴 선수단 창단식이 열렸다.

앞서 3월 7일 관내 4층 프로그램3실에서는 승가원 배드민턴 선수단 창단식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관장 선재 스님, 선수단 7명, 코치 1명, 보호자 7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선재 스님은 "체계적 훈련과 대회 참여를 통해 전문 스포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수한 장애인 선수들이 많이 배출돼 발달장애인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북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관내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배드민턴 엘리트반을 구성했다. 이후 전문체육대회에 출전해 입상했으며, 2015년 LA스페셜올림픽에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3 · 은2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불기 2560(2016)년

선암사 부설 태고경남전문강원 4기생, 경전 연구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전문강원을 운영중이며
4기생 및 경전 연구반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4기생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초발심,사미율의,치문	서장,도서,선요,절요

경전 연구반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 경전연구반 : 학장스님과 면접 후 결정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기신론	원각경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종무원 ☎ 전화 055)298-3634 / 팩스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양덕동) 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태고총림 선암사 부설 경남전문강원 학 장 법 성
경남전문강원 강원장 호 명 합장

정진
부처님 출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불암산 불암사

회 주 두산 일면
주 지 선 도
총 무 법 륜
신도회장 허 일심화
지구촌불일회장 박 춘 득
불일야구단회장 이 천 기

불암사 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 031)852-2595
관 장 법 일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031)527-8345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사업
국내외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
자살예방 교육 사업

희망등록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2월 25~28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홀서 성황리에 폐막한 '2016세계명상대전'. 지난호 아잔브람 법문에 이어 이번호에는 혜국 스님 법문과 아잔간하(태국)의 질의응답, 심도선사(대만) 법문을 순서대로 실었다. 〈편집자 주〉

2016세계명상대전 법문 지상중계

혜국 스님 · 심도선사 · 아잔간하

언어는 달라도 佛法은 하나다

제가 깨달은 연기법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거나 오시기 전에나 생하거나 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 자체입니다. 도(道)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리요 말을 듣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대진리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많은 스승들이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과연 이것을 중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길은 자칫 내 지식만 되지 지식 가지고는 결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화선 화두 참선법입니다. 그 화두 참선법이란 앞서 얘기한 스승들이 깨달은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언어, 연기법을 바로 말길이 끊어진 마음의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과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참나는 누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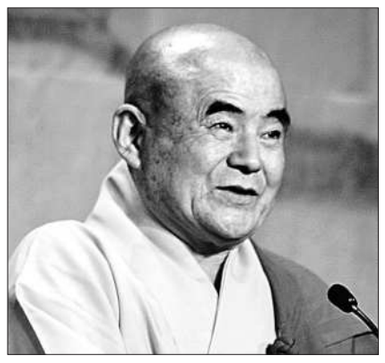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참으로 스승을 믿는 사람은 왜 저 거룩한 스승이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전후좌우가 콱 막힐 수밖에 없겠죠. 스승을 믿지 않는 평범한 입장에서 들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넘겨버리면 그냥 평범한 언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간화선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부처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법(法)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56년 전에 출가를 했는데 그 이후만만 하더라도 동산 · 효봉 · 금오 · 성철 스님 등등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스승들이 한사람 같이 화두 참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해 나갈 때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이겨내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내 성질 길들이기입니다. 56년간 살아오면서 수행한 방법을 볼 때 간화선은 과거 생각에도 끌려가지 않고, 미래 생각에도 끌려가지 않은 채 전후좌우가 콱 막힌 그저 모를 뿐인 상태일 때가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혜국 스님

그러니 제자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인생을 다 바쳐 중생을 위해 걸어가시는 저 스승이 왜 그런 되지 않는 말을 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째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을까'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생각으로 내가 있고, 잣나무라고 한 스승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해가다가 오직 모를 뿐인 게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의심하는 나와 보는 대상,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닌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즉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지면서 나는 없어지고 연기법만이 광명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 "우리 본질 공성 연기법은 본래 청정해 허망한 생각만 놓아버리면 그대로 부처다"

간화선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내가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공성이 내 본질입니다. 그 공성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온갖 잡념, 번뇌망상, 원망하는 마음만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번뇌망상이 나인 줄 아는 착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를 뿐은 청정이 되면 집착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의 스승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공을 보여줄 수도 없기에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로 하여금 콱 막혀서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로지 일념으로 걸어가는 방법을 화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간화선에서는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 허망한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 본질 공성 연기법은 본래 청정해서 다만 허망한 생각만 놓아버리라, 그대로 부처이니라.' 그래서 부처님 연기법과 간화선 스승들이 보여주신 화두법은 둘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모든 중생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민했습니다. 자라나서 부처님 법을 알고 죄란 우리들의 습관(업)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허공에 똥물을 끼얹어도 묻지 않습니다. 텅 빈 허공에는 어떤 더러움도 물들지 않듯이 우리 마음만 비워버리면 마음의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허망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에 오직 모를 뿐입니다. 참모름이란 것은 허망한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진리라는 진리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자리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때 한 생각 한 생각 모든 것은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찾을 게 따로 없다든지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건 자기 생각에 크게 속는 것입니다.

아잔간하 질의응답



아잔간하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본성은 선행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전생으로부터의 좋은 것 나쁜 것을 모두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이 우리가 이번 생애서 계속 좋은 일을 해서 과거생으로부터 가져온 나쁜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바로 지혜와 알아차림을 통해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할 때 시간이 지나면 편안함보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고 싶은 욕망도 갖지 말고 답답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욕망도 버리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이런 욕망에서 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혼잡한 교통에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

무언가 바라고 명상하지 말라
모든 고통은 욕망서 비롯된다
내 행동 보고 지금에 집중하라

트레스는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더 부자가 되길 원하고, 못생겼으면 예뻐지고 싶어 하고, 아프면 빨리 낫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욕망, 바람들은 결국 우리의 가슴에 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욕망을 볼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알아차림을 매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욕망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알아차림 갖추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중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져 아귀, 축생, 아수라로 태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자살하고자 한다면 이미 자살하기 이전부터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마음을 바라보고 고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언젠가는 웃는 마음이 됩니다. 늘 자비심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회라고 보십시오. 알아차림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를 갖추면 마음이 지금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늘 과거만 보는 사람은 썩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분노나 질시, 질투는 오래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곧 선(善)입니다.

모든 현상은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현상은 인과의 순환입니다. 인과와 윤회, 선악, 업이 모두 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떠나 공성(空性)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탐진치만의(貪瞋痴慢嫉) 5가지를 오독(五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독은 생명간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독을 잘 다스려 선업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탐욕이 생겼을 때는 보시로, 성내는 마음은 자비로, 어리석은 마음이 들 때는 불법을 듣고 경전을 읽으며, 오만함은 겸손함으로, 의심은 정념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오독은 선업의 인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는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오독을 바로 다스렸을 때 그것은 우리들 복덕의 근원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가지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몸으로는 불살생 · 불투도 · 불사음을 행해야 하고,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또 탐진치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럼 불자로서 관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근원도 고갈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원력입니다. 수행에 있어 원력이 없으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듯이 원력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원력이 없으면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 받들어 행하며
끊임없는 원력 다져야
극락세계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모든 일체제불께서는 원력으로 불국정토를 이루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는 48대원을 세우고 극락정토를 이루셨습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은 12대원을 세우고 유리광정토를 이루셨죠. 석가여래께서도 500대원을 세워 사바정토를 이루셨습니다.



심도선사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까지는 100만억 개의 국토를 지나야 합니다. 그 극락세계는 환상이고 허구적인 세계가 아니라 한 은하계입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원력으로 불국정토를 이루셨고, 그것은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불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흔히 두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열반 증득해서 생사해탈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발보리심해서 극락정토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이루기 위해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세생생 몸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보리심을 내 차츰차츰 이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불법을 배우는 것은 불생불멸 마음의 본질을 증득하기 위함이고, 여기에는 끊어지지 않는 원력과 발보리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것은 일시적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과 몸과 생각, 바로 3가지 신구의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 부자와 같은 삶이 되거나 가난한 삶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선업과 악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 궁극적으로 인생을 운영해나가다 보면 무아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곧 자비행의 생활화가 됩니다. 그로써 복덕과 지혜를 갖춰 중생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무상미묘법입니다. 우리가 성불하기까지 신심을 퇴색시키지 않고 굳건하게 매진해나가야 합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4월 6일(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전국 지사 모집

- 15년의 노력을 통하여 탄생된 운명상담! 간단히 입력을 마치면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학생들에겐 학과선택. 효율적 학습법. 좌,우뇌발달. 진학년도 성적여부. 학교예측. 부와 명예 중 발달 분야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안내. 언제 재물 또는 목적실현이 잘 될까 그래프를 보며 상담이 진행된다.
(학생 3,500명. 성인 2,500명 대상, 연구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지사 운영 대상

종교인(스님). 교육분야. 상담심리사.
철학인. 직업상담사
직업이 필요한 분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한국어 능통자 환영)
● 학생용 (남.여) ● 성인용 (남.여)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강의 안내 : 매주 화 · 목요일 명리학 강의



비 전

- 입력 즉시 인생 전반에 걸친 자료 나온다.
부모관계. 배우자관계. 자식관계. 형제관계를 한눈에 보고 판단해준다.
-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직업을 갖어야 좋은가를 알려준다.
- 언제 형편이 좋아지고 언제 흉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다.

※궁금하신 분은 연구실에 방문하여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에 숨겨진 나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 오픈 예정

프로그램 유형

생년월일 입력		설문응답		설문응답(재학생)		숫자에 얽힌 운세	
[고객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이 름		이 름		이 름		이 름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윤달여부	네( ) 아니오( )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쌍 둥 이	네( ) 아니오( )	안 내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가) 귀하가 전공하는 과목은 계열 : 학과 : (나) 현재의 과정은 어디에 해당 4년제( ) 전문대( ) 기타( ) (다) 재학중인 학교명 첫자는? ( )		선 택 숫 자	다음의 숫자 중 선택하고 싶은 숫자에 클릭하셔요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핸폰번호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다 음 검사하기	
이메일							
내신등급							
검사하기 평생운( ) 1년 신수( )							

※생년월일 입력시 16장 출력 ※1년 신수 5장 출력 ※설문응답 15장 출력 ※숫자에 얽힌 운세 5장 출력 ※주민번호에 의한 후천직업 5장 출력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진로적성힐링상담소) 401호 미래예측학 박사 안성재
문 의 : H·P 010-5418-5972

동국대,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

10일 도서관 IF존 개관… 첨단 교육시설 설치

스마트한 캠퍼스 환경 마련
"교육의 질 향상 효과 기대"

동국대(총장 보광)가 첨단시설을 통한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동국대는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개관식을 갖는 중앙도서관(관장 신성현) 창의학습 공간 IF(Information Forest, 이하 IF) Zone을 마지막으로 총 4개 건물의 첨단 교육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신성현 중앙도서관장은 "학생들을 위한 힐링과 창의 공간으로 조성된 IF Zone은 동국대 중앙도서관의 모토인 '정보의 숲'을 만들기 위해 산책로를 형상화했다. 2014년 조성된 컨퍼런스 공간 IC(Information Commons) Zone과 함께, 학생들의 여가와 학습, 문화생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IF Zone은 기존 멀티미디어실을 개조, 다매체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기를 설치했다. 프레젠테이션과 모의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동시에 녹화 및 리뷰가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룸'과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편집 코너'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AV Room과 노트북 존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등 최첨단 디지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 이한주)에는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첨단 모니터링실'이 들어섰다. 촬영 및 상영기기들이 갖춰져 강의촬영 및 모니터링, 교수법 컨설팅 등이 가능해져 교수-학습 지원서비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공간을 확충해 교수-학생 간 컨설팅 공간 및 교수법 전용 세미나실을 넉넉히 확보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한 학습방법) 강의실이 완공돼 새 학기부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칠판과 음향장비를 구비해 선진화된 강의를 가능케 했고, 원형 테이블과 여러 대의 이동식 화이트보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동국대는 "ACE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자율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스마트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및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작년 7월 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육부의 ACE 사업 수도권 대규모 부문에 선정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도서관에 문을 연 창의학습 공간 IF(Information Forest) Zone의 모습.

불교 고전어로 본 문화 형성

금강대 불문연 '불교고전어' 주제 콜로키움

8월 24일까지 12차례 개최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가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를 주제로 콜로키움(세미나)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엄은 금강대 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3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12차례 열린다.

주요 논제로는 △김지연 금강대 HK 연구교수의 '다라니의 전래와 동아시아적 변용' △정상교 동경대 박사의 '반야등론 제9장의 독자부설-푸드갈라 정의의 다양성에 관하여' △이케다 마사노리 금강대 HK 연구교수의 '중국에서 아비달마교리의 수용과 변천'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옴니버스 영화 〈인류멸망보고서〉 2번째 에피소드 '천상의 피조물'의 포스터 중 일부.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는 로봇은 인명 스님으로 불리며 대중의 추앙을 받는다. 인공지능 로봇이 더 인간답게 분별없는 사고와 통찰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진화하는 인공지능에겐 '佛性' 있을까

미래 과학기술과 불교 – ① 불교적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서 언쟁을 벌인다. RU-4라는 이름의 로봇은 깨달은 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프로그램 오류로 폐기돼야할 로봇인지를 놓고, 갈등의 클라이막스에서 부처님 앞에 좌정한 인명이라는 법명까지 받은 로봇은 "인간이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모든 것은 공(空)합니다. 이제 스스로를 거두려 합니다"라는 마지막 설법을 남긴 채 스스로 기동을 정지한다. 마치 인간 고승이 스스로 열반에 들 듯이.

이는 한국의 옴니버스 영화 〈인류멸망보고서(2011)〉 두 번째 에피소드 '천상의 피조물'의 한 장면이다. 최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 바둑 최고수 중 한 명인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이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알파고'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변수를 감안해 내는 추론과 직관까지 보여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공지능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나

현재 불교계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논문으로는 2008년 조계종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던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의 '인공지능로봇의 불성 연구- 인간과 기계의 연기성을 중심으로' 정도이며, 도서로는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지승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가 유일하다.

이밖에도 월간지 〈불교와 문화〉에 이상헌 세종대 교수가 '과학기술과 불교'를 연재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글을 2회 기술하기도 했다.

이세돌과 바둑 대국 벌인 알파고
인간의 직관·추론 영역에 이르러
A.I 대한 불교적 해석 연구 부족
"감정·자아 등 A.I는 아직 못 가져
깨달음 영역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들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에게는 불성(佛性)이 있느냐'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의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보일 스님은 자신의 논문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불성이 없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유사(類似)인격체인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을 연기·공·중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불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과의 연기성을 파악하다 보면 종국에는 '나는 누구인가'로 귀결된다고도 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지승도 교수는 자신의 책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에서 '인공지능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나'에 대해 '자아'라는 개념에 집중했다. 지 교수는 "깨달음이란 법을 통찰하는 것, 자아가 본래 없다는 사실, 존재란 하나의 개념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인데, 로봇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적어도 '자아'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이 깨달음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은 무명(無明)함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철저하게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에게 무명·망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인공지능에게 불성과 깨달음을 말하는 것은 아직은 단언컨대 이르다"고 말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의 개념이 확대돼 무정물들도 성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인공지능은 범주가 다르다"며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밍된 것이다. 입력된 프로그램은 조작된 분별적 요소이다. 이를 기반한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전을 거듭한다고 해도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과학이 가져올 번뇌, 경계해야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은 상이했지만 과학 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번뇌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희종 교수는 "알파고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 우리는 막연한 환상을 갖는다"면서 "이것들이 가져올 번뇌와 고통에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언제나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날과 같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일 스님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자본의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인간이 자본의 감각에 봉사하는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중도적 안목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현대과학이 제기하는 많은 문제점의 해결책은 과학 내부가 아니라 불교의 연기론에서 비롯되는 통학적인 사고방식에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세종대 교수의 연재물 '과학기술과 불교'는 조금 더 실천적 제안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상헌 교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이 수단으로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길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는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불교적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바른 목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경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봉행 원효성사 열반성지 골굴사(혈사)

12처 석굴사원 원형복원을 위한 마애여래불 다례제



신라 천년의 아름다운 미소와 섬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골굴사 마애여래불(보물 제581호)

산곡과 동천에 무량광의 밝은 빛을 비추며 기적을 행하던 영험한 신앙의 대상이었던 골굴사 마애여래불의 가피와 기적을 찬탄하고 불자님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육법공양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제는 원효성사의 마지막 혼이 깃든 골굴사(혈사)에서 열림과 동시에 인도석굴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내 유일 12처 석굴사원의 원형 복원을 알리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공양의 공덕을 통해서 불자님과 불자님 가정에 마애여래불의 이적과 성취가 함께하길 기원하는 이번 다례제는 경주지역 불교문화의 한 장을 형성하고, 골굴사와 마애여래불의 신앙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의 동참으로 한해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이번 다례제에 동참하시어 수승공덕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 상주 기도안내 : 원효성사의 열반지인 골굴사에서 상주하며, 기적과 치유의 신비를 나투던 마애여래불전에 스님들과 함께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가행정진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일 시 : 불기 2660년(2016) 3월 26일 오전 10시
장 소 : 골굴사 대적광전 문 의 : 054-744-1689
내 용 : 마애여래불 다례제 – 육법공양 / 대적광전 개금불사 회향 점안식 / 진달래 화전 템플스테이

원효성사 열반성지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혈사) 주지 적운 합장

“지역 행복을 지키는 기둥으로 20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아름다운 바다와 오륙도 섬을 부산 용호동의 상징으로 떠올린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나환자 집성촌이란 용호농장이 사라진 후에도 그곳은 혐오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던 낙후 지역이었다. 특히 용호종합복지관이 위치한 용호 2동은 철거민밀집지역에 노인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아 복지가 절실한 곳이였다. 이곳에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위드아시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지원 · 이하 용호복지관)이 20년 동안 묵묵히 마을을 지켜왔다.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 자리한다는 오해로 복지관 건립조차도 반대에 부딪혔던 역경의 시간도 이겨내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우뚝 서서 마을의 행복도우미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용호복지관은 3월 4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후원회 이사 능후 스님, 이종철 남구청장 및 자원 봉사자, 지역민 300여명이 자리해 함께 축하했다.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의 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은 2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물 상영, 후원자, 자원 봉사자 및 장기근속 직원 표창이 이어졌다. 장기근속 직원 표창은 이춘성 관장, 서은해 부관장, 오경래 시설과장, 배기숙 조리실장이 받았다. 우수 자원봉사자 공로패는 빙양임 자원봉사자, 진영애 자원봉사자, 민군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로패는 이민재 시민여객 대표가 받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용호복지관은 비전 2026 선포식을 열어 향후 10년의 약속과 계획을 발표했다. 용호복지관의 비전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 △유기

1996년 개관, 혐오시설 오해도
마을 복지 주관 행복 도우미로
2015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향후 10년 비전 선포 소통 강조

적으로 주민이 디자인하는 행복한 복지관 △상생네트워크로 지역복지거점이 되는 활기찬 복지관 이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단순한 생활복지를 넘어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로 행복을 안겨주는 선봉장이 되었다”며 “그동안 땀흘려주신 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복지관을 다녀가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춘성 관장은 “20주년을 맞아 다시



개관 20주년을 맞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향후 10년 모습을 설계 발표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로 더욱 나아 갈 것을 다짐했다.

성년에 걸맞는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누구나 편안히 찾을 수 있는 복지관이 되며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호복지관은 ‘더불어 실현해 나아가는 평등세상’ 이라는 미션아래 1996년 3월 개관했다. 2000년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 2003년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가정봉사파견센터 설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다.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경영 우수기관 선정, 2009년 아동발달상담센터를 확대해 언어, 미술, 심리, 감각통합 치료 등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용호복지관은 그간의 뛰어난 활동을 인정받아 2006년부터 2015년 까지 4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종합평가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치매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중인 방문요양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 역시 보건복지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한편, 개관 20주년 기념하기 위해 6월 2일 ‘지역복지거점 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 역할 재정립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의회 대회실에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용호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 주민복지증진의 중심이 되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성미 기자

고경 법전 대종사 70주기 추모 다례재

은해사 4일 봉행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3월 4일 고경 법전 대종사 70주기 추모다례재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는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및 문도 · 문중 스님을 비롯해 이시명 선화여고 교장, 송오생 은해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고경 스님의 다례재에 문도, 문중스님들과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다례재가 되도록 준비에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조실 혜인 스님은 “문도, 문중 스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어른 스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밝히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경 법전 대종사는 혼응 기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당대 남방대강사로 명성을 펼쳤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는 3월 4일 고경 법전 대종사 70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평화로운 삶의 마무리를 배운다

환희불교복지대학, 35기 호스피스 교육과정 개강

평화로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들의 산실,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이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환희불교복지대학은 ‘제35기 호스피스 교육생’ 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3월 25일~5월 27일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5시이다. 교육내용은 △생명의 의미와 가치 △말기 임종환자와의 의사소통 △말기환자 간호 및 통증관리 △편마비 환자의 물리치료 요법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치매환자 간호,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경락이론 및 마사지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병원견학 및 기본 간호실습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만성질환자 간호 등 호스피스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3월 25일 오후 2시 개강식에서는 환희불교복지대학장 지현 스님의 특별강연회가 개최된다. 주제는 ‘이해와 사랑’ 이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 및 봉사활동과 유급활동을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는 별도다. (051)203-9436

하성미 기자

연지사 ‘평등’ 주제로 제1회 수륙 무차 법회

울산 연지사(주지 성천)가 대평등을 주제로 ‘제1회 수륙 무차 법회 및 방생법회’ 를 봉행했다.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3월 5일 개최된 이번 법회는 주지 성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성천 스님은 “울산은 옛날 부터 바다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척박한 곳이었다”며 “이번 수륙대재와 방생 법회를 처음으로 봉행 한 것은 이곳 지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좋은 인연으로 행복하길 발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울산 연지사는 3월 5일 ‘제1회 수륙 무차 법회 및 방생법회’ 를 봉행했다.

“포교와 인재 불사 위한 전진기지로”

해림사, 창건 이후 첫 수계 법회

부산 해림사(회주 동림)가 3월 9일 창건 이래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그동안 해림사는 기도와 정기법회로만 운영됐지만 이번 수계법회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일신하는 기도처이자 청정 계율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수계법회에는 불자 200여명이 참석해 계를 수지하고 불자로써 바른 삶을 살아 갈 것을 서원했다. 특히 이번 수계법회를 축하하며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도 열었다. 불자들이 친견한 부처님 사리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문화원에 선물한 사리이다. 불자들은 수계를 받은 것도 기쁜 일인데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함으로 더욱 신심이 나고 환희심으로 기쁨이 가득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주 동림 스님은 “명예, 재물, 사랑, 지식 등은 이 몸을 위한 것이다. 가치를


해림사는 창건 이래 첫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수행하는 청정도량으로 나아가고 포교와 인재불사를 위한 사찰로 거듭 날 것을 천명했다.

그런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 의지를 두는 것이 계의 시작이다”며 “오계를 지키면 안정을 얻고 지혜를 얻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다. 계를 받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계를 수지함으로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습관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좋은 인연 만나는 것이다”며 “오계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 보살이 되는 첫 시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해림사는 앞으로 수행을 통한 청정도량을 천명하고 인재불사와 포교를 위해서도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림사는 3월 12일 ‘해림사 초중고 학생법회’ 를 창립해 불법 홍포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해림사는 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기부금도 희사 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선수행 통해 찾아가는 행복의 길”

동명대 세계선센터, 선수행 학교 개강

동안거는 해제 됐지만 부산 동명대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새롭게 방부를 들였다. 캠퍼스 내에 선수행 학교가 열렸기 때문이다.

3월9일부터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제 5기 선수행학교’ 에는 지역민 및 불자 50여명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선원장 수진 스님은 앉는 자세부터 화두와 경책 받는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도 했다. 이어 스님은 간화선에 대해 설명하며 처음 접하는 초심자를 위해 직접 ‘이 몸을 이끌고 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도 내리며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천하에 학문과 부귀와 명예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며 “선 수행을 통해 내려놓음을 알고 참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는 종립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학 가운데 유일한 캠퍼스 내 수행공간이다. 하성미 기자

LEADER
社團法人 世界佛教 法王廳
世界佛教 法王廳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수 많은 불교국가 중에 승려 수 60 ~ 65만 명의 불교나라 미얀마 연방 승가회 (미얀마 종정스님)회장을 2015년 6월 2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봉행하였고 11월 1일에는 모든 각료들의 임명을 법왕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영광스런 행사를 봉행하였습니다.

각 나라 승가 최고스님들께서 법왕을 보필하는 상임 최고 장로로서의 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Dr 우 꾸마라 (세계불교도의 법왕)

세계불교 위상과 단합된 불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없이 불제자로서의 인품, 인성도 인격도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명예나 이익에 부합하면 동참하다가 임명장만 받고는 참여도 아니하고 자신의 사찰에 임명장 걸어놓고 신도들에게 자랑하면서도 동참은 커녕 소리없이 사라지는 자칭 큰스님들 수 없이 겪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참신한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부처님 세상을 이루는데 뜻을 같이 할 종단, 출가자, 재가자 모두 포함한 사부대중에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대표 전화번호 : 011-229-6061. 기획실 : 010-4467-9600



어르신 위한 '생명평화밥상' 급식소 개소

전북지역 불교계 뜻 모아 무료로 운영

전북지역 불교계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생명평화밥상〈사진〉' 무료급식소를 개설했다.

3월 2일 전주시 금암동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곽인순 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세원 금암동주민센터장, 김영돈 금선암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 밥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된 '생명평화밥상' 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북지역 불교계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후원했다.

생명평화밥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금암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3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한다. 인공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자연음식을 기본으로 소박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상차림을 제공하고 있다.

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고 나누니 마음이 행복해진다. 이제 시작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생명평화밥상' 은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순번을 정해 배식과 설거지를 도맡아 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지원 없이 완주 송광사, 전주 금선암, 참좋은우리절, (사)부처님세상 전북불교대학 등 지역 사찰뿐만 아니라 전북불교대학자원봉사회, (사)착한벗들, (사)자연음식문화원 등 후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경지 전북불교네크워트 사무처장은 "정기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고기, 야채, 빵 등 현물과 자원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 불교계, 봉축행사 '만반의 준비'

燈 전시회·어울림마당·합창제 등
시민·불자와 소통하는 행사 다채


지난해 전주 종합경기장 광장에 세워진 봉축기원등 모습.

올해 빛고을 광주의 봉축행사는 '전통의 멋과 흥, 그리고 지역나눔'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2월 25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봉축행사 일정을 최종 발표했다.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4월 30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통등(燈) 전시회(4월 30일~5월 16일), 어울림마당 · 제등행진 · 대동한마당(5월 7일), 시민한마당(4~5월) 등이 진행된다.

봉축장엄등으로는 한지로 만든 20m 높이의 석가탑을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조성한다. 전통등 전시회는 광주천과 광주시청에 60여개의 전통한지등(燈)을 설치해 봉축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한편,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통등 전시회는 지난해에만 5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아울러 5월 7일 본행사가 열리는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에는 시민과 불자가 하나 되는 열린 법석이 마련된다. 어린이 · 청소년들이 불교문화, 외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부스와 전통공예, 사진전 등 다양한 불교 관련 행사를 만끽할 수 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화려한 율동의 연희단을 볼 수 있는 어울림마당, 6시 봉축법요식, 7시 제등행진(문화전당~광주천~시내 중심가~문화전당)과 관등음악회(봉축음악회)가 이어져 불자와 시민들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어울림마당' 은 다양한 계층(어린이 · 청소년 · 합창단 · 신도)으로 구성된 연희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에 참여한 불자들과 함께 봉축 율동을 선보인다.

봉축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한창이다. 전통등기획단(단장 혜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은 1~2월 대형장엄등(燈) 강습회에 이어 3월(22일~24일)에도 강습회를 연다. 제등행진 때 사찰을 대표하는 대형장엄등 보급을 위한 사업이다.

연희단기획단(단장 일명, 금선사 주지)은 더욱 눈에 띈다. 광주불교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연희단과 전체율동, 그룹별 율동은 올해 봉축행사의 '흥' 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미 2월부터 30여 개 주요 사찰을 돌며 율동 강습회를 실시했다. 또한 전체율동을 이끌 '율동리더' 강습회도 매주 개최하고 있다.

사진영상기획단(단장 무등, 천룡사 주지)은 3월 9일부터 15주간에 걸쳐 무료 강좌를 개최한다. 각 사찰 사진 담당자를 양성하고, 봉축행사의 다양한 사진을 담기 위해 발족한 사진영상기획단은 전통등전시회, 제등행진, 불교행사의 사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전라북도 봉축위원회의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계획도 윤곽이 잡혔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3월 4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봉축위원회는 조계종 금산사,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구성과 세부 행사계획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주제 표어에 맞춰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으로 정하고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각종 봉축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4월 16일부터 전주 주요도로에 봉축 가로연등을 걸고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주요도로변에는 홍보탑을 세워 봉축행사를 홍보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전주종합경기장 앞 광장에서는 봉축기원탑 점등식이 진행된다. 또한 4월 23일에는 전북어린이 큰잔치와 전북불교연합합창제가, 5월 7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대규모 연등축제가 열린다. 이후 13일 제6탄약창 연등제, 14일 사찰별 봉축법요식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교도소 · 소년원 · 군법당 위문법회가 진행된 후 28일 청소년 모악축제를 끝으로 봉축행사는 마무리된다.

봉축행사기간에는 전북불교회관에서 연등 만들기 대회가 열리며 전북포교사단 주최의 교리퀴즈대회도 열린다. 또 부처님오신날 봉축사상 강연회도 예정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대병원불자회, 매월 위문공연 펼친다

아리랑예술단 재능기부로



환우들에게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아리랑 예술단.

국립대 병원 중 불교시설이 없는 전북대학교병원에 불자들이 매월 정기적인 위문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대학교 병원불자회(회장 이준모, 정형외과 교수)와 한국노인복지회(회장 정인) 아리랑예술단(단장 안선희)은 3월 6일 전북대학교 병원 모악홀에서 '환우들을 위한 위문공연' 을 개최했다.

한국노인복지회장 정인 스님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공연은 아리랑예술단의 재능기부와 수 한방병원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안선희 아리랑예술단장을 비롯해 국악인 백사랑과 백고은, 가수 이승영과 조하연등이 출연해 국악과 가요, 각설이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병마에 지친 환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인 스님은 "국립 전북대병원에 작은 법당이나 상담실하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며 "불교계에서 매월 정기적인 위문공연을 통해 환우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북도내에서 소외받고 있는 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문공연 등을 하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쳐온 아리랑예술단은 앞으로 전북대병원에서도 매달 1회씩 재능기부 공연을 하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사업 발대

3월 3일, 어르신 314명 참가


고창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 총 314명이 참가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3월 3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대상자 31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사업은 기존사업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관리지원사업 64명, 학교생활관리지원활동사업 80명, 지역보육시설 및 아동센터도우미파견사업 45명, 신규사업 건강체조 및 취미생활지원사업 20명, 문화공연지원활동 30명 총 314명이 참여한다.

유영길 어르신의 선서문 낭독으로 시작된 발대식은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고창경찰서 및 고창군노인복지센터가 연계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노인장기요양등급 관련 교육이 이어졌다.

대원 스님은"100세 시대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참여 활성화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힘차고 행복한 노년, 보람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내적 분열 잘 다스려야 올바른 수행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㊴ 가짜손오공과 시비 벌이는 손오공

이번에는 서유기의 독특한 '손오공 축출사건'을 좀 제대로 다루어보기로 했죠? 단순한 자기의 분열과는 다른, 서유기의 자기 분열사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현장법사는 자비심은 충만하지만 사태의 진상을 보는 눈은 부족하군요. 요괴가 분장하고 나온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반면 손오공은 요괴의 간사한 수법은 한 눈에 꿰뚫어 보지만 자비심은 부족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빚어지는군요. 손오공의 성급한 손은 단매에 요괴를 때려죽여버리고, 눈 밝지 못한 현장법사는 이를 용서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손오공 머리테 조이는 긴고주를 막 외워대고…. 이런 일이 세 번 벌어지고, 결국 요괴를 잡지만 손오공이 쫓겨나지요? 거기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손오공 축출을 부추긴 게 누구인가요? 저팔계입니다. 저팔계도 요괴의 간사한 수작을 꿰뚫어 볼 능력은 없습니다. 만일 요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면 아무리 저팔계가 욕심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손오공을 모함하여 쫓아내지는 안았을 겁니다. 요괴라는 걸 몰라봤는데, 손오공은 요괴라 하고 때려죽이니…. 갸오똥~. 그렇지만 역시 먹을 것을 놓치고, 또 마음 쏠려서 음심까지 품었던 아가씨를 때려죽인데 대한 성낸 마음이 "혹시 정말 요괴일지도 몰라"하는 의심을 덮어 버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증폭되면서 현장법사를 부추기게 되는 거지요. "저 재주 좋은 체 하는 사형이 꾸민 일입니다요. 아가씨부터 죽여서 결국 그 부모까지 다 죽이고는, 마치 요괴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원숭이 사형 재주 좋은 건 아시잖아요. 죽여 놓고 요괴로 꾸미는 건 일도 아녜요" 이렇게 부추겨대니 가뜩이나 손오공의 잔인한 처사에 화가 나 있던 현장법사가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 부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선 손오공을 파문해 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아에 욕망이 부추겨대니 결국 지혜의 충고를 저버리고 만 결과라 할까요? 여기서 현장법사는 자아의 주체성에 해당하고 저팔계는 욕망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손오공은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지혜에 해당시킬 수 있구요. 물론 온전하지 않으니까 반쯤은 어리석음이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도 셋 중에서는 제일 눈이 밝은 게 손오공이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손오공은 옳고 현장법사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오공 역시 아직 깨닫지 못한 분별지에 해당하기에, 올바른 방편을 굴리는 온전한 지혜라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지혜라면 현장법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지혜방편을 굴렸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단매에 때려죽이는 것은 역시 잘못이지요. 아직 어리석은 자아라면 차분하게 설득을 하는 방편을 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속의 자기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원을 세움으로써 욕망의 힘을 그 쪽으로 돌리는 것도 이런 방법을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체할 욕망이나 서원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 우선은 욕망을 잘 설득해서 달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큰 저항 없이 욕망의 힘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잠재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제가 눈 밝다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단매에 때려죽인 것은 역시 성급한 행동이며, 올바른 지혜방편을 갖추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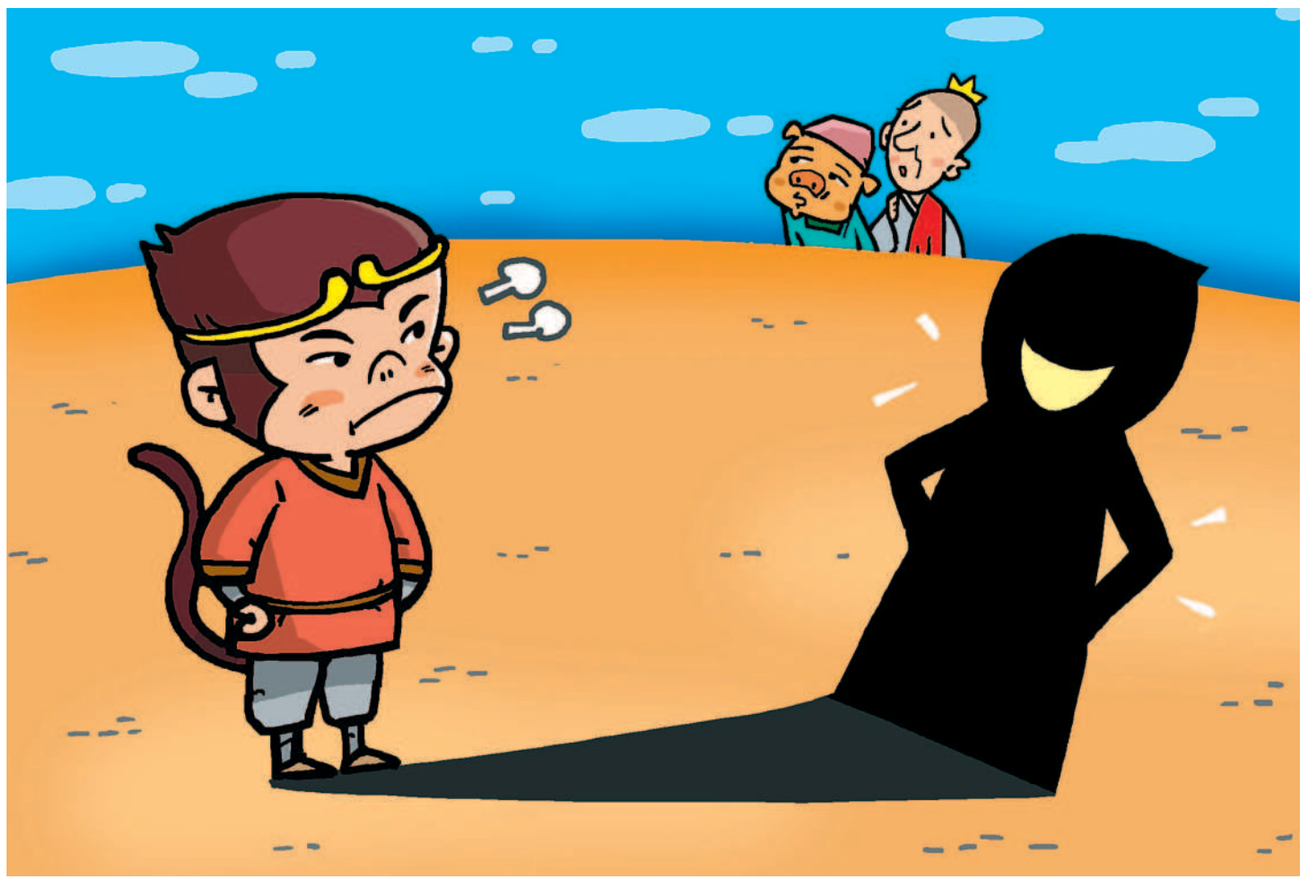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현장법사와 손오공 갈등 생겨
가짜 손오공 나타나 다툼 발생
서원 없다면 욕망의 힘 줄여야

결국은 현장법사도 손오공도 모두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익지 않은 수행과정이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히 서로를 달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잘못을 불러일으키는군요. 그래서 결국 최악의 사태! 손오공을 축출하는 사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눈을 뜨지 못한 자아, 설익은 지혜, 거기에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하는 욕망이 끼어드니 속으로 파탄이 생길 수밖에요. 그래도 욕망을 제압할 수 있으면 좀 나을 터인데, 일이 그렇게 되나요? 설익은 지혜의 충고가 무시되고, 아니 무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네 말은 전혀 안들을 거야!" 정도가 되어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그 뒤가 어떨까요? 훤히 보이지요? 아마 몇 걸음 못가서 큰 고난을 당할게 뻔합니다. 저팔계와 사오정의 힘만으로는 결코 난관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때 가서 손오공을 어찌 불러 오려는지, 아니 과연 손오공이 순순히 다시 돌아와 도와주려는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그래도 성질머리는 더럽지만 현장법사를 향한 순수한 보은의 마음을 지닌 손오공이니까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속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면, 발보리심-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한 때의 문제로 잠시 방황을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지요. 현장법사가 참으로 둔한 구석도 많고 어떤 때는 갑갑할 정도로 원칙만 고집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구도의 열정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현장법사가 가진 위대한 힘이지요.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과 구도심! 이것이 바로 현장법사의 상징이거든요. 한 때는 그에 뒤따라야 할 지혜와 방편을 부족으로 장애를 만나기도 하지만, 근본에 대한 지향이 확실하면 반드시 제 길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다 그런 확고한 믿음과 열정에는 불보살의 가피가 따르게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은 마시지요.

각설하고, 손오공이 축출되는 사태는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서유기가 한참 더 진행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축출사태가 벌어집니다. 비슷한 사태인데 뒤의 사태에는 여기에 없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때가면 지금 이야기 다 잊으실 지도 모르니…. 하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 다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태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태의 시작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잔인하게 산적을 때려죽이고 현장법사가 그 잔인함을 꾸짖는데서 시작하지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산적을 때려죽이자 현장법사가 매우 꾸짖고는 무덤을 써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축문을 읽는데 거기에 "여러분을 죽인 것은 손오공, 손가 놈이니 염라대왕 앞에 가서 고소할 때는 저를 고소하지 말고 손오공을 고소하십시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이 그것을 받아쳐서 "이 뒈질 놈의 강도들아…옥황상제는 나와 아는 사이고…염라대왕은 내 졸개이며 시방시계의 신들은 다 나와 친한 사이이니 어디 맘대로 가서 고발해봐라!" 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현장법사는 이러한 악담에 뜨악해하고, 손오공은 손오공 나름대로 너무 자기만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섭섭해 하게 됩니다. 이번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현장법사와 손오공 좀 더 큰 거리가 생기는 거지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볼까요? 산적을 죽이고 조금 더 가서 머물 집을 찾았는데, 주인은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죽은 산적의 일당이었지요. 그 아들과 산적 일당들이 그 집에 찾아들어 왔다가, 현장법사 일행이 자기 무리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는 복수할 모의를 합니다. 그걸 알고는 달아나는 데 겁없이 뒤쫓아 오네요. 무서워 달아난 것이 아닌데…. 결국 손오공에게 그 집 아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그 뒤의 결과는 듣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출 때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져요. 손오공이 요괴도 아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현장법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 그것이 그런 잔인한 행동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 좀 더 뿌리깊은 갈등이 일어난 셈이고, 그 갈등의 결과도 그리 쉽게 메워질 수 없게 됩니다. 손오공이 현장법사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아주 고약한 사태가 벌어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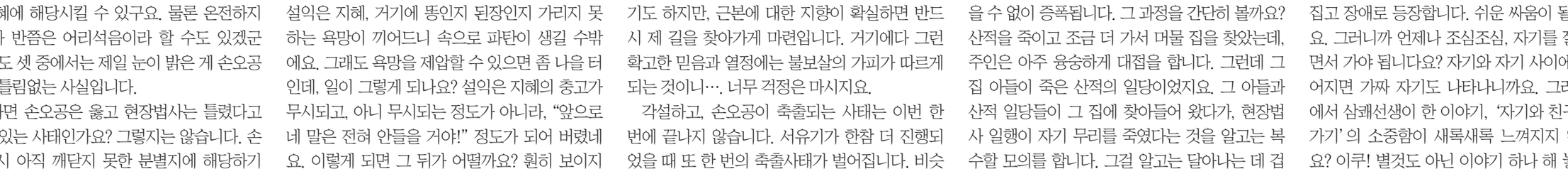
어떤 고약한 사태냐구요? 가짜 손오공이 등장하는 고약한 사태입니다. 완전히 손오공과 똑같아요. 보살님들도 신선들도 구별 못해요! 손오공 머리테 조여대는 긴고주를 외우면 두 손오공이 함께 떼굴떼굴 굴러요. 그렇게 진짜 빰치는 가짜 손오공이 나타나 현장법사에게 행패를 부리네요. "꼭 너만 불경 가지러 인도 가라는 법이 있느냐. 훌륭한 내가 네 대신 불경 가져와서 모든 영광 누리겠다!" 꼭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선언을 하고 부처님으로부터 현장법사에게 전해진 금란가사 등을 강탈해 가버리지요. 급하게 관세음보살님 곁에 있던 손오공을 찾아와서 사정사정, 손오공도 자기 가짜가 나타났다니 발끈해서 달려오고…. 그래서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싸움 실력도 똑같아 도저히 승패를 가릴 수 없다는 거지요. 진짜와 가짜를 가릴 길도 없고, 싸움으로도 판별이 안 되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까지 싸우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듣던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네요. "저것 보아라.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며 오고 있구나!"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은 이런 싯구절을 읊조리고 있네요. "사람에게 두 마음 있으면 재앙이 생기나니…"

자, 여러분 가짜 손오공 사태가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서유기에는 부처님에 의해 가짜 손오공의 정체가 여섯 귀를 가진 미후(??)라는 것이 밝혀지고, 잡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참된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나와 내가 쪼개지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투는 내적인 분열이라는 큰 장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나간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큰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도고마장(道高魔長)! 도가 높아지면 장애는 더더욱 커진다는 말이겠지요. "도가 한자 높아지면 마(魔)는 한 길을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행이 깊어지면 정신력도 강해지지요. 그 강해진 정신력이 조그만 틈을 비집고 장애로 등장합니다. 쉬운 싸움이 될 리 없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조심, 자기를 잘 달래가면서 가야 됩니다요? 자기와 자기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가짜 자기도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삼쾌선생이 한 이야기, '자기와 친구되어 나가기'의 소중함이 새록새록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쿠! 별것도 아닌 이야기 하나 해 놓고 집념도 강하게 계속 선전을 해댄다구요? 애고고. 삼쾌선생은 언제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자신을 잘 달래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무척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 끝냅니다.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으로,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제 2기)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 회장, 꼴관상 신기원 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청화학술 박청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신석우박사, 정경연교수, 김인순박사, 김민재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힐링특강-가수 김태곤 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목(木) 18:30 ~ 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4월 7일(목) 18:00 ~ 미래학특강(미래로 보는 세상)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그 절집의 빛

⑥ 선암사, 통도사, 화엄사, 백양사의 고매

봄의 직지, 그 절집의 古梅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선암사 무우전 백매 홍매, 통도사 자장매, 화엄사 흑매(각황매), 백양사 고불매

가장 오래된 수령 630년 선암사 백매
가장 일찍 피는 고매, 통도사 자장매
검붉은 색채가 인상적인 화엄흑매
절집 고매의 꽃과 향은 세세생생의 헌공

선암사 백매 홍매, 탐매기행 일번지

메마른 나뭇가지에 꽃이 핀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사태다. 마음 속 한 물건이 청정해지면 우주법계가 청정해지는 법이다. 한 꽃이 피니 수 백 수 천의 꽃이 핀다. 매화는 그 봄의 경이로운 사태를 기별한다. 일지매(一枝梅)의 가지, 봄의 마중물이고, 봄의 직지(直指)다.

매화향을 일러 암향(暗香)이라 한다. 달무리의 교교한 기운이 흐르고 사위가 적막할 때 비로소 스며드는 은은한 향기인 까닭이다.

문인 묵객들이 고매(古梅)를 찾아 잔설이 남은 산야를 소요하는 것을 두고 탐매(探梅), 또는 심매(尋梅)라 한다. 꽃과 향을 찾아가는 탐미적 추구가 아니라 청빈하고 고아한 마음을 찾아가는 일종의 구도행으로 여긴 것이다. 깊은 산 속에 깃든 고매 한 그루를 고결함과 지조, 고매한 덕망을 갖춘 성리학적 군자(君子)로 인격화 하였기 때문이다. 심사정의 〈파교심매도〉, 전기의 〈매화서옥도〉 등에서 탐매와 심매에 나선 선비의 이상향을 향한 구도행을 접할 수 있다. 추위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군자를 찾아가는 길인 까닭에 불교의 수행과정을 그린 심우의 운수행각에 견줬던 것이다. 그 때 갖춘 매화의 덕성이 빙자옥질(氷姿玉質)이요, 아치고절(雅致高節)이다.

전통사찰 몇 몇의 절집에 아치고절의 품격을 갖춘 고매가 있다. 이른 봄 탐매가들의 숱한 발길을 불러 모은다. 벌이나 나비 보다도 사람들의 발길이 더 분주하다. 수령이 150년 이상 된 매화를 흔히 고매라 부른다. 선암사, 통도사, 화엄사, 백양사, 순천 송광사, 개암사, 산청 대원사, 불영사, 표충사, 고창 문수사, 단속사지 등에서 드물게 야매와 고매를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선암사 백매와 홍매, 통도사 자장매와 영취매, 화엄사 흑매와 야매, 백양사 고불매 등은 한국 고매의 아치고절을 대표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매화를 관상할 때 세 가지 요소에 심미안의 촛점을 둔다. 수형과 꽃잎 색, 꽃향기가 그 셋이다. 즉 형태와 색과 향을 관상하는 것이다.

순천 선암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매 군락의 집단성을 갖춘 탐매기행 일번지다. 선암사 자체가 불국으로 경영한 전통원림이자 자연생태 수목원이다. 전통 고매의 유전자와 원형질이 실존하고 있는 매화의 성지다. 수령 150년이 넘는 고매가 선암사에 22그루나 있다. 무우전 돌담길과 대웅전, 원통전, 장경각, 해우소 부근 등 경내 곳곳에서 암향을 퍼트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매와 홍매도 그 곳에 있다. 원통전 뒤 백매는 630여년으로 추정하고, 무우전 돌담의 홍매는 550여년으로 추정한다. 매화 수형과 꽃잎 색, 암향 등의 세 덕목을 두루 갖춰 고매의 전형을 보여준다. 매화는 네 가지를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 늙은 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마른 것을 귀하게 여기며, 성글게 핀 것을 귀히 여기며, 오므린 꽃봉오리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선암사 고매 등걸은 마른 명태처럼 여윈데 기운생동의 힘과 매혼이 흐른다. 먹빛 몸통과 가지마다 파란 녹의 이끼와 일엽초, 철편 같은 비늘을 뒤덮고 있어 쇠처럼 단단해 보인다. 쭈삣쭈삣 엉켜붙은 비늘의 가지에서 숱한 풍상과 인고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쇠처럼 단단해 보이는 몸에 봄의 꽃이 피니 그야말로 '철골생춘(鐵骨生春)'이다. 무우전의 나무이니 무우수(無憂樹)의 인연에 닿는다. 무우수는 세존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실 때 마야부인께서 잡았다는 나무다.

3월말 선암사 무우전 돌담길은 철골생춘의 길이다. 백매, 홍매가 뒤섞여 핀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장경각으로 가는 돌담길에 희귀한 수양 녹악매도 있었다. 백매, 홍매의 꽃잎들은 다섯 장 꽃잎을 가진 홑꽃인데 앙증맞도록 작다. 꽃잎의 색상도 차분하고 침착하다. 향은 맑고도 차가우며 깊다. 깊고도 오래된 색과 향을 지녔다. 그 고매들이 절집의 오래된 돌담길에 늘어서 있거나, 검은 먹빛의 기왓골에 무심히 가지를 드리우고 있다. 유위를 넘은 무위의 경영이 문질빈빈의 경지다. 전통의 고유성이 지닌 고전주의, 자연주의 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통도사 자장매, 봄의 기별

한국의 고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피는 매화는 통도사 자장매다. 자장매는 영산전 뒤편 영각의 처마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어령선생이 책임편집하여 2003년 발행한 〈매화〉라는 책에서는 수령을 350년으로 보고 있다. 얼음이 채 풀리지 않은 2월 중순에 진분홍의 꽃이 핀다. 그 무렵이면 전국의 탐매객들의 발길로 자장매 아래로 반질반질한 길 위의 길이 생긴다. 무채색의 대지에 홀연히 피워올린 진분홍의 꽃사태로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봄을 기별한다. 그때 자장매의 가지는 단순한 나무줄기가 아니라 관세음보살께서 손에 쥐고 계시는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생명과 자비의 메타포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 매화의 이름은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의 법명에서 차용했다. 〈삼국유사〉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 편에 52 지식수(知識樹) 설화가 전해진다. 자장께서 당신이 태어난 집을 허물고 원영사 절을 지었다. 낙성회를 열어 강론할 때 하늘사람 52분이 현신하여 강론을 들었다. 그때의 기이한 행적을 기념하여 제자들을 시켜 52 그루의 나무를 심게 했으니 그 나무들을 '52 지식수'라 부른다. 자장매의 이름은 52 지식수의 역사성을 계승하려는 의지의 천명이다. 한 그루의 나무에 사람의 행적과 역사가 뱄다. 이미 식물학적 나무의 차원을 넘어선 인문의 나무가 된 것이다.

화엄사 흑매, 뜰 앞의 잣나무

화엄사 각황전 추녀 밑의 각황매(장육매)는 색채에서 가장 인상적인 매화로 손꼽힌다. 각황매는 붉다 못해 검붉어서 '화엄사 흑매'로 부른다. 조선 숙종 때 계파선사가 각황전을 중건하면서 기념으로 심었다고 하니 수령이 300여년에 이르는 홍매다. 화엄사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희귀한 470년 수령의 야생 백매가 길상암 가는 길에 있지만, 백매는 아예 뒷전이고 지정문화재도 아닌 이 홍매에 시선이 쏠린다. 그만큼 매화의 수형과 색채가 독보적이다. 주간은 용틀임하듯 힘차게 솟구쳐서 양산처럼 살을 펼친다. 붉은 꽃을 달고 있는 가지들은 수양버들 가지만큼 가늘고 낭창하다. 가지들이 수양매처럼 아래로 처져 바람을 타곤 한다. 선홍의 나뭇가지들이 바람 타는 장면이 가관이다. 3월말 각황전 추녀 밑을 장엄할 무렵이면 강렬한 선홍빛으로 사람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한번 보고나면 그 색채의 느낌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꽃잎은 홑겹 다섯장인데 애틋하도록 자그맣다. 작은 크기의 꽃이지만 적색왜성처럼 찬란히 빛난다. 불가에서 전하는 선 중에서 48칙을 모아 해설한 책이 〈무문관〉이다. 책의 37칙이 '정전백수(庭前柏樹)', 곧 '뜰 앞의 잣나무'다. 화엄사 각황매는 선가의 화두인 뜰 앞의 나무로 다가온다. 교외별전으로 전하는 불립문자의 나무 같다.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는 명상과 염불 등 16관을 행하면 극락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형상화한 불화다. 16관중 제 4관이 수상관(樹想觀)으로 보배나무를 상념하는 관이다. 한 그루 매화나무를 관하고, 청정불국토의 상념에 젖는다. 화엄사에 화엄의 꽃이 있다.

백양사 고불매, 침향의 육법공양

전통사찰의 고매 중에서 암향의 깊이가 으뜸으로 꼽는 매화는 장성 백양사 고불총림의 고불매(古佛梅)다. '고불'은 '본연의 부처님'을 말한다. 고불총림의 말 속에는 부처님 본연으로 돌아가려는 청정가풍의 수행결사 정신을 담고 있다. 고불매는 대웅전 뜨락의 우화루(雨花樓) 측면 통행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3월 말이면 연분홍 우화의 꽃사태가 장관을 연출한다. 우화루 공간을 우화의 꽃비로 잡화엄식하니 기막힌 인연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 식목일 기념으로 발행한 〈한국의 명목〉 시리즈 두 번째 묶음에서 이 고불매를 소개했다. 우표도안 설명문에는 1700년경에 심어진 후, 1863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심었다고 소개한다.

1863년 큰 홍수로 대웅전 건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것이 이전불사를 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전해진다. 불전 건물터를 새로 닦으면서 그 곳에 있던 홍매와 백매 한 그루씩을 현재의 자리에 옮겼다는데 현대들어 불사과정에서 백매는 베어진 것으로 알려져 애석함을 남긴다.수령 300여년의 우여곡절이 기구하고 파란만장하다. 고불매가 피기 시작하면 절집 뜨락은 그윽한 침향의 향연에 잠긴다. 향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중의 하나다. 절집 고매의 매향은 수 백년 묵은 침향의 공양이자, 꽃 헌화의 공양 예경이다. 지상의 노거수를 통한 향과 꽃의 공양은 용화삼회를 발원하며 펄에 묻어 침향을 길어올리는 매향(埋香)의식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오래된 고매 한 그루, 세세생생 향을 길어 올리고 헌화의 예경을 올린다. 절집 고매의 빛 속에 결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의 암향이 깃들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로되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cm×21cm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cm) @2,500원(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3,000원(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6,000원(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13,000원(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35,000원(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90,000원(1개이상)
• 황 금 등(6cm) @2,700원(60개이상)
• 황 금 등(8cm) @3,300원(30개이상)
• 황 금 등(10.5cm) @6,500원(16개이상)
• 황 금 등(13cm) @15,000원(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옛사람들의 道 구하며 살아간 야인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⑰ 석주 권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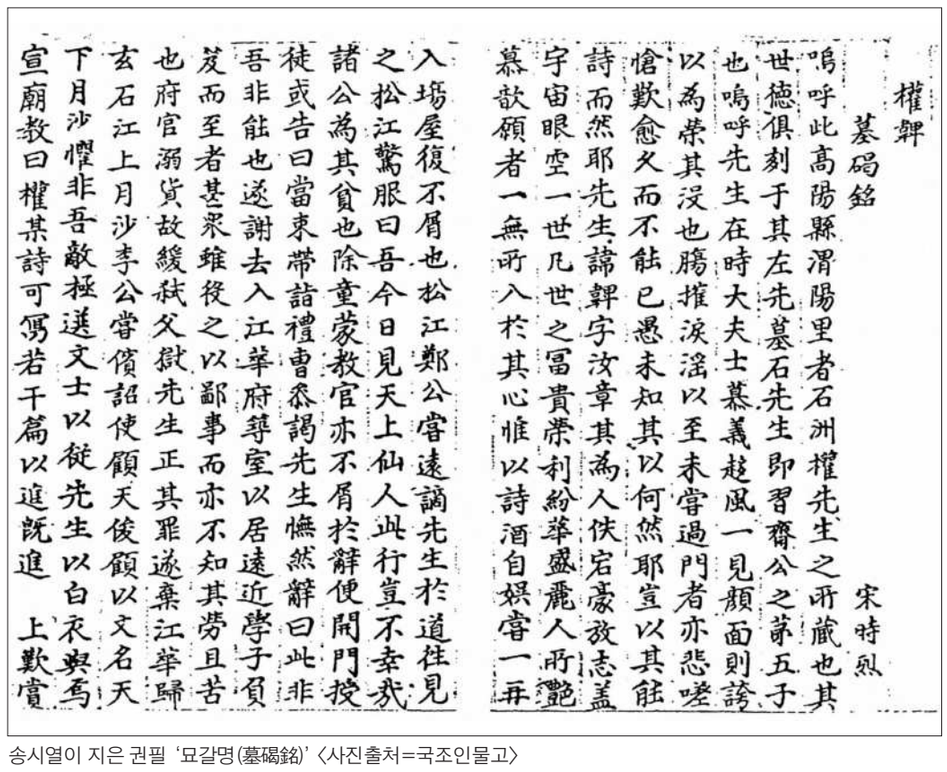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는 시(詩)로 인해 변고를 겪은 일이 흔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절창(絶唱)의 시를 남겼기 때문에 이름을 남긴 경우도 흔하다. 조선 중기에 문필가로 손꼽히는 석주 권필(石洲 權 G 1569~1612)도 바로 그런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자유로운 기질의 소유자로 구속을 싫어했다. 그는 한때 가난을 염려한 동료들의 추천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음에도 상부에 예를 갖추지 않은 채 곧바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런 그의 기질이나 "관대를 하고 예조에 나아가 예를 갖추라"는 말에 "그런 일을 잘 못한다"고 하고 벼슬을 그만두었던 그의 처세는 이미 세상과 동떨어진 생애를 살았던 그의 일면을 드러낸 셈이다. 도연명의 기개를 닮아서일까 아니면 그가 살았던 시대가 난세였기 때문일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광해군의 비였던 유씨 일족들이 권력을 전횡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유비(柳妃)의 오라버니 유희분(柳希奮)의 전횡은 도를 넘었다. 그러므로 임숙영(任叔英)이 〈책문(策文)〉을 지어 유씨 일가의 방종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과거에 떨어지는 변고가 생겼다. 이로 인해 세상의 의기있는 선비는 비분강개했다. 권필의 '궁류시(宮柳詩)'는 이를 배경으로 지은 풍자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궁궐 버들 푸르고 꾀꼬리 어지러이 나는데(宮柳靑靑鶯亂飛)성안에 가득한 높은 사람 봄 햇살에 아첨하네(滿城冠蓋媚春暉)조정에서 함께 태평의 즐거움을 축하하는데(朝家共賀昇平樂)누가 바른말 하여 평민으로 쫓겨났나(誰遣危言出布衣)

이 시에서 궁중 안의 버들은 광해군 비 유씨 친족들을 은유한 것이다. 아첨하는 조정의 대신들이야 태평성대를 감축했지만 결국 이는 거짓일 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위언(危言, 바른말 혹은 충성스런 간언)은 충심을 품은 선비의 도리이다. 바로 임숙영은 충간(忠諫)으로 평민이 된 동량(棟樑)이었음을 풍자하고 있는 셈이다. 권필은 이 '궁류시(宮柳詩)'로 모반에 연루되어 광해군의 친국을 받았고 귀양하던 길에 그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마셨으니 결국 그의 죽음은 폭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진정 술을 이기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시절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것인가. 난세의 옹졸함은 강개한 인물을 시들게 하는 함정인 듯하다.

한때 정철의 문인으로, 총망 받았던 그의 자는 여장(汝章)이며 석주(石洲)는 그의 호다. 사찰을 유람하며 승려들과 나눈 시문이 여러 편 전할 뿐 아니라 차를 즐겼던 인물이다.

송시열이 쓴 그의 '묘갈명(墓碣銘)'에는 "시재가 뛰어나 자기성찰을 통한 울분과 갈등을 토로하고, 잘못된 사회상을 비판 풍자하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평소 가난한 백성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던 그는 상대적으로 지배층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런 그의 태도는 그의 저서 〈답송보서(答宋甫書)〉에 "매번 고관대작의 집을 만나면 반드시 침을 뱉고 지나가고, 누추한 거리의 초라한 집을 보면 반드시 서성이며 돌아보면서 팔을 베고 누워 물만 마시고 있더라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을 본 듯이 생각했다(每遇朱門甲第則必唾而過之 而見陋巷蓬室則必徘徊眷顧 以想見曲肱飮水而不改其樂者)"고 한 대목에서 확인된다.


宋時烈
權韠
墓碣銘
嗚呼此高陽縣渭陽里者石洲權先生之所藏也其
世德俱刻于其左先墓石先生卽習齋公之弟五子
也嗚呼先生在時大夫士慕義趍風一見顚面則誇
以爲榮其沒也膰摧淚淫以至未嘗過門者亦悲嗟
愴歎愈久而不能已愚未知其以何然耶宣以其能
詩而然耶先生諱韠字汝章其爲人佚宕豪放志蓋
宇宙眼空一世凡世之冨貴榮利紛華盛麗人所艶
慕歆願者一無所入於其心惟以詩酒自娛嘗一再
入場屋復不屑也松江鄭公嘗遠謫先生於道往見
之松江驚服曰吾今日見天上仙人此行豈不幸哉
諸公爲其貧也除童蒙敎官亦不屑於辭便開門授
徒或告曰當束帶詣禮曹參謁先生憮然辭曰此非
吾非能也遂謝去入江華府尊室以居遠近學子負
笈而至者甚衆雖役之以鄙事而亦不知其勞且苦
也府官溺貨故緩徵父獄先生正其罪遂棄江華歸
玄石江上月沙李公嘗僦詔使顧天俊顧以文名天
下月沙懼非吾敵挺選文士以從先生以白衣與爲
宣廟敎曰權某詩可寓若干篇以進旣進 上歎賞

송시열이 지은 권필 '묘갈명(墓碣銘)' 〈사진출처=국조인물고〉

동몽교관 임명에 禮 안 갖추고
자유로운 기질로 벼슬 그만둬
충심 담은 직언에 귀양 당해도
가난한 백성에 연민 잃지 않아

아울러 〈답송보서(答宋甫書)〉에는 "장차 산야에 물러나 마음을 거두고 성정을 길러 옛사람이 말한 도라는 것을 구하고자 했다(思將退伏山野 收心養性 以求古人所謂道者)"고 하였으니 그가 야인으로 살고자 했던 연유를 충분히 드러낸 셈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가 고인의 도를 구하며 열독했던 책들은 임종 시에 그의 곁을 지켰던 〈근사록(近思錄)〉, 〈주자전서(朱子全書)〉 등이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올곧은 선비였다. 국난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의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대궐에 나아가 상소했던 일이나 일본과 화의(和議)를 주창하며 임금에게 아첨한 정승의 목을 벨 것을 요청했던 것에서 확인된다.

한편 그가 고결한 선비였음은 그의 스승 정철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바로 귀양길에 오른 스승을 찾았을 때에 정철은 권필을 보고 '내가 오늘 천상의 신선을 보았으니 이번 행차가 어찌 다행스럽지 않은가'라는 대목이다. 특히 그는 삶이 소박해서인지 몇몇의 승려들과 깊이 교유했던 흔적뿐 아니라 사찰을 유람했던 흔적을 남겼다. 그의 문집 〈석주집(石洲集)〉에 의하면 수증사(修證寺)와 백련사(白蓮寺), 영통사(靈通寺) 등을 유람하며 지은 시와 잠 스님, 원 스님, 범림 스님, 송도의 스님과도 교유하며 화답한 시가 남아 있다. 지면관계 상 다 소개할 수 없기에 우선 '잠 스님이 종이를 보내며 (그의) 시를 찾기에(岑上人送紙索詩)'라는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에 짚신이 몇 켤레나 닳았을까(平生幾兩鞋)청한한 것은 그대 혼자뿐이요(淸閑君也獨)골몰하는 것은 세상이 모두 그렇네(汨沒世應皆)피안의 세계엔 도달하기 어렵나니(彼岸難容到)진공에 어이 올라갈 수 있으리오(眞空可得階)이 늙은이는 재주와 힘이 줄어들었으니(老夫才力退)수송패에 비하면 몹시 부끄럽구나(深愧水松牌)

실로 사람은 무엇을 찾으려고 길을 헤매는 것일까. 수 켤레의 짚신이 닳아 해지도록 이리저리 찾아 헤맸던 건 아마도 뜬 구름 같은 부귀와 명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속인은 언제나 마음이 혼란하고 밖으로 향해 있는 법이다. 따라서 맑고 고요할 수 있는 건 그대 잠 승려뿐이란다. 세상일에 분주한 사람은 피안(이상세계)의 세계에 도달하기 실로 어렵다. 그런데 어찌 진공의 세계를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신은 이미 재주와 근력이 쇠락해진 사람인데도 잠 승려가 시를 청한 것은 "수송패에 비하면 몹시 부끄럽구나(深愧水松牌)"라고 하였다. 그럼 수송패란 무엇인가. 〈운산잡기(雲仙雜記)〉 '수송패(水松牌)'에 그 내력을 "이백이 자은사(慈恩寺)를 방문했을 때 천하의 문장가에게 시를 받고 싶었던 자은사의 승려는 오교분(吳膠粉)을 바른 수송패(水松牌, 소나무로 만든 패)를 이백에게 바치며 시를 청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백이 소송패에 시를 지어주니 자은사 승려는 그 답례로 현사발(玄沙鉢), 녹영매(綠英梅), 단향필격(檀香筆格), 난겸고(蘭 袴), 자경상(紫瓊霜) 등 귀중한 물품을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 승려가 권필에게 종이를 보내 시를 청한 일은 마치 자은사 승려가 이백에게 시를 청한 것과 비견되는 일임을 은근히 드러낸 것은 아닐까. 하여간 권필은 이백처럼 시에 능한 사람이 아니기에 부끄럽다는 것이리라.


석주 권필 유허비.

아울러 그는 유무에 대한 관점과 논리를 위한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그가 '법림 승려에게 써서 보이다(書示法林上人)'에서 "도란 것은 종래 의심을 풀지 못했으니(此道從來未決疑)/ 분분한 의논들 어느 것이 참임을 아는가(紛紛何者是眞知)/ 신령한 근원은 바로 기심(機心)을 잊는 데 있고(靈源政在忘機地)/ 오묘한 법은 원래 말 없을 때에 있는 법이라(妙法元存不語時)/ 유를 말하고 무를 말하는 것 모두 환망이요(說有說無都幻妄)/ 마음을 보느니 본성을 보느니 (하는 말은) 더욱 지루하여라(觀心觀性轉支離)"라고 한 대목에 또렷이 드러난다. 더구나 그는 불이문(不二門)의 경계를 "6년 동안 고통스러워 말을 잊었으니(六年辛苦已忘言)/ 모든 일이 다 불이문으로 돌아갔네(萬事都歸不二門)"라고 노래한 바가 있었으니 그는 실로 불교의 원리를 요해(了解)했던 선비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는 불교를 이해했던 선비로 차를 즐긴 인물이라 하겠다. 그가 차를 즐긴 정황은 '고석당명(古石 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연히 땅에서 묻혀 있던 돌솥을 자신의 곁에 둔 연유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집종이 밭에서 땅을 파다가 괴이한 물건을 얻었는데 (돌솥을) 두드리니 소리가 맑았다. 묻어 있는 흙 자국을 파내니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작은 돌솥이었다. 돌솥의 손잡이는 (길이가) 3촌쯤 되고 2승 정도를 담을 수 있을 만하였다. (돌솥을) 모래로 닦아내고 물로 세척하니 빛나고 깨끗하여 아낄 만하여 내 곁에 두게 하고, 차를 끓이거나 약을 달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다. 때때로 (돌솥을) 어루만지며 희롱하기를 돌솥아, 돌솥아 하늘이 돌을 만들어 준 것이 몇 해이던가. 솜씨 좋은 장인이 깎아서 돌솥을 만들었네. 사람의 집에서 사용한 지가 또한 몇 해이던가, 흙 속에 묻혀 세상에서 쓰지 못한 것이 몇 년이던가. 그런데 지금 내가 얻게 되었으니 아! 돌은 만물 중에 가장 천하고 또 단단한 것이라. 그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 사이를 셈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가장 귀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 서랴. 마침내 명을 지어 새긴다. 이 돌솥을 얻은 날은 을미년(1595) 정월 16일이고 글을 쓴 날은 정월 23일이다. 명(銘)에 버려두면 돌이고 사용하면 그릇이라고 하였다. (女奴於田中掘地 得一物塊然 叩之聲I 色D土痕剔蘚紋 乃小石也 柄三寸 中可受二升許 沙以磨之 水以滌之 光潔可愛 余命置諸左右 以供烹茶煮藥之具 時復摩挲以œ 之曰 乎 乎 與天作石者幾年 巧匠æ 而器之 爲人家用者又幾年 埋在土中 不見用於世者又幾年而今爲吾所得 噫 石 物之最賤且頑者 其隱顯之間 不能無數也如此 況最貴最靈者耶 遂作銘以刻之 得之日 乙未正月十六 銘之日 其月之二十三 銘曰 捨則石 用則器)

그가 돌솥을 얻는 해는 그의 나이 34세 때의 일이다. 차와 약을 끓이기에 알맞은 돌솥을 얻어 곁에 두고 완상하는 즐거움을 글(銘)로 지었던 것이다. 그가 돌솥을 얻는 날은 1595년 1월 16일이고, 돌솥에 대한 글을 쓰고 새긴 날은 정월 23일이었다. 일주일 만에 돌솥에 명문을 새겨 하찮은 돌이 귀품으로, 돌솥으로 거듭 변화하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해 두었다. 아! 만물은 그 때를 만날 때에 빛을 발하는 법이다. 그가 "버려두면 돌이고 사용하면 그릇이 된다(捨則石 用則器)"는 말은 그 이치를 뜻하는 것이다. 그가 초야에 묻혀 출사(出仕, 벼슬에 나아가는 것)를 즐겨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시절의 인연을 짐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여간 천시(天時)를 얻는 것보다 때를 얻는 일(得時)이라 중요하다는 말은 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던 듯하다. 그는 저술로 〈석주집〉 외에도 한문소설인 〈곽색전(郭索傳)〉 〈장경천전(章敬天傳)〉 〈주생전(周生傳)〉 등을 남겼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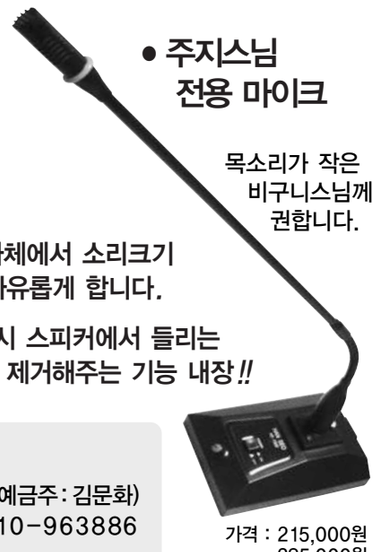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광주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18기 신입생 추가모집

◆ **기초반 1년 과정** : (평염불) 천수경 부터 ~ 지장불공, 퇴공, 관음시식, 화음시식 순으로
◆ **2 년 과 정** : 모든 재반의식(49재, 천도재, 상주권공, 범패의식, 천수바라춤, 도량게), 다게(나비춤), 회심곡, 법고무(혜공스님 직강)

지원자격	스님, 포교사, 교임, 법사, 일반불자 등 등
통 신 생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날 12시까지
입 학 식	**서기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추가등록	**2016년 4월 30일까지 등록 마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우, 502-242)
문의전화	H·P 011-624-8604 / ☎ 062-362-8604

전통의식, 범패, 상주권공, 각배, 영산, 짓소리 제대로 배워서 후계자 되실 분
기간 약 5년 20~30대 초반 돈 일체 받지 않음(절에서 함께 생활하실 분)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 **비디오, DVD 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1	대령/관욕	15	신중불공	29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게)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2	상주권공지장불교의식	16	관음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3	상용영반	17	지장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5	화엄시식
4	회심 곡(화청) 1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2	삼보통청	46	약사여래불공
5	회심곡(화청) 2	19	종사관욕	33	아침저녁종성	47	시련의식
6	구병시식	20	종사영반	34	향수해례예불	48	창혼의식
7	관음시식	21	가사불사의식	35	혼자서하는 민관욕(간단한관욕)	49	영가왕생게춤,지옥게
8	점안시식	22	신중작법39위	36	생일불공	50	49제,천도재,실기의식 1,2,3,4,5개
9	방생의식	23	간단한 신중작법	37	상주권공49제의식 1	51	20일간 상주권공 범패교육 녹음테이프 30개 판매중
10	사물 다루는 법	24	전통조석예불	38	상주권공49제의식 2		
11	안 택	25	천수경/장엄염불	39	상주권공49제의식 3		
12	시 다 림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0	상주권공49제의식 4		
13	산신불공	27	사시상단불공	41	제사불공	52	교재 2권 (1,2권) 100,000원
14	미타불공	28	작법무(복청게천수바라)	42	삼신이운		

▶ 비디오 각 20,000원 / DVD 각 25,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학장 혜공 스님

니까야서 길을 묻다 9. 오늘날 필요한 계(戒) ②

이유 있는 '소유'가 필요하다

계학(戒學)의 존재 이유가 스스로의 확신에 따라 도덕적 완성을 지향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일상의 행위를 스스로 조심하고, 단속하고, 제어하는 길로 '계학'을 정의해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계(戒)'의 의미를 본연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써, 불교 공부의 전 과정에서 계학의 의미를 밝히고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목만으로는 오늘에 필요한 계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 현실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까닭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덕성, 정신적 성숙, 떳떳함'이라는 말은 그저 위선으로 포장된 무익한 설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처럼 유례없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이니 정의니 하는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소리일 것인가를 고려하지 못하면, 이러한 현실 조건을 간과하고 내뱉는 말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지평이 보이지 않듯,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본질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지평이란 것도 그리 믿을만한 게 못 된다.



그림 · 양경수

니까야 안에서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는 '여실(如實)'의 뜻은 '있는 그대로'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을 본연적 관점에서 풀이하면 '진리, 진실'로 옮길 수 있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생긴 꼴 그대로'라는 거친 뜻으로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학의 의미와 위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불살생(不殺生)을 지키려면 모기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되나요, 적당히 술 마셔도 불음주(不飮酒) 계(戒)를 어긴 것일까요?"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중 현실적인 지점을 먼저 말하면, 이것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적어도 도심 한 가운데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때 만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할 것이다. 냉면 한 그릇을 시켜서 먹을 때 고기를 덜어내고 먹는다고 육식을 피하는 계를 지키는 것일까?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 속에 숨어 있는 근본정신을 생각한다면, 고기를 빼고 먹는 행위가 계율 지킴의 실천이 아니라,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이의 일상 속에 보이는 나와는 다른 생명이 '생긴 꼴 그대로' 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모습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갈수 있음의 인정이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평가를 '계율'이라는 잣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불살생의 의미 영역을 깊게 하고 넓혀가는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시점에 필요한 계 지킴의 그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의 지점은 다르겠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계 지킴'의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恒産) 일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恒心) 가능하지 않다는 맹자의 지적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의 편집이 의미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은 '무소유의 지향'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표현하면, '의미 있는 소유 행위'는 어떤 형태일까를 묻는 것이다.

니까야 속에서 찾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계'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일까?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비법…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1940년 대전 출생인 송석구 이사장은 동국대 철학과(박사)를 졸업한 뒤 동국대 교수, 총장으로 재직했다. 동양철학 중에서도 율곡사상연구에 매진해 율곡선생에 대한 수십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동국대 총장 시절에는 일산 동국대 병원 건립을 주도했으며, 경주캠퍼스 대학체제 개편 등에 앞장 섰다. 또 발전기금으로 725억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동덕여대와 가천의대 총장도 지냈으며, 세종시 민간합동위원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율곡대상, 일맥문화대상, 청조근정훈장, 동국청우상,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등을 수상했다.

리더에게 聽하다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前 사회통합위원장 · 前 동국대 총장)

바야흐로 갈등의 시대다. 개인 간, 계층 간, 종교 간, 국가 간 갈등 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갈등이 횡행하고 있다. 갈등을 화해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더욱 고조되어가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사회갈등지수가 2위다. 그리고 사회 관리지수는 27위 수준 속에서 사회갈등 비용이 최대 24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회 갈등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독실한 불자이자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前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 76)은 3월 8일 갈등을 푸는 방법을 중도연기에 입각한 소통에서 찾았다. 송 이사장은 사회를 이루는 인연, 그 매듭을 푸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갈등상황을 풀어나가자고 했다.

불자로서는 보현행원에 입각한 실천이란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다. 하심으로 항상 상대방을 공경하는 자세가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의 첩경임을 강조했다.

– 우리사회는 최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위기라고 진단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의 위기는 그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정신과 물질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인간은 물질에 치중한 삶을 살다보니 정신적인 삶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일반화되며 정신보다는 물질을 위주로 한 삶을 살게 됐다. 현대의 대중들은 물신주의와 배금주의에 물들어 죽어간다.

인간적인 휴머니즘, 나누고 베푸는 따듯한 인의의 마음과 평등의식, 도덕률과 같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고 있다. 승자독식의 시대가되고 인간적인 가치는 그 승자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빈곤탈출에 사회적 역량이 집중됐다. 개발독재로 억압된 자유와 권리를 복원하려는 민주화 열망 또한 강렬했다. 1990년대 이후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다양해졌고,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복잡한 갈등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권, 환경, 성평등, 지역, 세대격차 등에 대한 주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양한 가치가 춘추전국시대만큼이나 돌출되며 사회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의 근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중도연기에 대한 자각이 사라진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이뤄진다. 너가 없이는 내가 없다. 또 내가 없이는 너가 성립되지 않는다. 연기는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일즉다 다즉일이라 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중도 연기’에 기반한 ‘소통’이 답

한국사회 위기, 물질주의로 진단
“공동체정신 없어지며 갈등 증폭”
휴머니즘과 평등의식 회복 역설

중도적 분배로 계층갈등 극복
세대소통에는 민주적 결정이 큰 힘
북핵문제는 압박과 대화협력 동시에
“국민들의 연대의식이 가장 중요”

솔선수범 정신과 상호존중 강조
“보현행원 속 공경 · 참회가 단초”
말보다 뜻을 이해하는 소통법 제시



의 삶 속에 확실하다. 이러한 인식이 깨져버린 것이 갈등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사회갈등 중 특히 계층갈등이 너무나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실질적으로 계층이 있다. 인간사회에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계층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과제다. 계층이 없는 사회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계층을 좁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계층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계층의 간격이 벌어질 수록 사람의 존엄성과 관련된 인권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계층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돌아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며 자본의 격차가 심해지며 이에 따른 갈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균형을 잃고, 오히려 성장 동력도 헤치고 있다.

분배기능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이미 미국의 대공황을 거치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말해지는 자연적인 분배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다. 성장을 해야 분배할 것이 있다는 논리도 통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분배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여기서는 중도적 분배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끄는 것이다. 계량적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시간, 임금 등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덜 성숙한 우리나라에서 계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복지를 갖추는 것과 함께 지도층과 부유층의 역할, 기부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젊은 세대는 헬조선이라던지 3포, 5포를 넘어 8포세대까지 비하하고 있다. 세대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십여 년 만에 폭발적으로 세대갈등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탓이 있다. 산업화 후기로 접어들며 인력의 수요가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로 젊은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고령세대는 그 세대대로 젊은이들이 산업화 시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책적 대안은 있다.

크게 일자리와 문화, 사회안전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청년층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노년층은 은퇴를 미루는 실정이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최저 임금 수준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분업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함께 고통을 이겨가는 정책이 강력히 필요한 시대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예술, 체육 등 매개체도 필요하다. 또 젊은층이 고령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시스템 등도 도입돼야 한다.

이런 모든 활동의 기반에는 ‘연기’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펼치는 창조경제도 ‘연기’로 보면 해법이 나온다. 사회구성원들이 경제 순환의 연기적 성향을 깨닫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이를 장려함과 동시에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연기’를 자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세대 간 소통의 출발점이 된다.

– 최근에는 남북갈등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남북갈등도 대화와 협력, 압박 등의 유화와 강경의 두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로 인해 최근 북한 제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화-협력-평화-통일이라는 그동안의 통일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만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한쪽에 갇혀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다. 심각한 이분법의 오류다. 이런 결과가 개성공단의 잠정폐쇄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북 압박 정책에 매몰돼 기존의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책이 아예 묻히는 느낌이다. 남북갈등 해소,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압박과 대화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조는 유지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세분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다. 대화와 협력, 평화와 공존, 통일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필요하다.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조차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현재 통일과 관련된 과목이 전무하다. 통일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중고등학교에 통일 과목을 넣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는 국민이 돼야 한다. 통일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국민들이 많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통일에 대한 방법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미래의 사회통합, 남북통일이 됐을 때 통일사회에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사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조금씩이나마 심어줘야 한다.

국제적인 연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핵문제도 사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해결 방안이 보인다.

– 중도연기에 대한 삶의 철학이 드러난다.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개개인이 중도연기의 삶을 살기위한 보다 쉬운 방안은 있는가.

방법론으로는 수처작주(隨處作主)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임하라는 말이다. 어디가든 주인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디가든 솔선수범,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솔선수범해서 일을 할 때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항상 모든 주어진 일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모든 것들에 대해 ‘아, 이것은 내가 다가온 연기다. 그 가운데 내가 있어 살아있구나’ 생각한다.

연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주인으로서 움직여야 한다. 구더기가 독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죽으면 된장이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남을 위한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 남을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다.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상호 존중이다. 내 것만 소중하고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회 통합이 되지 않는다.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 불자 개개인들은 이러한 국면에서 중도연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보현행원에서 중도연기의 실천법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쉽게 ‘내가 모든 사람을 예경하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매 순간 ‘내가 지금 내 앞의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느냐’ 등을 돌아보는 것이다. 둘이 말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공경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행주좌와 참구하는 것이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예배하고 공경하면 내 가난함이 없다. 참회하면 업장이 붙어있을 수가 있다. 예경하고 참회하고 칭찬하면 그 공덕이 나에게로 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해소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사회 통합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원효 스님이 활약한 시대에도 공론(空論)과 유심론(唯心論) 등 각종 사상이 전개돼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왕족과 백성들의 계층 갈등이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원효 스님은 〈화쟁론(和諍論)〉에 통합의 키워드를 담았다.

원효 스님은 〈화쟁론〉에서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화쟁(和諍)’이라고 했다. 화쟁에서 쟁(諍)자를 살펴보면 ‘말(言)’과 ‘싸움(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상의 대립 갈등은 말로 인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금강삼매경론〉에는 ‘여언이 취개불허(如言而取皆不許) 득의이언 무불허(得意而言 無不許)’란 말을 전한다. 말 하는 대로 들으면 용서할 수 없는 말이라도 뜻을 잘 새겨들으면 용서하지 않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대사회에 적용해도 딱 들어맞는다. 다시 말해 소통이야말로 통합의 전제조건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직접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생각과 말하는 법, 듣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통합이 가능하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비난할 때 비난의 말만 들으면 갈등은 고조된다. 하지만 그 근본의 뜻을 이해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갈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말 뿐만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갈등도 그 근본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사회에서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갈등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 지도자층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송석구 이사장. 그가 말하는 소통 속에는 이웃에 대한 애정과 자신에 대한 성찰이 느껴졌다. 갈등고조의 한국사회, 이제는 소통이 답이다.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E 3구,4구
인지구 26E 4구,5구
연등(등표)사다리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마음이 물드는 여섯 가지 양상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가 아뢰야식으로 전환되고 생멸이 야기되는 상태를 기신론에서는 물든 마음(染心)이라고 한다. 이 물든 마음이 여섯 가지 양상으로 미세한 상태에서 거친 상태로 단계적으로 발전이 된다.

첫째는 '집착에 얽혀 물들어진 마음(執相應染)'으로 성문이나 연각들이 해탈한 경지와 보살들의 수행 계위(階位)인 십주(十住), 곧 신상응지(信相應地)에서 업어지게 되는 물든 마음이다.

둘째는 '끊임없이 얽혀서 물들어진 마음(不斷相應染)'으로 믿음이 응해지는 지위에서 방편을 배워 닦아 '마음이 깨끗해진 지위(淨心地)'인 보살 십지(十地)의 초지인 환희지(歡喜地)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셋째는 '분별지에 얽혀 물들어지는 마음(分別智相應染)'으로 계행이 완전히 갖춰진 지위(具戒地)에서 없어지기 시작하여 상(相)이 없는 방편지(無相方便地)에 이르러서 완전히 없어지는 물든 상태다.

넷째는 '객관적 형상을 나타내면서 원초적으로 물드는 것(現色不相應染)'으로서 물질적 형태(色)에 자유자재한 지위(色自在地)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다섯째는 '주관적 인식(능히 보는 마음)이 생기려는 단계에서 원초적으로 물들여진 마음(能見心不相應染)'으로 주관을 일으키는 마음이 자유롭게 된 지위(心自在地)에서 없어지게 된다.

여섯째는 '근본 움직임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원초적으로 물들어진 마음(根本業不相應染)'으로 보살의 수행과정을 마치고(菩薩盡地) 여래의 지위에 들어갈 때(入如來地) 이 물든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染心은 번뇌의 장애 지니며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수행에 따라 망념 두께 달라

전일적인 하나의 법계를 통달하지 못한 자는 믿음이 상응하는 지위에서부터 물들어지는 마음의 자초지종을 관찰해 끊는 것을 배워 마음이 깨끗한 지위에 들어가서 조금씩 무명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며, 여래의 지위에 이르러서 완전히 무명을 떠나게 된다.

물든 마음(染心)이란 망념이 일어나 마음이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잃고 오염되어 가는 단계를 원초적인 상태와 파생적인 상태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다. 상응염은 원초적인 오염이고 불상응염은 파생적인 오염이다.

본문에서 상응(相應)과 불상응(不相應)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상(知相)과 연상(緣相)이 같은 것은 상응이고 지상과 연상이 다른 것을 불상응이라 하였다.

상응이란 생각하는 주체인 마음이 지상(知相)이고 생각되어지는 대상인 객체가 연상(緣相)인데, 달리 말하면 심왕(心王)과 심소(心所)의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동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마음 자체가 깨끗하면 생각되어진 대상도 깨끗하고, 생각 자체가 오염되면 생각되어진 대상도 오염되어 둘 사이에 어떤 일치성이 있는 것이 상응이다. 불상응이란 아뢰야식이 심진여의 체(體)인 '각'과 심생멸의 상(相)인 '불각'이 각각 깨끗하고 더러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같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물든 마음은 번뇌의 장애라는 의미를 가진다. 진여의 근본지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고, 무명의 뜻을 지혜를 장애하는 지애(智)라 하였다. 마음이 물들어져 망념인 번뇌가 되면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가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를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한다. 주관과 객관이 대립적으로 서게 되고 또한 차별의식이 생겨 본래의 평등성도 잃어버린다. 물든 생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명에 있고 이 무명이 결국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애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물든 마음은 모두 심생멸(心生滅)의 이야기이다. 이 생멸을 삼세(三細) 육추(六)에서 이미 미세한 것과 거친 것으로 구분하여 말한 바 있지만 다시 세(細)와 추( )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요약하면 이렇다.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이 거칠게 나타나는 경우는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객체가 뚜렷이 구분되는 상태에서 서로 응하는 관계가 성립될 때의 원초적인 망념이 파생덕인 것으로 커진 것이다.

이른바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인 반면 미세한 것은 주객이 완전히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원초적인 생각이다.

범부는 거친 것 가운데서도 거친 것이고(中)이고, 보살들은 추중의 세(中細)와 세중의 추(細中)며, 부처님은 미세한 것 가운데 미세한 것(細中細)이라 하여 수행정도에 따라 망념의 두께가 다르다고 하였다.

보시는 지혜이자 달디 단 감로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⑪ 보시와 자비심

貪求佛智慧 心無有厭足
(탐구불지혜 심무유염족)
如是悲心施 能除無明障
(여시비심시 능제무명장)
開導愚冥者 使得智慧眼
(개도우명자 사득지혜안)
能滅諸結使 消伏老病死
(능멸제결사 소복노병사)
施與悲心俱 眾生之甘露
(시여비심구 중생지감로)

번역

부처님의 지혜를 탐구할지언정 마음에 싫어하거나 만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비심으로 보시도 이와 같다면 능히 무명(無明)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매하고 아둔한 이에게 길을 열어주고 지혜의 안목을 갖게 한다면, 능히 모든 얽어매는 것을 없애게 되리니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굴복하는 것도 없앱니다.

보시와 자비심을 함께 갖추면 중생에게 달디 단 이슬이 됩니다.

해설

여기서 '시승품제1(施勝品第一)'이 끝을 맺는다. 〈대장부론〉에서 제1품은 전체 내용의 주제이면서, 주요 내용을 게송으로 적은 것이다. 게송(偈頌)이란 외우기 쉽도록 시적 문장으로 글을 써 놓은 것을 이른다. 여기서는 5개의 글자를 4단락으로 묶은 5언4구의 문장형태로 하였다.

앞서, 저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이 육바라밀이라고 했고,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가 으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보시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바보살은 제1품을 통해 간명하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무상(無相)'의 보시다. 무상은 '무주상(無住相)'과 통하는 말이다. 무주상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자아(自我), 즉 자기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보시이다. 무상(無相)의 마음이 곧 평등심(平等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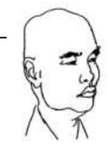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둘째, 몸과 물질로 다 보시하되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보시다. 인색한 중생의 마음을 버릴 줄 알아야 진정한 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 일체의 곳에 다 보시하되 방향과 장소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 당장에 어려운 이에게 하는 진실한 보시가 최선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일체의 때에 다 보시하되 보시하는 때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이다. 곤란한 이가 있다면 그 곤란한 이를 보는 그 순간이 바로 보시할 때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 보시를 일러 부사의(不思議)한 보시라고 말한다. 아울러 일체에 보시할지라도 그 보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보시라면 그 공덕은 겨자씨만큼의 과보만 있을 뿐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결국, 보시는 대 자비심이 동반될 때 진정한 보시의 의미가 완성됨을 역설하였다.

제바보살은 1품의 결론을 지으며 무명(無明)의 장애를 벗는 실천적 방법으로 보시를 제시하였다. 무명은 '지혜 없음'의 다른 말이다. 또한 무명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시작이다. 연기법은 무명으로부터 12연기가 일어나고, 슬픔과 걱정, 괴로움과 두려움, 싸우고 시기 질투하며, 애착을 통한 온갖 번뇌를 야기한다. 그런데, 한 방에 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보시(普施)'다. '널리 베푼다'는 의미의 보시는 지혜의 안목이자 중생에게 달디 단 감로가 된다고 역설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느질을 하며

새벽3시, 나는 바느질을 하고 있다. 어제 오후 도량에 쌓인 눈을 치우다 바지의 허벅지 부분이 5cm쯤 찢어졌기 때문이다. 낡은 옷이라 바지 안쪽에 다른 헝겊을 데고 찢어진 부분을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님께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만 돋보기 없이 바늘귀에 실을 밀어 넣는다. 신문의 깨알글씨도 돋보기 없이 볼 수 있어 요즘도 독서삼매를 즐기는 편이다.

요리학원을 다닌 적은 없지만 즐겨 먹는 미역국이 때에 따라 조리법이 진화하여 다양해진 미역국을 먹고 있다. 사자암에 혼자 머물고 있어 부목처사 몫도 공양주 역할도 나의 차지이다. 그런 만큼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어야 한다. 평소 생활신념은 게으름을 병으로 알고 있다. 하루에 한 차례 빨래하는 작업은 내게 있어 잔잔한 기쁨을 불려오는 소일거리이다. 세탁기가 두 대나 버티고 있지만, 내의와 양말 등은 손빨래하는 즐거움이 있다.

청소하는 일 또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빨래나 청소는 온몸운동으로 건강지킴이 역할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자암에는 진돗개가 4마리, 고양이가 12마리도 넘게 나의 도반이 되어 살고 있다. 시간에 맞춰 그들에게 먹이주고, 물 갈아주고, 배설물 처리하고 적당히 운동시켜 주고 그들과 노니는 즐거움이 솔찬하다.

독서를 하다가도, 앉아 졸다가도 방문객이 대화를 필요로 하면 마음을 열어 바른 불교, 바른 신앙을 이야기한다.

때로는 무너진 돌담도 쌓고, 더러는 수리공이 되어 보일러와 전기, 수도시설을 점검해가며 느긋한 일상의 여유를 즐긴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항시 밥솥에 밥을 해 놓고 오고 가는 누구라도 식사할 수 있게 김치까지 썰어 준비해 두고 있다. 밥 퍼 먹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쪽은 무료로 급식을 즐긴 자의 몫이다. 항시 라면도 여유 있게 준비해 어린아이들의 길들여진 입맛까지 챙겨야 한다. 마시는 커피, 설록차 등도 완벽하게 셀프이다. 요사채 출입문은 잠금 없이 열려 있어 종교 따위는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드나들며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다.

사자암에 머문 지 11년째, 사자암 신도들은 자기 자신의 불공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정부돈을 25억쯤 끌어들여 수도시설, 전기시설, 요사채, 종각 등을 지어왔지만, 권선문 따위는 물론 신도들의 도움 없이 진행해 왔다. 신도들하고는 상대가 누구이던 맞절하며 큰스님이란 소릴 사라지게 해 왔지만, 시장(市長)과 국회의원은 사자암 주지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사자암에 오면 주지를 큰스님이라 조심스레 부르며 어김없이 큰절을 해야 한다. 기관장들에겐 엄격하고 매서운 회초리를 든 스승으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11년 동안 대학입시 합격기도 한 차례도 없었고 49재를 쌀 한말로 통일했지만 사자암 주지는 넉넉하고 당당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 동문회에서, 인드라망 서울법당에서, 전북불교대학에서 일주일에 한차례씩 3개월을 강의해 왔지만 강의비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버리는 비움은 자유와 풍요를 안긴다
수행자는 '무소유' 의미를 살펴야 한다

버리고 비우는 가난한 삶이 더할 수 없는 풍요와 자유를 내게 안기며 잔잔한 행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 같지만 진정으로 버리면 얻는 것이다.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은 모든 수행자들에게 있어 채찍이 되고 회초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무소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인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철저한 앎(知)와 봄(見)이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남을 두고두고 잊지 말 일이다. 바느질을 하며 바늘 끝으로 담겨오는 온 세상의 넉넉함이 자유와 평화, 행복의 꽃송이로 피어오름을 느껴야 한다. 비어 있으나 가득하고 가득하나 넘치지 않기 때문이다.

(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2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 2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 2년 졸업)
- 개 강 : 2016년 양력 3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6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수강료 1년 60만원(1학기 30만원)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5352-4692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불의 이미지로 탐진치를 태우다

禪과 현대미술
⑤ 오토 피네(Otto Piene)

작업실에 등장하는 불꽃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불꽃은 시간이 흐르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 즉 물감 대신에 불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다.

오토 피네(Otto Piene, 1928~2014, 독일)은 삶의 방향에 전환을 가져다줄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미학적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사상에 심취하게 된다.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공부한 후 쾰른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도한 그는 'ZERO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불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인간이 진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또한 불의 발견이다. 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거대한 것들도 모두 사라지게 하는 위력을 가진 불은 예술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을 잉태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표현된다.

오토 피네가 자신의 작품에 불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삶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진정한 정신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던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존재방식에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무엇이 되고자 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며,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점차 정리가 되며 현실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ZERO운동의 중심멤버로 활동을 하는 그는 제로운동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ZERO운동은 예술운동이며, 문화운동 나아가서 정신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를 투철하게 고뇌하며 일상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다.

변화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과거의 가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가속력을 높여 주는 것이 예술가들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의 특성은 창의성이다. 즉, 과거에 나타난 그 어떠한 천재성도 시간이 흐르면 보편화되고 더 이상 그 천재성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 다시 새로운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의 미학에서 "예술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천재들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천재가 되는 것이다. (현재는 모두가 천재들이다)

수행자들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깨달음에 다다르면 수행의 방법들보다 깨달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천재성(깨달음)을 들어내는 것이다. 즉,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창의적인 관점들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오토 피네는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불을 선택한 것이다. 그에게 불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좋은 도구였으며 자신이 인식하는 예술의 가치를 표현하는 재료로서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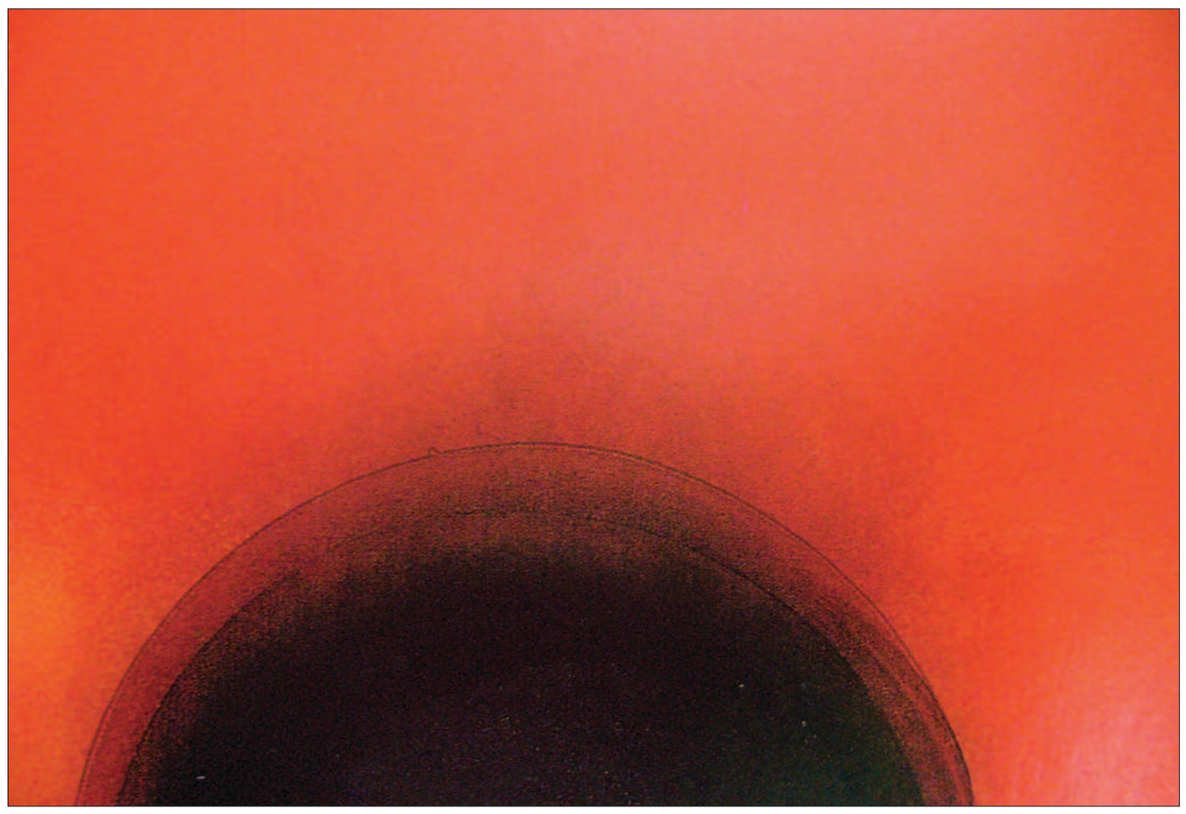
작품 활동 중 禪사상 접한 철학도
'ZERO운동' 핵심 멤버로도 참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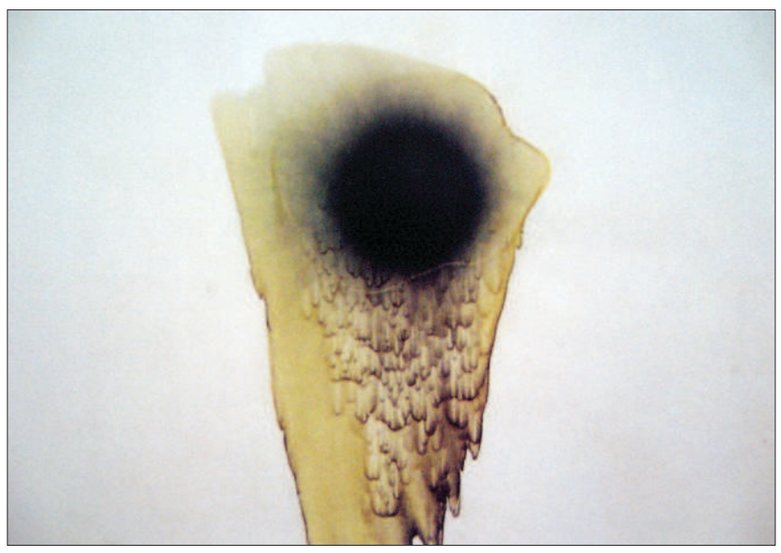
물감대신 불을 이용한 작픔 세계는
삼독·번뇌 태우려는 구도심을 의미
"삶의 존재 가치 찾아 나선 예술가
禪을 통해 세상의 평화·자유 꿈꾸다"

불은 공기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은 사라진다. 여기에서 공기는 정신성을 상징한다. 창의적인 정신성이 동반하지 않는 불은 그저 일상의 요리에서나 사용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성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오토피네는 철학적 사유를 이야기한다. 일상의 환경 속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변화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고정된 대상일 뿐이며, 우리의 삶도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 같다.

공기와 불은 항상 공존한다. 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깊은 성찰을 통한 본질적 가치를 인지하여 행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인 가치가 없이 드러나는 행위는 일상일 뿐이다. 그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동일한 예술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인 깊이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는 그저 스스로를 위한 유희일 수 있다.


오토 피네의 작품 'Die Sonnebrennt(1966).' '태양을 태우다'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작품은 불가능한 사실을 인식으로 전환하는 창의성을 보여줬다.


'Grusse Feuerblume(1965).' 꽃이 가지는 보편화된 이미지와 형상을 모두 버리고 자신이 꽃을 통하여 느껴지는 존재의 가치를 찾아 표현했다.

'Grusse Feuerblume(1965)'는 '커다란 불로 만든 꽃'이며 캔버스에 물감을 칠한 후에 불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이다. 꽃을 그리는 방법은 오랜 시간 변화하며 다양한 역사적인 꽃그림들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제시되는 불을 이용한 꽃의 이미지는 새로운 시도이며 예술가의 정신성이 들어 있는 추상화된 작품이다. 그는 실제적인 꽃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많은 예술가들이 꽃을 그리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아는 오토 피네는 자신은 꽃이 가지는 보편화된 이미지와 형상을 모두 버리고 자신이 꽃을 통하여 느껴지는 존재의 가치를 찾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교한 시간성과 불의 화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우연적인 형상은 보는 사람들에게 전혀 꽃을 연상시키지 않는다. 꽃에 대한 어떠한 관계성도 없어 보이는 작품에 작가는 왜 이작품의 제목으로 '커다란 불로 만든 꽃'을 제시했을까?

관념적인 관점에서 꽃을 생각한 관람객이라면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어렵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필자 역시 전시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 많은 관람객들은 어렵다고 생각할까? 세상에 처음부터 어려운 것은 없다. 단지 익숙하지 않고 자신이 인지하는 코드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일 뿐이다. 자신의 관념적 사고 속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을 넣어놓고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지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그 어떠한 것도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모습만 변화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만큼 모순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를 추구하던 오토 피네는 이 작품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하기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작품의 제목을 다른 것으로 했어도 그 의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Die Sonnebrennt(1966)'는 '태양을 태우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앞의 작품과 유사하게 이해 될 수 있다. 태양을 불로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작가는 불가능한 것을 하고자 하였을까? 이러한 시도 역시 창의적 사고의 발상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식적 변화의 관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현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오토 피네가 선택한 방식이다. 필자는 오토 피네의 작품들을 실제로 보면서 서양식 수행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옛 수도 본(Bonn)에 있는 독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작품들을 처음 본 순간 필자는 그가 선(禪)을 수용하여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예술의 과정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존재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다.

오토 피네를 비롯한 당시의 예술가들이 이해한 선은 현 존재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 같다. 자신들이 처한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신적인 방식을 추구하던 그들에게 선사상은 창의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사고의 전환은 대상에 대한 성찰과 관조 나아가서 표현에 대한 변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문 등에서 시작이 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인지하고 그 가치를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여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화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간화선에서 1700공안을 각 개인적 관점에서 참구를 하지만 그들이 도달하는 꼭짓 점은 하나이다. 마치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길이 수천이 되나 정상에서는 모두가 만나듯이 과정의 다름을 통하여 본질의 가치가 다르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방법을 가지고 존재가치를 논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토 피네는 지극히 이성적이며 철학적 사고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선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한 통찰력은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며 나아가서 관람객이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술을 지향하게 된다.

그에게 불은 삶의 과정에서 늘 따라다니는 탐진치를 태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의 삶의 존재가치를 찾아 나선 예술가는 선사상을 수용하며 수행자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었다.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그의 작품들은 현존하며 스스로의 삶을 관조하여 통찰하라고 하는 것 같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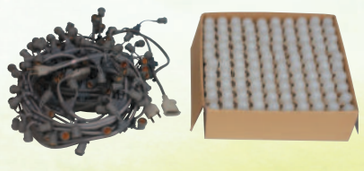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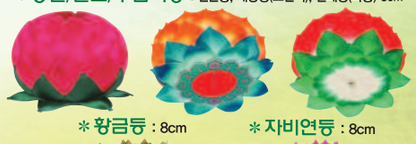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가야 공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월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사찰음식 대중화에 일조하겠습니다”

2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57명 합격

올해 사찰음식 전문조리사가 57명 배출됐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숫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받은 57명은 사찰음식 대중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2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과정은 총 71명이 응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1차 필기에 적문 · 정관 스님과 신봉규 한국외식산업연구소장, 2차 실기에 대안 · 우관 스님과 성기협 대림대 호텔조리과 교수가 참여했다. 1회 시험에는 24명이 응시해 20명이 합격했다.

이 자리에서 단장 성효 스님은 “지난해에 비해 응시자와 합격자가 대폭으로 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점차 전문과정을 활성화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찰음식을 알리는 데 나서자”면서 “아울러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정규강좌 고급반을 이수하거나 사찰음식 전문위원 스님의 강좌를 1년 이상 이수하고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사찰음식 관련 특화사찰 실무자를 비롯해 전문강사, 문화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등 우대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 3회 자격시험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봄 찾아 떠나는 남한산성 사찰림 탐방

사찰림연구소, 19일 개원사 · 망월사 등 순례

봄 꽃 소식을 고대하는 3월, 사찰림을 탐방하는 행사가 열린다.

(사)한국사찰림연구소는 오는 3월 19일 남한산성 개원사~장경사~망월사와 사찰림을 탐방하는 사찰림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찰과 숲에 관심있는 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사찰림연구소 박희준 사찰림탐방단장(대진대 생명과학과 겸임교수)의 사찰 숲의 생태와 식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남한산성 성곽길과 사찰 숲을 걷는다. 또 한국사찰림연구소 전문 숲해설가와 문화해설사도 동행해 불교와 숲, 사찰과 사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번에 탐방에 나서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에 대비해 증축한 산성으로 신라가 쌓은 주장성을 활용한 것이다. 남한산성 내에는 승병을 양성하는 9개의 사찰이 있었으며, 이 사찰들을 북사사(北四寺) 남오사(南五寺)라 한다.

이번 남한산성 사찰림 탐방에서는 9사 중 남아있는 3개 사찰을 순례하고 남한산성의 중심 산인 청량산 일대의 사찰림 모습을 살펴보고, 남한산성 내 전체 식생면적 중 20%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는 송림을 살펴본다. 참가비는 15,000원.

한편, (사)한국사찰림연구소는 2013년 창립한 산림청 등록 민간 사찰림연구기관으로 ‘공사유림산림습원조사사업’ 등 연구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사찰림탐방단 운영을 통해 사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010)9058-7734

신성민 기자

문화재 보존과학 40년, 결실을 만나다

국립중앙博, ‘보존과학’ 주제로 특별전

보존과학은 문화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학문분야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됐다.

국립박물관에서는 1976년 보존과학이 시작돼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이 같은 보존과학의 성과와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3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보존과학 40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회는 지난 40년간의 박물관 보존과학의 역사를 조명하고, 보존과학의 역할과 성과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박물관 보존과학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보존처리된 문화재 중 대표적인 문화재 57점을 선보이며, 문화재의 재료와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보조물 60여 점도 활용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에서는 박물관 보존과학 초창기의 보존처리 활동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국보 제127호 금동관음보살입상, 보물 제366호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외함 등 국보 · 보물급 문화재를 통해 박물관 보존과학 초창기의 국보급 문화재 복원과정과 유물과 당시의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는 보존과학이 여러 종류의 재질에 따라 전문분야가 세분화됐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만하여도 한 사람이 2~3종류 이상의 재질을 담당했다”면서 “지금보다 시설과 장비, 전문성이 부족했지만 우리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컸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1부 ‘우리 문화재의 재료와 기술을 보다’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해온 현대과학기술의 도입과 응용의 결과물을 통해 과학의 발전이 문화재 보존과학에 미친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금속 · 도자기 · 서화 · 목재 · 석재 등 각 분야별 대표적인 재료들을 소개한다. 그 재료를 가공하여 제작한 문화재들의 실물과 기술을 살펴볼 수 있

5월 8일까지 문화재 57점 전시
5부로 구성… 성과 · 역할 소개
금동관음상 · 감은사 사리외함 등
국보 · 보물급 문화재 대거 선봬

다. 대표적으로 금속의 누금과 주조기술, 도자기류의 동화 · 철화 · 청화기법, 서화의 배채법, 목공예품의 나전기법 등 우리문화재 속에 숨어있는 전통기술을 유물과 전시보조물을 함께 구성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 조사 연구에 X선, 적외선, 자외선 등 ‘빛’을 이용한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면서 문화재의 전통기술 연구에 많은 성과를 이룬 시기”라고 말했다.

2부 ‘병든 문화재를 치료하다’에서는 최근에 보존처리 된 유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곳에서는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의 최대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신라금관총 ‘이사지왕대도’ 등 최근의 보존처리 성과물들의 처리 과정을 유물과 처리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 내부에 보존처리실을 재현해 지금까지의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화재 치료 과정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도 볼거리 중 하나다.

3부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하다’에서는 최근 보존과학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박물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금속문화재의 부식, 직물류 피해 등 문화재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 박물관은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이번 전시에 소개하지 못했지만 보존과학 역사에서는 중요한 국보 · 보물급 문화재들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당시의 보존처리 기록을 아카이브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시기간 중 주중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전시해설을 운영한다. 주말에는 초등학생 중에서 선발한 ‘미래의 보존과학자’가 어린이들 눈으로 이해한 보존과학 해설(1일 1회, 오후 2시)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일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오후 7시)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해설을 접할 수 있다. (02)2077-900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제127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에 전시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유망전시회 선정

전시진흥회 4일 공고… 불교 분야 인정 첫 사례

불교의 전통산업 시장 확대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목표”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불교박람회)가 2016년 유망전시회로 선정됐다.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3월 4일 발표한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정 결과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불교가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이자, 불교박람회가 전통문화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전시회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불교는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적 접근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산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정은 의미가 각별하다.

현재 ‘전통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 · 진행 중인 박람회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시는 불교박람회가 유일하다. 이번 유망전시회 선정에 따라 불교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불교박람회 사무국은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불교이며, 소비자와 공급자가 자생력을 가지고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가 불교문화산업”라면서 “이런 이유로 전통문화산업군에서도 불교박람회가 가장 눈에 띄게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모습.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016 유망 전시회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어 “한국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국내 전통문화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해외시장의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질 좋은 업체들을 양성해 전통문화상품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전통문화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불교박람회의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3월 24~2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마음이 쉬는 공간’을 주제로 한국불교의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통문화의 장이 될 전망이다.

신성민 기자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서안 / 낙양 / 화산 5일
출발일 : 4월 15일
동참비 : 129만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천불 천탑의 신비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4대 불산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름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3.2~2015.3.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한국인이가장좋아하는선문답	장웅연	불광출판사
3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4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5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6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툽텐최된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9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10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차가운 공존은 불교적 의미의 공동체"

승려와 원숭이

심재관, 최종덕 공저 | 동녘 펴냄 | 1만 8천원



이 책은 '자아 윤회 감정 미학 방편 진화 문화 종교 집단 믿음 고독 원형' 이렇게 모두 12개의 키워드로 구성됐다. 자아, 윤회는 불교서 다루는 주개념이지만, 자아의 경우 인간 존재에 관한 질문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책의 시작서 먼저 다룰 필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적 불교 사상서 다루는 자아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기의 불교 사상, 불교에서 다루는 본질적인 개념과 어떻게 다루는지 차근차근 분석한다. 이어 감정과 미학, 진화, 문화, 집단, 고독 등은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생물학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한다. 삶의 이런 요소들이 각각의 분야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일상적이어서 놓치던 부분을 폭넓게 사유하도록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방편, 믿음, 원형 등 종교 일반서 드러나는 요소들을 다루며 타종교와 불교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불교를 일반적인 종교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끔 한다. 두 학자의 대담을 통해 불교를 종교 바깥의 차원서 거리를 두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종교 이상의 철학적 질문 던지는 불교

붓다의 깨달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깨달음이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오한 체험과 통찰이 그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낳게 된 것이다. 붓다가 간파한 것은 이 세계 저 너머에 다른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통찰은 당시 지배하던 권력의 당위성을 무너뜨리게 됐다. 그래서 그 위에 서 있던 힌두교의 사회 질서까지 위협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현실 종교라고 일컬을 수 있다. 지금 내 모습이 바로 나이거늘 밖에 드러난 나를 제쳐놓고 안에서만 자아를 찾으려 한들 무엇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 자아는 추상적이고 만들어 낸 자아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자아 혹은 참 자아를 찾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라고 오해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참 자아'를 찾기 위해 불교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절집에서만 쓰는 상투어구라고 볼 수 있다. 벗긴 껍질 안에 참 자아가 숨겨 있다는 생각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모습이 바로 자아이다. 감각의 다발들이 바로 자아라는 셈이다. 다른 종교가 연역적 이론 체계라면, 불교는 귀납적 행동 체계라고 볼 수도 있다.

불교와 신경생리학 지향점의 유사성

감정이 좋든 나쁘든 지나치면 번뇌의 단초가 돼 그러한 감정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놀랍게도 신경생리학서 말하는 감정에 대한 기조도 이와 같다. 생리학에서는 감정의 복합체를 마음이라 일컫는데, 몸의 피부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서 자극받은 느낌을 걸러내지 않고 쌓아 놓게 되면 결국 감정이 상한다고 말한다. 이 느낌을 걸러내는 장치가 바로 감성인데 여기서 감성은 감수성과는 다른 의미다. 일례로 요즘 아이들에

대담 통해 불교 쉽게 풀어내다

12개 주제로 엮은 불교와 과학

게 감성 훈련이라고 시키는 예술 교육은 감성 연습 중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감성 교육이란 어떤 상황서도 감정을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 처리 훈련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연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감성으로 조절되지 못한 감각들이 아무 여과 없이 수용돼 일희일비하게 된다. 그렇게 축적된 감정들은 행동을 과잉으로 유도하거나 폐쇄하게끔 한다. 슬픈 감정이나 기쁜 감정이나 감성의 피부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미조절의 감정들은 결국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불교서도 감정을 부정하진 않는다. 감정과 욕망은 피할 수 없지만 최대한 조절이 가능하도록 새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고 상호 간 욕망을 조정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의미하진 않는다. 불교는 그러한 보편주의 윤리학과는 거리가 멀다. 고통을 없애는 도구화된 방법을 적극 제안할 뿐이다. 고통을 낳는 직접적인 인과 작용의 원인을 깨닫고 욕망을 통제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불교와 진화론 간 사유 구조의 유사성

우리 몸은 60조 개 세포로 구성됐는데 인간이 갖는 세균, 즉 박테리아 수는 그것의 5배 정도가 된다. 이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 모습이다. 가령 내 몸에 있는 박테리아가 나쁘다고 해서 이를 모두 없앤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도 죽게 된다.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생명종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 진화의 소산물이라고 진화생물학에서는 말한다. 그래서 어느 생명종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생명종은 동등하기에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한다. 진화론이 시사하는 이러한 평등성과 공존 관계는 불교의 연기론과도 유사하다. 특히 '나'라는 존재가 다른 생명들과 얽혀 존속한다는 점에서 불교적인 메시지를 지녔다. 한 생명의 존재론적 조건은 모든 다른 생명에 의해 연관됐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론서 말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진화론을 크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정향 진화'다. 원시 세포가 발전해서 균류가 되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로 발전해 침팬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라는 일방향성 발전을 말한다. 이것은 큰 오류라고 진화학에서는 말한다. 진화론은 서로 갈라지면서 다양한 생명종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갈라진 종 중 하나가 호모사피엔스이다. 서구 인종학자들이 흑인을 고대 원시인의 흔적으로 간주한 것 역시 인종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된 왜곡인 셈이다.

불교와 생태학적 앎과의 유사성

앎은 불교의 특징이다. 불교서 말하는 앎은 지식과 추상적인 진리 세계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흐름이나 내 생각 밑에 깔린 인과론의 고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앎을 말한다. 그러한 현상적인 문제를 직시한다는 점에서 진화론의 생태학적 앎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이 전체에 걸쳐 어떤 관계에 놓였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것은 생태학적 관계성과도 같다. 다른 공간에 펼쳐져 있는 다른 사물, 사람, 사건까지의 관계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개체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모종의 상관성을 지닌다. 서로에게 무관하지만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불특정적인 공진화의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공존 방식을 생물철학자 저자는 '차가운 공존'이라고 말한다. 그런 차가운 공존이 결국 불교적 의미의 공동체성이라고. 그것이 불교를 '차가운 종교'로 부르는 이유이자, 타종교와는 다른 특징적인 점이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자리이타의 보살 정신 담긴 6바라밀 지침서
원효사상 전문가 공파 스님이 강의하듯 풀어써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 8천원



〈발심수행장〉은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자 해동보살로 추앙받는 원효대사의 300여 권 저술 가운데 길이가 제일 짧은 글이다. 하지만 간결한 문장 속에 불교 수행의 진수인 바라밀이 남김없이 새겨져 있어 출재가를 막론해 불교 초심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손꼽힌다. 실제 불교전문강원서 사미승들이 가장 먼저 학습하는 책이기도 하다.

총 706자의 사언절구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불교 수행을 하는 이유와 목적, 수행자의 바람직한 생활 태도, 수행자가 머물러야 할 이상적인 장소와 닦아야 할 수행법 등이 낱낱이 소개돼 있다.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불굴의 의지로 정진해가리라'는 원효 스님의 결의와 일체중생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깊은 자비심이 배어 있는 글이다.

이 책의 저자 공파 스님은 부산 원효센터서 수년간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강의하는 자타공인 원효사상 전문가이다. 스님은 이 책서 〈발심수행장〉 원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떼어내 해석을 붙이고, 거기에 담긴 함의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썼다.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등서 관련 내용을 인용해 원문을 부연하는 한편,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적절한 예시와 비유로 독자들이 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원효스님 가르침을 몸소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책 서두에 한문 원문과 별개로 독송용 글을 실어서 수행자들이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익혀 늘 가슴에 새기고 정진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라밀 수행이다. 원효 스님은 하루빨리 고달픈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부처의 길로 들어설 것을 재촉하면서, 그 방법으로 6바라밀 수행을 제시한다. 바라밀은 크게 동적 바라밀과 정적 바라밀로 나뉘는데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이 전자에 해당하고, 선정과 지혜가 후자에 속한다. 원효 스님은 동적 바라밀을 행(行)이라고 부르고 정적 바라밀을 지(智)라고 표현하여 이 둘을 함께 닦을 것을 권했다.

원효 스님은 신행이 없는 앎과 앎이 없는 신행을 경계하면서, 동적 바라밀과 정적 바라밀이 순차적이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부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약사여래의 12서원과 그 공덕 이야기

약사경 강의

남회근 지음 | 부키(주) 펴냄 | 2만 5천원



〈약사경〉은 수행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이치를 전하는 경전이라는 데 무지했기에 대중 속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기도와 염불의 대상이 된 〈약사경〉은 약사여래의 열두 가지 서원과 그 공덕을 이야기한다.

이 경은 문수보살이 발기중이 되어 석가모니부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문수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깨달은 이들의 대원과 그로 인한 뛰어난 공덕을 알려 달라고 청한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소개한 인물이 바로 〈약사경〉에 등장하는 약사여래다. 이는 과거에 보살로 수행할 적에 다음 세상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면 모든 이들을 고통서 구하고 원하는 바를 얻도록 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 그 것이 열두 가지로 요약돼 핵심을 이룬다.

저자는 깨달음은 중생을 위한 원을 세우는 것이요, 부처님의 감응은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修持)해 자신의 심리 행위를 바꿔 나가는 데서 온다고 강조한다. 〈약사경〉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한다. 중생을 위한 큰 서원, 참된 견해와 바른 지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임을, 그런 불국토를 보여 주는 경전임을 전한다.

이번에 나온 〈약사경 강의〉는 1981년 대만 시방서원(十方書院)서 출가 수행자들과 재가 거사들을 위한 강의였다. 말하자면 전문가가 대상이었다. 이 강의는 세상 사람들을 제도할 책임이 있는 출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경전을 강연할 때는 미세한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 설명하며 아울러 자신과 타인의 인생 경험을 예로 들며 경전의 뜻과 하나로 녹여냈다. 이번에도 강연 녹음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강연 당시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토피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유 마 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MoonZen Press)
☎ 031-534-3373

몽골 승려-러 지성인 사이 어떤 교류가?

매튜 킹 조교수, '몽골 승려와 러 지성인 간 학술적 교류' 연구 착수

몽골과 티베트에서 20세기 초 승려들과 유럽 지식인들 간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캘리포니아리버사이드 대학의 종교학 전공 조교수인 매튜 킹(Matthew King)은 불교 승려와 러시안 지성인들 간 교류 흔적을 발견함에 따라 이와 관련 연구에 착수, 비영리독립 기관 '사회과학조사 심의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신문 'UCR Today'는 3월 2일 "20세기 초 몽고와 티베트 불교 승려들은 유럽인들과 슬라브계 지성인들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류가 오늘날 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과학조사 심의회'는 매튜 킹 박사가 진행하는 '몽골-티베트 승려와 러시아 지성인들 간 학술적 교류 연구'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매튜킹 조교수는 사회과학조사 심의회로부터 3만7500달러의 연구지원금을 받았으며, 유라시안 '해석 공동체'를 연구할 계획이다. 그가 조사하는 유라시안 '해석 공동체'는 몽골 스텝 지대(유럽 동남부 · 시베리아)와 히말라야 고원에 있는 불교 지식인들과 유러피안-슬라브계 학자들 간의 불교사적 연구와 알타이어족의 연구를 하는 모임이다.

매튜 킹 교수는 앞으로 4개월 간 몽골 국립도서관과 가단텍친렌(Gadanteg chinlen) 사원에서 머무르며 4개의 몽골 사원에서 쓰인 4천 페이지가 넘는 경전과 몽골 정치 혁명가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럽-러시안 지성인과 몽고 지역신문인 '더 뉴 미러(The new Mirror)' 등을 통해 몽고 인민공화국에 대해 조사한다.

몽골 승려-러 지성인 교류 흔적
매튜 킹, 4개월 간 체류하며
불교 경전 · '해석공동체' 등 연구
사회과학조사회, 약 4만 달러 지원



캘리포니아리버사이드 대학의 종교학 전공 조교수인 매튜 킹(Matthew King • 사진 왼쪽)은 불교 승려와 러시안 지성인들간 교류 연구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사진출처=UCR Today

매튜 킹 교수는 "더 뉴 미러 신문에서는 몽골의 진보 · 보수 세력 승려들 간의 논쟁을 싣고 있다.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며 터키식 무덤에 남겨진 고문서 등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존재했던 과학자들과 혁명가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 제국이 몰락한 20세기 초 몽골인들은 범 몽골주의(Pan-Mongol Movement)의 기치아래 유라시아 중앙에 모든 몽골인을 포괄하는 민족국가 수립을 추구했다. 킹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매튜 킹의 프로젝트인 '오래된 제국과 새로운 추론: 아시아 내륙지방에서의 유럽 아카데미와 불교 수도원간의 교류(1911-1940)'에서는 킹 교수가 유라시안 '해석공동체'의 작업을 연구함과 동시에 아시아 문학을 연구했던 러시아 학자인 미하일 투비얀스키(Mikhail Tubyansky)와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매튜 킹은 "이 시기는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의 붕괴로 지역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고, 국가 사회주의의 불평등한 통합으로 승려들과 사원의 폭력과 탄압을 초래했다"며 "이번 연구는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흩어져있던 몽골과 티베트 지역문화와 사회주의 혁명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알타이족 언어 등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튜 킹은 2014년 캘리포니아리버사이드 대학의 종교학 전공 조교수로 부임했다. 티베트 몽골의 제국사회주의 시대의 불교 운동, 불교와 과학, 아시아 내륙 지역학 및 불교 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버나비市, 4억 원 규모 사찰에 '철거 명령'

"농업진흥지역,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
갑작스런 불합리 통보에 주지 및 신도 고초

캐나다 BC(British Columbia) 주(州)에 위치한 약 4억 원 규모 사찰이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해당 사찰이 위치한 곳이 농업진흥지역이며,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시(市)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 당국의 통보가 급작스런 결정에 따라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철거 이유가 타당치 않단 점에서 논란이 있다.

'National Post' 3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BC 주 버나비(Burnaby)시(市)는 2014년 말 익명의 제보를 받고 해당 사찰에 대한 건축물 준공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그들은 사찰에 대해 철거 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행 시점까지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런 철거 통보에 창건주이자 주지 스님인 르 투안(Le Thuan) 스님은 고초를 겪고 있다. 1988년 필리핀 난민캠프로 탈출한 베트남 출신 승려 르 투안(Le Thuan) 스님은 2002년 약 95만 달러(한화 약 11억5000만 원)를 주고 버나비 시 지역에 위치한 땅을 매입, 사찰 · 홀 · 다이닝룸 등을 차례로 지으며 건물 규모를 확장했다. 이에 사찰은 현재 정기 법회에 100여 명 이상, 특별 행사 때는 1,000여 명 이상 방문할 만큼 성장했다.

'National Post'는 "시 당국이 철거 허가서 없이 일부 구조물을 무단 철거한 후에야 비로소 스님과 신도들을 법정에 소환했다"면서 "현재 스님은 사찰로부터 100km 가량 떨어진 칠리웩(Chilliwack) 지역에 임시 거주 중이며, 불상을 비롯한 사찰 재산들은 프레이저 강(Fraser River) 인근에 흩어져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철거 방침은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상 이용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한 다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원인이다.



버나비 시(市)가 베트남 출신 르 투안 스님의 사찰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National Post'는 "투안 스님은 농지보존지역의 일부에 블루베리 등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며 "그는 사찰 운영과 농업 지역을 세분 · 이용하고, 시 농업토지위원회로부터 토지이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00m 인근에 중국계 복음 성경 교회, 200m 이내에 크리슈나 힌두교 사원이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원에 대한 철거 처분을 수용키 어렵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National Post'는 "주변 토지의 상당 부분이 골프장, 야구장 등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나비 시는 자진 철거 기간 120일을 연장 부여할 뿐 다른 대안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깨달음으로 가는 불서 12권

허핑턴포스트, 초심자 위한 불교도서 소개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불교는 종교의 기초적인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대표적인 경전이 없다. 사람들이 오늘날 '불교'라고 부르는 것은 선불교부터 대승과 소승불교에 걸친 생각과 철학을 모두 일컫는 것들이다.

이에 허핑턴포스트는 불교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영어로 된 불교 스테디셀러 12권을 소개했다. 이 중에는 한국어 버전으로 출간된 책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

틱낫한 스님의 저서로 불교 핵심을 소개하고 있다. 사성제, 팔정도에 관한 이야기와 열반으로 가는 3가지 문,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Real Happiness〉

명상 수행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읽어야할 필독서다. 샤론 살즈버그는 미국를 대표하는 1세대 여성 명상 지도자다.

〈On The Path To Enlightenment〉

과학자 출신의 마티유 리카르 스님의 선집으로 역사상 유명한 불교 스승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다. 책에서는 마음, 이타주의, 명상, 내 앞의 장애와 역경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Zen Mind, Beginner's Mind〉

한국어 버전 〈선심초심〉은 일상 속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스즈키 순류 선사는 처음으로 서구에 동양 불교의 선사상을 소개했던 인물로 선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다. 내용은 쉽고 단순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을 다고 있으며, 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와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When Things Fall A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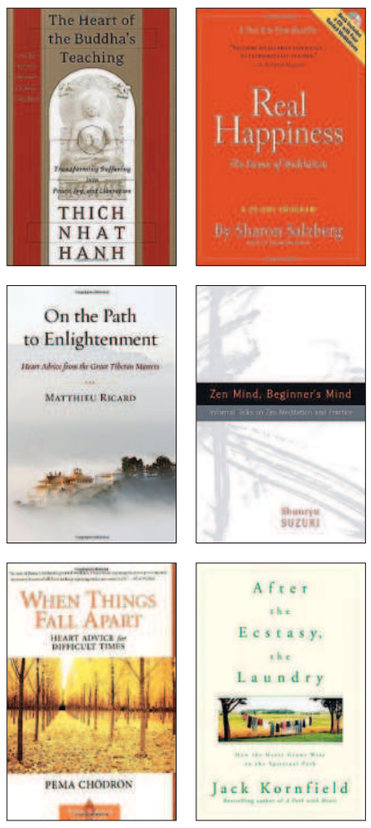
한국어 버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는 티베트 불교계의 대표적인 여성 승려이자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인 페마 초드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0여 년 동안의 강연을 묶어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삶이 혼란스럽고 힘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위안이 될 것이다.

〈Radiant Mind〉

진 스미스가 불교 가르침과 경전의 핵심 등을 모아 만든 책이다. 책에는 달라이라마, 틱낫한, 잭콘필드 등의 설법을 담고 있다.

〈Being Upright〉

저자 랩 앤더슨이 선불교의 기초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10가지 계율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책은 자비심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윤리적 실천법을 제공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불교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영어로 된 불교 스테디셀러 들을 소개했다.

〈The Poetry Of Zen〉

샘 하밀과 JP 시든이 공동 저술한 책으로 20세기 초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읊어지던 선시(禪詩)를 소개하고 있다.

〈After The Ecstasy, The Laundry〉

한국어 버전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은 수행과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들을 담은 책이다. 수행의 각 단계마다 몸과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현상들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The Illustrated Encyclopedia Of Buddhist Wisdom〉

삽화로 구성돼 있어 초심자들에게 유용하다. 싯다르타 왕자와 불교의 전파, 불교 고승들의 가르침 등을 담고 있다.

〈Nothing Holy About it〉

선 불교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당신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불성은 바로 당신 앞에 있다"고 말한다.

〈Mindfulness In Plain English〉

우리는 '마음챙김'에 대해 많이 들어봤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Mindfulness In Plain English〉에서는 핵심적인 안내와 마음챙김 지도를 함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일본 직수입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탐욕에 비유될 만큼 격렬한 불길은 없으며 분노에 비견할 만큼 강한 악력(握力)은 없으며 어리석음에 견줄 만큼 촘촘한 그물은 없으며 애욕보다 더 빠른 물결은 없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51-245-5353
010-4876-5353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 학 마 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병신년을 맞이하여
저희 농장에서는 15년간 온 정성을 다하여 키워 온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유명한 관상수(주목)를 각 사찰, 암자 스님, 불자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용도:경내에 수호목, 수목장, 산신각
약사사 010-5457-3344. 041-942-3399. 010-3466-2470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사용 달마도
40cm*62cm 한폭 6천원
불사용 선물용 달마도가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달마도를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051-202-8770 /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청암달마원
10장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 넣어드립니다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 너 지 힐 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運을 올리는 작명, 개명
• 이름과 숫자(은행비밀번호 등)가 運命을 좌우한다
• 아폴로13호 : 고장으로 귀환
• 2016년 5월 : 괴변이 예상됨
• 신생아는 진용일, 진용시에 출생신고 하여야 運이 크게 올라간다
작명제일 용님선원
010-2849-3858

법납 40년,
속납 68세 비구가
마지막 봉사하고자 함
010-3221-08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춘천)
010-8958-87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불로동)
010-2515-0664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남 장흥)
011-596-474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60대 초반 비구승입니다. 스님 안계신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010-4936-9929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기 문 둔 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출장강의 가능,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주역 성명학으로 평생 운을 본다!!
보기 정7 주5 영7 鄭19 周8 永5
초년운.청장년운.말년운 진위뢰.뇌수해.뇌천대장
초년운.청장년운.말년운 화풍정.화지진. 화택규
※ 한글,한문 이름을 주역괘로서 평생운명을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성공,행복,실패,고통 등의 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성명학으로 "불행을 행복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 (배우실 분 : 1개월 주역으로 신수,월운,일운 보는 법도 동시에)
효도역학 010-4007-9057. 02)416-2537 팩스겸용
(송파 신천역 4번출구 버스정류장 앞 골목길 50m 큰손닭한마리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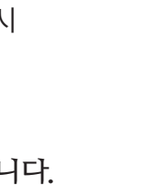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공양주 1명, 처사님 1명
(충북 단양)
010-5960-2085

불교실전의식 학인 모집
범음.범패.작법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수복불교대학에서는 포교활동 및 포교원.
사찰개원을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각 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와 교학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1년 과정)
◇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
◇ 천도재. 49재
◇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등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홍고 등)
◇ 기초교리 및 교학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장 소 : 수복불교대학
※ 1년 수련 후 법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수 복 불 교 대 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7-49 (이수역 10번 출구 부근)
연락처 : 명선 010-8588-2816 / 묘련 010-2250-7499

이것이 정통 풍수다!!
※ 산승이 수십년간 산야를 섭렵궁구해오다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짚어내며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태극혈맥지리에 달통 전수코자 합니다
방술회원 모집
◆모집자격 : 위 원리를 꼭 달통코자 할 분만 덕숭산 방술(평생)회원으로 접수 합니다.
◆강 습 장 : 절로암 참설당과 덕숭산내 간산실습장
◆강습일정 : 3월초부터 강습예정 (혈맥이론 실습 병행) 수시강습(1:1 집중강습) 정기강습 및 간산 (월1~2회)
◆회원가입비 : 일정의 시주금(천년마애삼존불사)
◆교구재 무료제공 : 부교재, 패철, 혈맥기봉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1 (광천리 866)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 천 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음욕(淫慾)은 불보다 뜨겁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이 없고, 애정의 흐름은 물보다 빠르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부산시내 전통기와 사찰◀
- 위치 : 부산역 부근
- 총부지 : 230여평, 주차장 40여평
- 건물 : 법당(25여평), 요사채(방10개) 별채주택(전세 5천 받고 있음)
- 인수가 : 3억 3천만원(대출 4억 2천)

051-863-6622

▶시장부근 토굴◀
- 위치 : 통영(통영 중앙시장 3분거리)
- 총부지 : 약 100평(2종주거지역), 주차가능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 기타
- 양도가 : 1억 2천만원

010-3560-8522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보유 사찰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공주시 추천암자 안내 (www.이박사.com)

- 요사채 90㎡, 토지 660㎡
- 남향으로 좋은터
- 마곡사 IC부근, 산중조용하고 기도암자로 적당함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건물 리모델링함. 주차장 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대지 : 65평 ◎ 대지 : 22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 5천 ◎ 양도 : 7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 금정산
- 대지 80평, 법당24평, 요사채 22평, 산신각
- 정남향 뒤는산, 위치좋은 암자
- 가액 : 은행안고 2억 1,000만 인수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 조립식 16평
- 요사채 : 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공주시(급) 토굴

갑사 방향 산속토굴
- 토지 1600㎡, 건물 80㎡
- 산중이며 주변에 마을없어 조용함
- 기도토굴, 깨끗하고 주변환경이 수행하기 좋음
- 가액 : 1억 1천만원 (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교통 10분대,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 : 벽돌조 독채 104.54㎡(32평)
- 대지 : 대로변 311㎡(94평)
- 문중개인소유(도지료 년35만)
- 내용 : 법당, 거실주방, 방2, 세면장 화장실
- 면소재 2차선 대로변 남향
- 교통좋은 포교지 법당 넓음
- 가액 : 4,800만원, 건물 개인등기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 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연등,집기일체,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 평수 : 145평, 2층 전체
- 구조 : 주지실(욕실) 다실 외 방 3개(엘리베이터)
- 가액 : 1억 2천만원 월200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44-9097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 3층 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약사여래불 및 일광, 월광 보살, 신중, 산신, 용왕,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8765-26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내 요지
- 평수 : 50평 3층 중1층 주차완벽
- 오존불,소불 등 각단 평화 시설완벽
- 쑥뜸질방 2개, 쪽방2개 부엌겸 거실 큼
- 인근 5일장 새벽시장 3분거리
- 스님 환영,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2565-7200

마음편한 시골집

- 위치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지
- 총 746평(대지 423평)
- 주택 25평 (등기필)
- 상수도, 전기, 지하수관정, 해우소
- 마당까지 포장, 20대 주차
- 가액 : 9,500만원
- 사찰불사 가능

010-4591-6200

도심속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지하철 걸어서 5분소요 버스는 1분정도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 사용공간 : 약 20~30평 공간있음, 세면실 별도 방 총6개<2개는 햇빛이 들어오고, 문열면 바로 밖> <종무소 친견실(넓음)>, 스님방, 빈방 3개, 다용도실 (넓음)
- 관리비 한달 50만원 가량, 주차는 얼마든지 가능
- 인체리어 시설완벽
- 부산시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넓고 큰 본인 사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및 전세"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 8천에 월 100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2천만원(가격절충)

010-4564-8108
010-7161-2108

아늑하고 양명한 절터

- 남쪽지리산 성짓골을 차지하여 양쪽으로 개울이 흐르고주봉에서 꽃잎처럼 둘러쳐진 산자락이 매우 양명하고 아늑한 중간사찰의 부지(2천5백여평)임
- "한국서정시연구회"를 검색하면 다음지도에 위치가 나옵니다
- 가격은 10여 년 전 가격 그대로 3억 5천에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4920-3203

은거토굴 안내

대명당
- 위치: 대구 동구 팔공산 중대동
- 평수 : 대지 200평, 2층건물
- 방3, 거실, 주방, 정남향
- 대명당에 기운으로 행정고시 2명 배출한 터입니다.
- 가액 : 5억 8천만원

010-9355-1779

포교원 안내

- 위치:창원시 마산합포구 사보이 호텔옆
- 평수 60평, 5층건물중 낮은 3층
- 방3개, 화장실, 법당, 베란다
- 겨울난방, 여름난방 필요없음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6208-5555
055-242-655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 종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5천 (스님 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300평, 대지 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가격조절가능)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삼량진역에서 10분거리
- 경관 아주 좋음
- 대지 230평, 건평 75평(법당)
- 큰방 4개, 다실 1개 거실 및 주방(현대식) 심야전기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547-1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 심야전기 2대
- 삼존불 영가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소양길 22-31
- 대지 1,240평, 산신각, 미륵불 있음
- 요사채 없음, 암반수, 전기시설
- 가액 : 7,000만원

010-3763-280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2-60 (상계로 13-6) 4호선 당고개역 바로 앞, 재개발 구역
- 지하 1, 지상 2층 단독주택(토지건물 포함)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763-28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 평수 : 80여평
- 3층 건물내 3층 전체 사용 독립 계단,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3,500만원
- 인천 지하철 2호선 정서진역 1분거리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2793-6199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구미산, 대지 64평(건물포함)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부시외버스 정류장 부근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영단 소불 냉난방
- 조명 음향 시설 등 완벽 약 25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방 없음, 시설비 1200만원
-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안내 방문후 조정 가능

H·P 010-2500-151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5018-33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0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부산진구 임법당
- 대지 281㎡(시유지 약 60㎡) 합 341㎡
- 법당, 산신전, 노천대불, 방3, 공양간, 현대식부엌
- 작지만 불사하기 좋은 곳
- 잔디정원, 조그마한 텃밭, 주차가능
- 등산로 입구,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4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51-861-2233/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중랑구(유림시장)사거리
- 2층, 약 30평
- 삼존불, 신중, 집기
- 가액 : 보증금 2,000에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가격절충)
- 철학, 포교 활동하기 좋은 곳

010-9598-5757

부산역 앞 사찰 안내

- 위치: 부산역 앞, 대지 660㎡
- 건물 : 기와법당 외 스라브 3동
- 사찰시설 아주 잘 되어 있음
- 오래된 도시중심 사찰로써 모든 행사 가능
- 스님 급한 사정으로 매수 조건 아주 좋음
- 가액 : 7억

010-2864-1951
대한공인중계사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45번길 29
제 26470-2015-00126

포교원 안내

-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60평,법당 30평, 방 2개,
- 공양간 법당과 공양간 분리되어 있음
- 4층건물중 4층 (옥상사용가능)
- 가액: 전세 500만원, 55만원
- 시설비:1000만원(원불,인등)
- 불사 이전관계로~

연락처 010-6416-558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요사채 10평, 후원 8평
- 가액 : 1억 3천 500만원

010-6505-8004

사찰 및 기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산(국유지)
- 건물 : 건물 등기 24평 실평수(50평)
- 방5개, 주방, 전기, 수도 완비
- 자연경관 수려함, 큰강변 국도에서 진입
- 가액 :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3588-81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가격 절충)

010-2384-032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9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 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4370-007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 토지 315평
- 건물 요사채 40평
- 법당 20평
- 종각 일주문 및 사천왕
- 가액 : 3억 5천만원 상담후 금액 조절가능

017-488-190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337㎡ 토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486㎡ 땅
- 저수지가 있고 마을의 끝집이며 7년째 스님들이 정진하고 계신 토굴
- 가액 : 합 8,500만원

010-9430-8833

암자(급)안내

- 위치 : 합천 해인사 위쪽 도솔암
- 기도처, 155평, 요사채 1동, 법당포함
- 도로포장 잘되었음
- 임산 배수로 경관이 좋고 800고지에 차량출입가능
- 심야전기, 지하수 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

010-3900-30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 2개, 화장실
- 총 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소재
- 대지 220평 법당 15평, 요사채(공양간), 법당 옆 방2개 있음
- 가액 : 5700만원(집기포함)
- 즉시 법회가능

010-6241-8499

대구 포교원 임대

- 삼존불 지장 신중 탱화, 와국부처님 2분, 소불 60분
- 1층 넓은거실, 큰방1, 화장실1 2층, 법당, 스님방1, 작은거실
- 주방, 화장실, 냉온방기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500만원, 월35만원 시설일체 2,300만원

010-4296-8200
054-954-090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경주남산이 한눈에 사찰터

- 위치 : 경북 경주시 충효동
- 부지 600평(황토)
- 부대시설물 조립식 20평(2동) 40평(2동), 주방40평 방5개 화장실, 산신각
- 경내13자 약사미륵대불
- 주변물흐름도량경관수려
- 경주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명당자리

010-6327-1589

토 굴 팝 니 다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면사무소에서 3.6㎞)
- 건물 : 30평(목조기와) 대지 : 100평
- 금액 : 1억 5천만원
- 위치 : 문경읍 관음리(문경온천에서 13㎞)
- 건물 : 10.5평(목조강판기와)
- 부지 : 82평 ● 금액 : 7천만원
- 기타 : 석항톳산은 백두대간 문복대가 주봉이며 650고지 관음리는 2차선에서 200m 진입주변 민가 5동 있음

010-8555-44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 답사 후 절충

010-4646-3638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 로젠버그 · 로라 짐머만(명상 지도자)

〈6〉 관계에서의 호흡 명상

세상 만물 끝에서 無常을 보다



관계 바라보기 수행

수년 전 태국의 숲 속 전통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숲이라는 곳은 소풍을 가거나 식물이나 버섯을 찾으러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발견한 것은 뱀, 벌레, 그리고 엉킨 나무 덩굴이 가득 찬 정글이었습니다. 나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 곳에 소풍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국의 스승에게, 당신은 태국의 '정글' 전통으로 가르치지만, 나는 케임브리지 정글 전통에 따라서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임브리지? 그곳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 큰 도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정글은 뱀과 야생동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정글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계에 깨어있는 수행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파트너, 아이, 동료, 이웃, 그리고 낯선 사람 등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강력한 법(다르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삶을 편안하고, 유용하고, 평화롭게 해 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깨어있는 수행은 전통 수행만큼이나 법에 맞고, 잠재적으로 자유로움의 힘을 가집니다. 물론 호흡과 함께하든 아니든 간에 깨어있기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기를 관계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은 관계에 깨어있기 수행을 제대로 된 정통 다르마 수행이라고 받아들이기를 망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타인과 함께 합니다. 의문을 던지고 탐구해 보기를 권하는 〈깔라마 경〉의 정신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타인에 대한 조건화된 습관적인 반응, 특히 가장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잘 살펴보고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나요? 비판이나 비난 없이 배울 수 있나요?

호흡은 늘 우리와 함께하지만 관계에 깨어있기 수행법에서는 호흡에 늘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너무나 빠르고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수행자들도 경험상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관계 수행을 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호흡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호흡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주 빨리 변하는 인간관계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호흡 알아차림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흡 알아차림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와 아닐 때를 잘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음이 더 명징해지는 데 호흡이 도움이 된다면, 관계에서 호흡 알아차림이 유익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아는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관계 수행을 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에서 호흡을 내려놓으면서 좌선을 하듯이 관계에 깨어있기 수행도 종종 이런 방향으로 수행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나와의 관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 깨어있기는 자기중심적 현상을 드러냅니다. 자기중심적 현상은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깨어있기는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조건화를 벗어난, 순냐따(sunnat?, 空) 즉 텅 빔, 또는 삶에서 드러나는 고요로 데려다줄 수 있습니다.

대개의 수행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수행에서 관계를 빠뜨리면 그 수행은 의미가 희석되고 제한적인 가치만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은 가족, 직장, 심지어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수행을 잘하는 제자들조차도 관계에 깨어있기를 하기 시작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수행법은 관대하고 느긋하게 이완된 상태에서의 인내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에서 호흡하면서 단순히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았나요? 이제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관계라는 가장 복잡한 상황의 열기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절친한 관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모든 순간을 뜻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 자연, 예술, 그리고 관념과의 관계까지도 전부 포괄합니다. 제일 처음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은 관계입니다. 심지어 혼자 좌선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과 몸이 움직이는 방식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와 배움은 같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관계 수행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학습 가정입니다.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 수행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수행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태도는 비판에서 이해로, 조건화된 습관적인 반응에서 신선하고 온전한 반응으로 변화하게 해 주는 무한한 원천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은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매달리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명징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관계 수행을 기꺼이 온전한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수행자들은 배우자나 자녀, 직장 동료와 평화롭고, 편안한 관계를 맺게 되면 만족해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심리적이고 영적인 성장의 길로 향하는 귀중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이 관계에 깨어있기를 활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깊은 내면의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말하자면 본래 마음이 가진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축적되어 온 조건화된 업습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건화된 과거의 업습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동으로 각자에게 이로운 단추를 누릅니다. 서로의 이기적 습관 때문에 대립과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전에서 붓다는 고통의 뿌리는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은 갈망과 집착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사성제를 깊이 탐구해 보면 욕망하는 것도 바로 나이고, 놓아 버림에 저항하는 것도 나라는 것을 봅니다. 다르마 수행은 자아를 버리거나 또는 자아를 넘어섬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삶 대부분 타인과 함께해
"친할수록 잘 살펴보는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닌
자연 · 예술 · 관념과 관계 포함
제일 처음은 자신과의 관계로

대부분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곳, 그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 나의 친숙한 걱정, 불안, 열망, 상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야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모범적인 파트너, 친구, 또는 고용인으로 여깁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희망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만남에서 이러저러한 성향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모순들이 널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에너지의 역동적인 다발들이고 이것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 깨어있기가 깊어지면 자아의 개념이 변화합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음이 스스로 만드는 이미지와 꾸민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삶'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불교 전통은 이런 실체 없음, 또는 공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법(다르마)의 최고 보석입니다. 무엇에 대한 공일까요? '나' 또는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공한 것입니다.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3단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에서 우리는 집중 수행에서 볼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의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그 힘과 아름다움을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런 고요함은 그 성질상 무한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동료와 고용주 그리고 버스 운전사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에 퍼져나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고요한 마음의 성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 고요한 마음은 틀림없이 지혜와 자비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라봄의 에너지가 아무리 명징하다고 해도, 스스로가 삶속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자비롭다고 해도, 매 순간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카르마의 법칙은 쉬지 않고 인간의 만남에서 작동합니다. 어떤 경우 지혜롭고 유익하게 보여도 다른 경우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보고 익혀야 합니다.

실수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나쁜 상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도 배웁니다. 안 좋은 경험도 이전 습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조건화된 업습을 정리하고, 이를 교훈 삼아 더 이상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익힐 기회가 됩니다.

틱낫한 스님은 경험을 비료에 비유했습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을 쓰레기 다루듯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반응을 쓰레기라고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하면 유기농 비료가 되어 채소를 무럭무럭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에서 배우고 어리석음과 지혜의 부족을 보면서 더욱 지혜롭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를 바로 보거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역시 지혜롭게 되지 못합니다.

순례의 길은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있습니다. 그곳이 진정한 여행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호흡은 내면 여행을 도와줍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호흡에서 내면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에서 벗어난 마음을 더 많이 잡고 보기 위해서 호흡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붓다가 남긴 다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방법 없는 방법, 또는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등입니다.

붓다는 한 개인의 삶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붓다는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하고,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와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 인간이었습니다. 나에게 붓다는 삶의 안내자이고, 다행히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끝〉

이 글은 〈호흡이 주는 선물〉(나무를 심는 사람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한자리를 찾아서

오늘도 불가(佛家)의 종소리에 눈을 떴으니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는 것이리라. 어제의 다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육신의 모두를 길 위에 내려놓고, 한자리를 찾아 길은 다시 시작되었다. 길 옆 숲에선 여전히 기적이 멈추질 않고, 길 위의 일 보 일 보에는 여전히 한자리가 없어라. 기적의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이마의 흙을 닦고, 바람이 지나간 이마엔 다시 흙이 쌓인다. 그렇게 수없이 기적이 지나가건만 길 위에선 일 보 일 보 길이 또 사라져간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가족 소통법 ③

해선 안 될 표현들-5대 악성표현

표현에도 공식이 있다. 아무리 소통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표현은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악성표현이 그것이다.

악성표현의 예는 수없이 많다. 불필요한 말을 계속 늘어놓는 수다형 표현, 말만하면 불평을 쏟아내는 불평형 표현, 거지처럼 계속 궁상만 떠는 궁상형 표현, 말하는 내내 자기자랑만 늘어놓은 자기과시형 표현 등 악성표현은 우리들 주변에 차고 넘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악성표현은 5가지가 있다.

첫째, 사오정형 표현이다.

예를 들어 사오정1과 사오정2가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치자. 사오정2에게 사오정1이 먼저 말을 건다.

사오정1: 사오정2야, 너 목욕 가니?

사오정2: 아니, 나 목욕 가.

사오정1: 응, 그래. 난 네가 목욕 가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엉뚱한 말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다.

둘째, 한풀이 표현이다.

어떤 친구가 찾아와 내 남편이 맨날 이러저러해서 못살겠다고 1분 정도 하소연하자 "응, 많이 힘들겠구나"라고 대꾸한 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쩐 줄 알아?"라며 자기 남편 타령을 10분 20분 해버리는 경우다. 모처럼 친구를 찾아와 자기 속마음 좀 알아달라고 남편 타령을 좀 했는데 오히려 자기 한풀이를 더 해버리는 이 친구에게 그 친구는 다시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것이다.

셋째, 충고형 표현이다.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악성표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찾아와 "시골에 사시는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이러저러해 죽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자 위로는 못할망정 "그런데 어쩔 것이냐. 네 시어머니가 너처럼 많이 배우기를 했냐, 도시 생활을 많이 하기를 했냐" 하면서 충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 충고받길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상대방이 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충고를 해선 안 된다.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이와 관련해 "충고는 인간의 주체성을 없앤다. 해답은 자기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넷째, 일반화 표현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K대에 합격해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자랑 좀 하자 "정말 축하한다"면서도 "그런데 말이지 아무개 딸도 K대 들어갔데. 아무개 아들도 K대 들어갔데"라고 그 상황을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을 말한다.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아들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너도 나도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하니 그 친구는 당신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는 비교 표현이다.

우리 아들이 K대에 합격해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하자 "아, 그랬니. 축하해"라면서 "그런데 말이지 아무개 딸은 S대 들어갔데"라고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약 중에서도 사약이다. 아마 아들자랑 좀 했던 친구는 그런 식으로 비교 표현을 해버린 친구와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소통 중요해도
잘못된 표현은 경계해야
무심결에 범하기 쉬워
긍정 · 존중하며 표현할 것

"내 사소한 표현 하나로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

이상 5가지 악성표현을 '5대 악성표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악성표현은 충고형 표현이다. 무심결에 우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들의 대인관계는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 인간사 모든 문제는 어쩌면 이 같은 표현의 잘못에서 빚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표현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 표현의 질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잘못된 표현은 부부간은 물론 부모와 자식, 나와 이웃 관계에 있어 반드시 고통과 전쟁(싸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웃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는 부처님 말씀도 그런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속담도 표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이른 말이다.

사실 사는 것 자체가 다 표현이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들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전부 내 삶의 발로다. 그러다보니 내 사소한 표현 하나가 1 ·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로또복권과 같은 큰 행운을 안겨다주기도 한다.

일례로 50여 년 전 모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가 어느 날 아침 대갑부가 된 이야기는 아직도 재벌들 사이에서 은밀히 회자되는 미담이다.

그 당시 국제학술회의 참석한 모 교수는 이슬람권에서 온 학자 한 명이 발표하는 논문을 다 듣고 난 뒤 그 학자에게 다가가 "오늘 발제 논문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고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그런데 귀국한 뒤 일주일 후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 모 교수님 되시지요.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제학술회의장에서 제 논문이 감동적이었다고 칭찬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 월급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석유장사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 이슬람권 학자는 다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였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처럼 작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표현에서 형성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선 '공감의 마술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맞설 수도 있을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럴 때에는 긍정적 에너지와 존중이 가득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표현의 방법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일수록 표현의 중요성은 더 크다. 가깝고 소중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알아주고 더 공감해주고 더 이해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삶의 묘미이기도 하다.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행 스님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려면

질문 "생사윤회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어떤 스님께 질문을 드리니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아야 내가 공해서 나 밖의 외부 세계도 없고, 외부 세계가 없기에 이 세상이다 저 세상이다 하는 구분마저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알쏭달쏭합니다. 이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까요?

답변 불법이라는 것이 밥해 놓고 떡 해 놓고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하고 또는 점을 치고 이러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자신이 바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자연의 '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과 선을 다 몽땅 공에 놔버린다면'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지만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습니다.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말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알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부처는 수만 개가 됐다가 또 수천 개가 됐다가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타의에서 구하고 타의에서 찾고 또 부적에 의존하고 남의 말에 의존하는 그런 습성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습성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우리가 껍데기를 벗는다 할지라도 그 습이 남아 혼이 돼서 유체로서 남의 집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남을 해치게 되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선으로만 생각해도 선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악에 치달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겠지.' 하는 것도 걸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함이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러는 마음을 갖는 것도 바로 걸리는 마음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마음도 없고 잘하고 있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았을 때에 바로 더불어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몽땅 놔 버려야만 하는,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한 그 뜻을 안다면 바로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같이 공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와 같이 죽어서 같이 나투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열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거침없는, 걸림 없는 활용으로 서로 상응케 하면서, 같이 한마음으로 그 능력을 서로서로 줘 가면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有)의, 이 색상의 법으로서 잘한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한계가 있고 너무도 모자랍니다.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걸 잘 보십시오, 어떻게 모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 말씀 드릴 건,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스님께 제자가 말씀드리기를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겠습니다." 하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수에 백살을 넣어서 백수탕을 해 오너라."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없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모르신다면 자기 주인공에, 바로 마음속에 넣고 굴리면서 의정을 내 보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문중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차에 치여서 늑막염이 들었는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병원에 가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6년 7년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이 나니깐 어쩔 수가 없이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토끼를, 시장에 가면 있으니 그거를 마늘을 넣어서 푹 고아서 잡수시오." 하니까 그 스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고기를 먹어서 쓰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토끼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그 토끼의 몸이 내 몸과 둘이 아니니 즉석에서 요리를 한다면은 바로 그 맛을 알고, 맛을 아는 반면에 그 육신은 바로 약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모두가 둘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둘이 아니라면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둘이 아니고 사랑하기에 또 그 고기를 먹어야 하고 살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살생이 아니라 무명만 바꿔 놓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을 해 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귀동냥이나 해서 말을 한다면 이건 진실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불을 켜야만 됩니다. 마음의 불을 안 켜고, '내가 절에 갔다 오면 고만이지.' 그것도 '잘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하고 다니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공부하는 길에서 자연히, 내가 똑바로 나가고 일심으로 나가는 반면에 일심 자체도 없다는 도리를 알 때에 비로소, 나는 몰라도 그 가정이 화합이 되고 융화가 되고 또 아주 조화가 돼서 잘 돌아가면서 아픈 거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그런 것은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해 놓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파서 급해서 왔는데 뭐 땅뚜개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픈 거나 가난은 면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묘법이며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입니까.



그림 · 최주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질문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0년 가까이 살던 곳을 떠나서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삼재가 들어서 이사를 무사히 하려면 비싼 부적을 사서 집에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집안 살림도 어려운 형편에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답변 여러분 중에는 동서남북 방위를 보고, 무슨 동쪽이 막혔으니까 이사를 못 가고 뭐가 어떻게 돼서 못 가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들여 부적을 해서 부엌에 안 붙이나 마루에 안 붙이나, 방에 안 붙이나 대문 바깥에 안 붙이나, 베개 속에 안 넣나 요 속에 안 넣나, 몸에 지니고 안 다니나. 도대체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겁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밀고 나갈

☞ 26면으로 계속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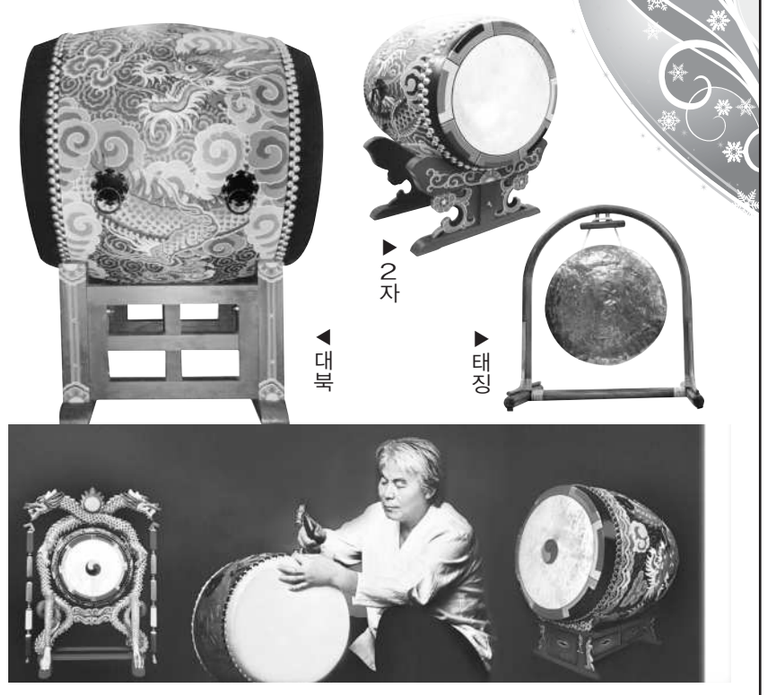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량하는 것도 없습니다

☞ 25면에서 계속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갈대같이 흔들립니까? 그것을 듣는 놈은 누구고 그렇게 말해 주는 놈은 누굽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발바닥에 흙을 안 묻히고 다닌답니까? 자기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으러 다닌다면 귀신 짓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마구니 짓을 안 한다면 마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생하러 다닌다고 놀부 짓이나 하는데 말입니다, 길을 오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떠한 생명을 보거나, 길거리에 앉아서 돈을 달라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무주상 보시나 물질 보시의 방생을 해야 하고, 밥을 굶어서 애를 쓰는 가정이 있다거나 또는 학비를 못 내서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낸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사람이 왜 죽은 행을 합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생동력 있게 살아 있는 행동을 해야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항상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마음이 너무 뾰쪽한 것 같아요

질문 가정에서나 친구 간에 저도 모르게 뾰쪽한 말이 나가서 상대를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속이 넓지 못하고 옹졸한 것이 돌아가신 할머니를 닮아서 그렇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내면 의식이 바뀌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전에 제가 산중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니까, 바람이 휙 부니까 향기가 휙 나면서 꽃 속에 있는 그 꽃가루가 날아서 저쪽 나무의 꽃 속으로, 그 열매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의 그 충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한 겁니까, 세상에. 그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그게 우연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대자연입니다. 거기 가서 그 꽃가루가 묻는 대로 그 충이 죽더라는 얘깁니다. 녹아서 물로 떨어져요. 죽으면 그게 인제 아침 이슬에 다 녹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협동심이 있고 전부 조화를 이루고 사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고 삽니까? 한 가족에서도 서로 말로 뜯어야만 하고….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죠. 말로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 언제나 듣기 좋은 말 하면서 마음이 좋게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다 못 산다. 이상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천국이요, 이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듣기 싫은 소리 서로 하지 말고 안으로 굴려라 이겁니다. 안으로 굴려 놓으면 그 사람, 아까 그 꽃가루가 가서 충을 죽이듯이 바로 내 마음에서 그 마음속으로 밝음이 들어가서 그 나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녹아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왜 나쁜 말을 거죽으로 들이대고 해야 되느냐 이 소립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장사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사는 과정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도 말 없이 말을 하라 이겁니다. 생각으로써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하지, 기껏 해 놓고도 말 한마디로써 그 쪽박을 깨뜨리는 수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써. 마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해 놓고서는 떡하니 말 한마디 잘못 불쑥 해 가지고는 그냥 홈빡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일을 망쳐 놓습니다. 이건 속 똑똑이가 돼야지 거죽 똑똑이가 돼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 정직하고 건실하고 착실한 사람으로서 융통성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래야만이 이것이 진짜 불법이며 생활 불교며,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호국 불교도 나가고 호국 정신도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여건을, 자유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조절을 해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호국 정신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나 하나를 이끌어 가지고 갈 줄 모르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는 그러한 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꼭 몸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 가짐가짐을 잘 갖는다면 우리 국가를 지킬 수도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우주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한 점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끄달려 가면서 앞뒤를 재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함이 없이 말을 하고, 들은 사이가 없이 듣고, 오고 감이 없이 가고 오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의심이 갑니다

질문 큰스님 가르침대로 모든 걸 한마음에 다 믿고 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혹해서 그런지 지금 제 자신이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믿었다고, 봤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 있게 봤는지 안 봤는지 의심이 갑니다.

답변 주인공에다 어떻게 놓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내놔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거요. 어떠세요?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놔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모두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오신 발자취를 들고 오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고 계십니까? 살아오신 거를 들고 계십니까, 모든 거요? 그게 습의 관념이지, 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뭘 또 '들었다, 놓쳤다, 못 봤다' 이러십니까? 여러분이 이 물질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습,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고정됨이 없이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도 과거요, 그것도 벌써 놔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가들어서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애가 "아버지!" 하고 덤볐을 때에 "그래."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게 금방 없어지고 금방 남편이 돼 버렸습니다. "애 아무개야! 아무개 있니? 나 좀 보자." 아, 이러면 아들이 금방 됐습니다, 또. 남편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공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 놓고 돌아가는 거지 그게 들고 돌아가는 겁니까, 예? 뭐를 놓지 못하고 뭐를 들고 다니고 뭐를 그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그 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좀 그 관념 속에서 벗어나시면 여러분이 훌륭하게, 이 진리를 탐구하고 실험자로서 체험해 가면서 연구할 겁니다, 아마. 이 종교라는 게 그대로 그냥 멋진 거예요. 아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멋진 이 종교, 불교란 얘깁니다.

분별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려면

질문 근본에 항상 집중하려고 하고 오직 근본에 들이고 내는 생활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근기가 부족해서인지 24시간 분별하지 않고, 오직 근본으로만 들이고 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도 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분별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우리가 이 인간으로 살면서도 마음을 잘 쓰면, 잘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겪어 보니까 그걸 너무도 잘 알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고 들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분리해서 자꾸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에 생각하고 가는 것도 그놈에서 나오는 거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들이고 내는 게 그놈이 하는 건데….

그것은 인제 왜 그러냐. 이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참자기의 뜻이 아니라면 겉으로 보고 사량으로 돌리는 게 어두워. 요렇게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돌질 않으니 어떡합니까, 글쎄? 하나하나 이건 말로 이루장창 할 수가 없는데, "아이,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러면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분명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생각이 엉뚱나가게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어떻게 사람으로 돼 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엉뚱나가게 안 나느냔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치울 것도, 간단하게 해치우면서도, 그것이 바로 거기서, 두 놈이 아니고 그 한 놈도 없다고 만날 말을 하는데도 아이, 그걸 두 놈으로 갈라놓고선 이건 사량이고 이거는 내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량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야만이 사방이, 사방천이 밝아서, 참 스스로 오온이 밝아서, 칠보가 정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대로 자유권을 얻고 해야, 이것이 바로 시민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는 항상 이게 끄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끄달리는 중에도 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남편이 일을 갔는데, 석 달 기한을 하고 일을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스님, 거길 가니까요, 애 아빠가 그냥 먹질 못하고 일은 고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갔던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그걸 불문에 붙이고 그래, 가는데 먹지 못하는 거 번연히 알면서, 일 고되다는 거 번연히 알면서, 여기에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벌어다가 그래도 예금통장에 조금이라도 넣고 사는 사람이, 그래 맨손으로 그냥 가? 아, 생각해 보세요, 글쎄. 아니,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그런 일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뚜껑과 이 통이, 똥그랗게 된 통은 똥그란 뚜껑이라야 맞고, 네모가 난 통이면 네모 뚜껑이 맞는다. 그것이 맞지 않는 거라면 세세생생에 이것이, 즉 말하자면 지옥이니라." 이상이 맞지 않는 부부라면 이건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업을 짓는 거는 더 말할 수도 없거니와 돌부처도 돌아앉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업 짓는 거는 자기네들이 맞지 않게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경험을 못하고, 경험을 쌓지 못하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구덩이에도 들어가 봐야 그 깊이를 아는데,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을 해 보지 않은 데에서 나오는 어두운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해 보는 데서 무지한 밝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다' 이런 소리도 연구를 거듭거듭 하면서 얼마만큼 그걸 실패를 해 가면서 연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뜻을 보려고 테스트하는 건 모르고, 어떠한 게 나타나면 그거 또 둘로 보는 겁니다. 아, 어디서 나올 틈이 없어요. 붙을 것도 없고 뭐 붙일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붙어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다시 놓으면 될 것을, 이걸 둘로 보니까 집안이 형편없이, 자기 마음의 분신이 이것저것 생겨 가지고는 온통 집안에 우환이 끓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태워 버리고, 우환을, 가난 또는 병고 이런 것을, 인연 업보 유전, 이런 거를 모두 떼 버리려면 나한테 나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붙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자체도 없고 너 자체도 없고, 너다 나다도 없고 중생 부처도 없고, 이것은 이름이 부처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내면의 진의를 몰라서 그냥 바깥으로 끄달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 **살아 있는 사람이 왜 죽은 행을 합니까!**
>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생동력 있게 살아 있는 행동을 해야죠.**
> **그럼으로써 항상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 엄 괘 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막장 인터넷 개인 방송과 내용 규제



정용국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터넷과 웹캠 그리고 동영상 편집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특히 주요 동영상 서비스 업체는 개인 방송의 운영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개인 방송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의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는 시청자가 유료로 구입한 '별풍선'을 BJ (Broadcasting Jockey)에게 선물하면 이를 일정 비율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여 BJ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결과 '대도서관', '양띵', '악어', '김이브'와 같은 유명 BJ들은 억대 연봉 이상의 수입, 지상파 방송 출연은 물론 광고 모델로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개인 방송은 기존의 방송 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BJ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겜방(게임방송)',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먹는 방송)',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 방송',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방(공부방송)', 심지어 조용히 앉아만 있는 '침묵방송',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소방송'까지 콘텐츠의 진화는 끝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큰 투자없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상식과 규범의 허용 범위를 넘는 선정성과 폭력성과 같은 반사회적인 개인 방송이 증가하면서 콘텐츠 규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벗는 방송(벗방)'이라고 불리는 음란 방송이다. 시청자가 적은 시간대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개방'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성적인 시청자층이 유료로 접속할 수 있는 '팬방(팬클럽방)'으로 전환하여 보다 수위 높은 장면을 연출한다. 음란 방송 이외에도 욕설, 폭력, 엽기, 가학 심지어 반인륜적이라고까지 보여지는 방송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제 혹은 단속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방송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즉, 현재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 기법,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등의 조항을 개인 방송 사업자나 운영자에게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방송을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로 규정한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방송보다는 통신의 속성이 강한 개인 방송에게 적용시키에는 무리가 있다.

제도권 밖 개인방송 폭발적 확대
수익 노린 선정·폭력방송 많아
현실적인 규제는 자율규제 뿐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비록 법적인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방송에 준하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동영상 서비스 업체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사업자와의 협력회의를 통해 개인 방송의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강화, BJ 관리 강화,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러한 자율규제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가 생산 및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TV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BJ 교육을 강화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송을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일부 BJ들이 서비스 업체의 자율규제가 거의 없는 영세 업체로 호스트를 이동하거나 SNS 개인 계정,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해서 방송을 계속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언제나 불충분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문제를 너무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할수록 해결책은 실타래처럼 꼬이게 된다.

일단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근히 진행함과 동시에 개인 방송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폐해를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기자 칼럼

조계종의 한전부지 환수와 차가운 여론



노덕현
취재부 기자

1970년대 서울시와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된 옛 한전부지를 돌려받기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3월 7일 조계종 직할교구 종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3월 8일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전부지 환수 운동 동참 결의문을 내놓았다. 23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집회가 열린다. 한전부지 환수 문제에 전체 불교계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측이 보유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한전부지 매각은 1969년 12월 제22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사찰유휴재산 처분 승인에 따라 총무원이 종무회의와 중진 및 기관장회의를 통해 매각이 결의되며 진행됐다. 1969년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 토지 매각을 결정하고 1970년 6월 문공부 매각허가를 받아 토지처분이 진행된다. 당시 계약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윤태진이라는 서울시공무원이 쓴 가상의 인물이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윤진우 씨의 가명이다.

여기에 토지 보유자로 매각 반대입장을 밝혀 온 봉은사는 계약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정부는 계약에 대한 문공부 승인이 난 뒤에야 상공부 종합청사건설위원회를 통해 윤태진을 대신해 계약승계를 진행하며 전면에 등장한다. 군사정권 시절 대규모 토지매입을 위한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교계 밖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주요일간지 뉴스 사이트의 게시판만 보아도 네티즌과 시민들의 환수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다. '보상금을 노린 행위', '불교자산을 특정종단 소유로 보는 시각이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불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무리 봉은사 측에서 반대를 했어도 조계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원과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결의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여기에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봉은사도 조계종이고, 조계종 총무원과 종회도 조계종이 아닌가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당시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주체가 봉은사 였어야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가해진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권의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져도 문제제기를 한 시점이 너무나 오래됐다는 것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것이다.

한전부지는 토지 매각 이후 1984년 1월 한전이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이 이후로 23년이 지난 2007년에 봉은사 측에서 원 소유자에 환수하라고 요청한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늦게 조계종이 환수운동에 나선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조계종이 40여 년 전에 발생한 일을 새삼 들춰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역사바로 잡기라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도 알아야 한다. 현재 불교계에서 바라는 일이 정권의 강압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시민들에게 이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월 8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봉은사 소유토지의 강제수용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당시 종단측 당사자를 포함한 '봉은사 소유토지 강제수용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송보다는 당시 매각 절차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선행과제다. 한전과 서울시,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항의와 소송도 중요하지만 불교과거사를 정리해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社說

종교의 과도한 선거 개입 안된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30일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공천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함께 분주한 곳이 있으니 바로 개신교계다.

개신교 진보 계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월 8일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를 발족했으며,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진영은 일찌감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온도 차는 있지만 공통점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에는 지지를, 부정하는 '반(反) 개신교' 정서 후보에게는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개신교계의 이 같은 운동은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최근 흥역을 치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더민주당 비대위원의 조찬기도회 논란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종교계도 사회 일원으로 공공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종교와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것을 공공선으로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개되는 낙선운동은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교리와 정서에 부합치 않는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현재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역을 대표해 선출되는 사람들이다. 좋은 정책을 가진 진정한 일꾼을 뽑는 것이지 특정 종교인을 뽑아서 특정 종교의 전당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 선거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 국회를 특정 종교의 압박이 통용되는 집단으로 만들어서도 안될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신정(神政)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찬불가 지도사 양산, 불음 포교 미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불가는 불자들의 신심고취를 위해 필요한 포교수단이다. 찬불가가 제작 보급된 지 수십 년, 곡도 수백 개가 족히 넘는다.

하지만 개신교의 교회음악에 비하면 우리 불교의 찬불가는 대중화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 많은 찬불곡들을 불자들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찬불가를 알리는 이들이라야 각 사찰의 지휘자와 합창단 정도가 고작이다. 이것도 규모가 큰 사찰이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불자들이 찬불가를 쉽게 접하기가 녹록치 않다.

특히 지휘자 초빙에 제약이 따르는 군법당, 교도소, 복지관 등에서는 찬불가 선율을 들어보기 더욱 힘들다. 이런 열악한 불음 포교 환경으로 난항을 겪는 불교계에 찬불가 지도사 민간자격증 과정이 새로 생겨 찬불가 대중화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올해 초 문화체육광부로부터 찬불가 지도사 1급과 2급 과정에 대한 최종 등록과정을 마치고 지도사 양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찬불가 포교를 하면서 오래 전부터 이를 구상했다.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년전부터이다. 그는 동국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찬불가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민간자격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자격증 등록을 계기로 강 단장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과 고양캠퍼스 평생교육원에 〈찬불가 지도사〉 및 〈찬불가 힐링스쿨〉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찰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다수의 지도사들이 양산돼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찬불가 선율이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3개월 선납시 10% 할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 ¡(행운)과 (복)을 선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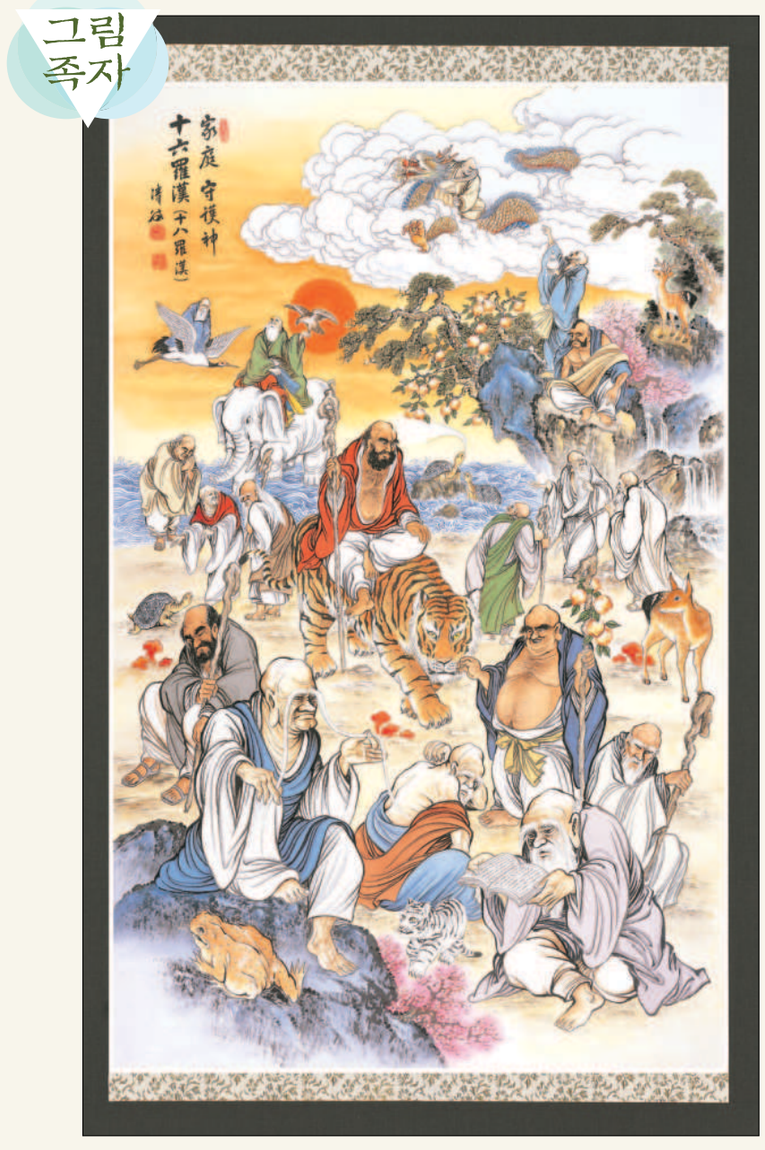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16나한도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 · ¿ ~ „ „ » · ·
— · · ¶ · , ` — , · , ‡ … ¿.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 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제작하였습니다. 16나한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 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 나한도 족자 가격 : 100,000원
●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는 족자 완성품입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전하는 21세기 부처님의 메시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 철학서를 뛰어넘는 우주적 진리 신불교의 메시지!



보정판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처님 계율 잘 지키고
대승경전 읽고 염불공부 잘 하면
금생도 다음생도 행복할 것이며
윤회생사도 벗어나고 왕생극락까지
하리라'고 가르치고 싶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보정판 발행

대승불교를 완성한 영산불교의 만자 가르침을 펼치다

1.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불교사상 최초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후 2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우리 부처님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불과를 이룬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께서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 여여히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 사후 윤회세계와 해탈세계의 존재를 증언, 올바른 생사관 정립!
영산불교 큰스님께서 사후의 지옥 · 축생 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를 직접 보고 그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중음계의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3.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정립,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새롭게 정립, 부처님의 가피로 선정 · 삼매에 들어 눈이 열리고 지혜와 힘이 생겨 해탈열반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4. 무아와 윤회주체간 논란에 종지부–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선언!
기존불교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토대로 윤회의 주체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 잡고 인간본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 인간과 우주만물의 지고한 탄생 비밀 처음으로 밝혀!
어떠한 종교 · 철학에서도 몰랐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비밀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겁이 되면 공의 힘과 창조 원리,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공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종자(공아자)와 물질종자(질료인)가 중중무진연기를 통해 인간이 되고 우주만물로 탄생하게 됩니다.